

國師玉龍子遊世秘錄



[해제]

<국사옥룡자유세비록> 필사본 장편가사이다. 표지에는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속표지에 <국사옥룡자유세비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풍수지리학을 바탕으로 한 전라도 일대의 명당터를 지역별로 나누어 기록한 작품으로 일명 명산록이라고도 한다. 이 가사의 저자는 일차적으로 신라말엽의 명승인 옥룡자 도선국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작품의 처음의 내용인 “國師玉龍子遊世秘錄姓崔名倒誥号玉龍子生長於靈岩鳩林”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이 필사본이 도선이 직접 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가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비결이나 탁상 이론이 아닌 철저하게 조사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내용 중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에 대한 기록도 이 가사의 작자 추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도선은 장차 이성계가 인왕산 아래 조선건국을 예언했다. 그런데 “아국주하(我國主下)”를 통해 예언이 아닌 그 당시 현실의 기록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이 가사의 일차 작자는 도선국사이나 후세 풍수가들에 의해 첨가 보충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외에도 동자와의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지승 유산록>이 현존한다. 이 작품은 조선 중엽의 풍수대가인 일지대사에 의하여 저술된 유산록으로 <국사옥룡자유세비록>의 지명과 대동소이하다.

[원문]

國師玉龍子遊世秘錄

姓崔名倒誥号玉龍子生長於靈岩鳩林

吾年十五才에 地理書를 閱覽하니

이체도 알수업고 山理도 눈에설어

先生을 차즈려고 唐나라 드러가서

七日 제게하고 張一行을 만나보니

一朝에 豁覺하야 전허물을 도라보니

四十九年 그른거슬 오날사 아랏구나

造物이 시기허야 先生이별코 本國으로 도라올제

白頭山 仙女揚에 仙婆集을 베왓구나

八道江山을 歷歷키 도라보니

明堂正穴 만컨마는 거누라서 알아볼고

바로나려 올지음에 淸津邑內 지내서니

湖南五十三洲 버린중에 山水더욱 조왓서라

礪山地境 드러가서 左右를 살펴보니

北十里 伏虎形은 兵吏判이 나리로다

眠大案 大路邊에 華蓋金星 버려스니

알음다운 저星辰이 말굽에 다녹는다

用地八年 初發하야 大小科擧 쉬우리라

그엽[∞] 飛鳳形은 梧桐案이 더욱쫓타

靑龍안에 大川水가 南으로 橫流허니

五六尺 파게되면 三隅石이 잇스리라
 主人峯을 자세보니 宋氏의 차지로다
 西便에 翼間穴은 豊厚하고 有德하다
 三代後에 發福하야 文武兼出 하리로다
 南十里 盤龍弄水 戌坐의 辰破로다
 富貴速綿 하려니와 子孫千億 하리로다
 龍長穴拙하니 香火千年 하리라
 主人峯 시아르니 水火姓이 發福이라
 그것대 行舟形은 江潭案이 되엿스니
 富貴도 만이나고 百子千孫 하리로다
 龍虎回抱 하온중에 立石峯이 西에잇다
 그령저령 구경하고 咸悅로 내려오니
 北五里 伏虎形은 連代富 하것구나
 그건너 黃龍負舟 三槽案 알름답다
 大海橫流 西南하니 無官大富 하리로다
 十里許에 닷난사심 벗슬일코 갈釣물나
 年原廣野 엇덕우에 돌한나로 몸을싸고
 어연이 누엿스니 어느損안 알아볼고
 芳原綠草 지배암은 무엇을 보려허고
 거름을 제촉하야 大野로 내려간다
 그암페 將軍形은 擊鼓案 더욱쫓타
 半月形 蜈蚣形은 보기도 쫓커니와
 速發 富貴하야 文武三代 나리로다
 龍頭밧태 늘근중은 나를보고 반기난듯
 主人峯 살퍼보니 水火姓이 임자로다
 그질노 너머서니 玠山이 여기로다
 東便에 天馬形은 白虎案되 말어서라
 穴이사 쫓컨마는 賤人의 쌍이로다
 그받게 金釵形은 玉梳峯이 分明하다
 穴在窟中 하엿스니 아러보기 어려워라
 그우에 누은소는 耕田案이 되엿스나
 四面에 물이나니 제穴하기 어렵구나
 穴在 窟中하니 躍馬奇敵 보기쫓타
 百子千孫 하려니와 五代富貴 잇젓구나
 玉溪埕에 갈한龍이 물을보고 내려온다
 安心山下 내려오니 陽宅하나 숨어잇다
 五姓 但發하야 數百代 家基로다
 잘몰차자 살게되면 게집일코 敗家하리

高山地境 다다르니 八大穴이 分明허다
 第一讀書 仙人이 玉冊案 正土星에
 穴在上聚 陰作하니 아라보기 쉬우리라
 第二渴 龍飲水 大水 橫流허니
 前泰山 後大路에 水纏玄武 하엿스니
 兼出大富 하려니와 一代狂人 못犯하리
 第三行 舟形은 艮水가 故乙하니
 百子千孫 하려니와 七代翰林 나리로다
 穴五尺下 물잇거든 以石淹水 하여서라
 第四走 馬脫鞍 大川이 엽패잇다
 盤龍伏 虎兩天穴 陽宅으로 생것구나
 文武科 代代나고 天下大富 하리로다
 乾亥脉 百里平野 吾道內 第一이라
 錦山東 二十리에 닷난말 안장벗고
 두덕두덕 내려와서 물을보고 엽젓스니
 만일에 엇게되면 名多才士 나리로다
 三四尺下 馬蹄石은 無價之寶 되리로다
 坐得破을 찾자거든 天上遯卦 解得하여
 師丈峯 讀書形은 白盤石이 나리로다
 東南便 數里許에 金龜形 金鰲形과
 仙人唱歌 飛鳳故巢 梧桐山에 모도잇다
 坐을찾자 하거드면 水口金星 보아서라
 臨陂地境 너버저서 戌山形体 바라보니
 四十里을 도난龍이 節節이 起伏허야
 亥十節 癸五節에 辛戌로 過峽하고
 伏鐘金星 세웁스니 天下大地 이아닌가
 壬坎으로 入首하야 陽來陰作 하엿구나
 艮丙得 丁水口에 三台七峯 버럿스니
 만일에 어더쓰면 富貴無雙 하리로다
 艮丙이 相望하고 乾坤이 並立하니
 子午가 遠數하니 萬世榮華 하오리라
 主人峯을 살피보니 水土姓의 物이로다
 居地姓名 아자허면 火雷噬嗑 解得하소
 前案山 百餘리에 四山이 湏湊하야스니
 兩水 合流하니 湖南의 首大地라
 六尺下 石函中에 四百八字 訣錄잇서
 子孫福錄 버려스니 積善何人 어들소냐
 八兄弟同 傍及第 名滿一國 하리로다

그릇裁穴 하게되면 當代滅亡 못免하리
 歎歎不已 하고서 虎山으로 건너가니
 將軍大坐 伏虎形은 兩大穴이 더욱좃타
 穴在窟中 하였스니 알기도 쉬우리라
 그사이에 十六穴은 다말하기 어렵도다
 玉溝으로 너머서니 집치는 저鳳凰은
 梧桐枝 엇다두고 枳棘間에 往來허니
 當代에 速發하야 數十代 가리로다
 主人을 찾자헌들 木卜姓의 쌍이로다
 梅花落地 燕巢形은 文千武万 나것구가
 星山下 一大脉은 玉女抱琴 생것구나
 거문고 압퍼놓고 단정이 안진거동
 穴落平地 하였스니 보던中 第一이다
 그아래 내려오니 고기잡는 저老翁은
 갈딤숨 풀업난고 狇釣寒江 하난구나
 우연이 병이나서 數三日 졸리하라고
 五姓村 다다르니 그안에 金喪人잇서
 年長七十 늘근몸이 感天至誠 孝子로다
 自然이 感動하야 猛虎出林 가르치니
 用之五年 初發하야 大富豪華 하리로다
 날을게러 제穴하니 庚酉坐 乙破로다
 主人게 하직허고 萬頃으로 너머서니
 東十里 仙人舞袖 橫琴案이 分明하다
 穴在平地 坦하야서 四面卑 湿하니
 法眼이 안이거든 알아보기 어려우리
 西二十里 金釵形은 三面水 抱朝허니
 亥三節 壬入水에 子坐午向 當門破라
 居地姓名 짐작허니 山水震卦 丁宇하다
 朗月山 一枝脉에 龍已聚舍 싱것스니
 奇岩在 後하고 大路在前 하야구나
 이山穴 찾자거든 華蓋金星 數三節에
 丑艮剝搜 艮入首에 丁水故戊 하는구나
 만일에 어더쓰면 金玉滿箱 鬪彥하리
 木山坎卦 鮮得하니 金星人 主人이라
 大海邊 渴馬飲水 四百餘年 天基로다
 그것대 仙人舞袖 알아보리 뉘잇스리
 將軍峙下 大坐形은 富貴雙傳 하것구나
 文武科 二十中에 大將一人 나리라

旗鼓兵 器羅立하야 海中에 버릇스며
 穴在石山 微窩處 어느明眼 알아볼고
 三四尺을 파게되면 盤石下 雙鯉로다
 穴을어더 쓰게되면 前後妻 다죽이고
 狒子로 發福하야 百子千孫 하리로다
 象頭山 너머서니 金堤邑內 不遠하다
 龍泉洞 下飛龍形 五雲案이 冔情하다
 穴바닥을 구경하니 奇奇妙妙 하엿서라
 左便에는 赤石이요 右便에는 白石이라
 冠가치 노인石을 傷치말고 쓰게되면
 四十一年 初發하야 代代榮華하리라
 主人峯을바라보니 待主六物 丁宇하다
 五龍峯下 行舟形은 大江이 案이로다
 艮丙이 通達하야 並辛이 特立하니
 英豪男女 代代出 名滿天下 더욱좃타
 乙辰双行 囹頭하야 艮坐原이 당문되니
 卜男의 忠孝富貴은 代不乏絶 하엿서라
 西山下 石擲穴은 身富名揚 代代하리
 南十里 大江邊에 雌雄三穴 쏘잇구나
 東湖邊 四大穴은 主人차자 가르치고
 그아래 鳳凰形은 三囹九囹 하엿스니
 大基로 아련하야 數百代가 오리라
 玄土洞 死龍形은 當門大發 쏘이로다
 이날로 車峯너머 益山으로 作路하니
 平原廣野 어덕우에 渴鹿奔野 너는어이
 犢山을 바리보고 소리업시 숨엇나요
 單山下 狒龍形은 螟蛉繼祀 하것구나
 西十里 行舟形은 文科五代 나리로다
 그밋티 三龍戲水 澗水 압피두고
 立石을 이지하야 저근듯시 숨엇구나
 金山恒卦 이거시라 七代文科 하리로다
 雲胃洞 將軍枝劔 穴在田上 하엿구나
 龍虎但斷 野中狒立 그뉘라 아라보리
 三案峯 도라드니 故龍隱山 더욱좃타
 水星行龍 十二節에 落在平地 하얏스니
 文人才士 代代나고 名冔君子 나리로다
 그리저리 求景하고 全州地境 드러서니
 上帝奉朝 一大穴은 浮來中華 하엿소다

龍四重 虎三重에 前後遠近 옹위하니
 이穴을 쓰게되면 五代만에 君王나리
 主人峯을 자시보니 李氏千年 分明허다
 庚八節 兪十節에 丙午龍 뒤엿스니
 狒侍四 代하온後 九重宮闕 차지하리
 並入首巳 坐原에 艮水가 故去하니
 百子千孫 하난中에 都執國權 하리로다
 그곤대서 推術하니 完山으로 根本삼고
 人皇山下 昇定하야 我國主張 되오리라
 東으로 건너가니 龍止山이 여기로다
 紫氣木星 辰坐穴이 將軍形이 생겼스니
 萬山이 拱朝하고 百川 湏湊하니
 萬歲香大 하려니와 峰岳이 隱面하고
 節節 帶敎하니 失傳이 磼여로다
 主人峯을 살펴보니 火姓의 쌍이로다
 柳山下 臥牛形은 陰陽宅이 俱吉하다
 陽宅은 丑坐하고 陰宅은 艮坐하소
 南高寺 西一麓에 寶劔出甲 그뉘알이
 並龍 十二節에 五百年이 通泰하다
 內外孫 俱發하야 二十八代 가리로다
 南麓의 金盤形은 龍山頃에 생거구나
 印砂玉帶 압퍼잇고 華蓋雙傘 案이된니
 三台案만 못하여도 六卿間間 나리로다
 無欠大地 이거시라 사람마닥 어들소야
 亥入首 壬子原의 甲印水가 坤에가니
 主人을 자세보니 火姓이 分明하다
 飛鴉洞 느려가니 飛鴉相和 하는구나
 胎峰龍 차자가서 形体을 자세보니
 東에는 穴이엿고 北에는 飛鳳이라
 周回十里 逆水脉의 左右旋局 진결하야
 印帶가 在丁하니 九代三公 完然하다
 엇지안이 奇妙하리 以待後人 하난구나
 長破寺 留宿하고 盤龍穴形 구버보니
 逆水結局 하여쓰니 一代丞相 無后하리
 碧松寺 前後局은 兵火不入 하리로다
 金溝
 其下에 獅子形은 上穴로 齊等하다
 西麓의 十八穴은 欠敗업시 平平하다

金溝로 내려와서 두루다 구경하고
 金山下仙人 讀書形은 節節 奇妙하다
 東十里 西峯頭에 陽宅이 더욱 좋다
 龍虎가 重重하야 前川이 回抱하며
 明堂이 廣闊하야 東高西低 하여쓰니
 大富난 하련이와 文科一人 白花三代
 淫達로 案을하니 成敗가 非常하다
 三台로 案을하고 水口에 立石하면
 印傘가 不絶하고 富貴도 長遠하리
 西南越峯 玉女形은 龍長虎短 하여구나
 明堂이 現出하고 大川이 南流하니
 龍腰에 大路나고 虎頭가 고쳐되면
 白花一人 날거시오 五代文科 하리로다
 居地性貫 보자하니 水土山에 並火로다
 西十里 黃山下에 臥龍形이 奇妙하다
 東高 北低하야 龍虎가 回抱하며
 穴前水가 西에가니 淋頭水 못피흐리
 白花三代 흐려이와 文科大富 날리로다
 西十里 回龍隱山은 陽宅으로 생거소다
 大路가 在南하고 龍虎가 重疊하니
 富貴도 하려이와 子孫도 만하리라
 不遠間 東峯邊에 富局이 되었구나
 武科三人 날거시오 天下壯士 나리로다
 東土城 蜈蚣形은 蜈蚣案이 생거쓰니
 白花二人 文科三人 近代富貴 날리로다
 其中에 雲中盤龍 龍虎回抱 하여구나
 文武兼全 數百代에 位至三品 하리로다
 大路過에 走獐逢網 百子千孫 豪富하리
 泰仁
 其路로 下來하야 泰仁地境 드러서니
 南十里 三龍弄珠 來勢가 方圓 하엿도다
 龍虎가 回抱하야 案三重이 되었쓰니
 武科七代 進士하고 天下巨富 나리로다
 東十里 伏虎形은 土山家人 丁宇하다
 並辛이 特立하야 丙午丁과 相對하니
 近代文科 흐려이와 龍長虎短 恨이로다
 穴前에 元泉水은 與天地로 偕亡하리
 盤龍飛鳳 兩大脉이 相忘地에 수머구나

大開帳 主山上에 三種石이 되어쓰니
 三代后에 武科나고 五代后에 文科나리
 穴을보고 任子보니 水火姓이 主人이라
 午三節 丁入首에 印水故戌 하난구나
 大野过 仙人騰空 金堤가 不遠하다
 主三峰前 大川하니 二十七人 立朝하리
 斗山下 十里許에 回龍盤龍 兩大穴은
 主山大川 重重하야 陰陽宅이 兼全하니
 大將一代 拾閣五은 陰宅의 날거시오
 二十一人 大小科은 陽宅의 날리로다
 盲人一人 나거드면 名滿一國 하오리라
 朱雀峰이 南에잇고 瞽目石이 東에잇다
 이主人 찾아하면 水土姓이 主人이라
 大耶洞 躍馬走徹 大川이 橫流하야
 天基로 생거쓰니 正土星이 圓厚로다
 主山 三四節에 左右가 卑濕하니
 찾기가 散亂거든 馬上坪 자세보소
 屈峙저 雲中盤龍 天穴로 생거구나
 石中土穴 紫白中에 虎伏石이 잇거드면
 三代文科 七代翰林 富貴豪華 할거시니
 穴中에 독잇다고 부디부디 傷치말나
 天藏地秘 ㅎ여쓰니 以待后人 하난고나
 不遠地 回龍隱山 陰陽宅이 俱吉하다
 兩水가 合流하야 大川으로 流去하니
 主山 一節橫作한디 左右三峯 숨엇도다
 中山上頃 올라서서 前後左右 살펴보니
 其中에 文章形은 나을보고 반기느듯
 穴在 上聚하야 隱隱히 숨엇도다
 其誰라서 알라불고 境內에 숨은穴은
 良脉하나 출여잡고 水洛洞을 下去하니
 老鳳啟巢 너는어니 穴后合襟 하야구나
 穴前에 큰못잇서 大水가 貯蓄하니
 初敗는 비록하나 富貴長遠 하리로다
 穴在鉤中 하야쓰니 알기 어려우리
 積德修善 하온後에 此穴을 어드리라
 南方에 捲簾砂은 五年內에 害가되나
 其後에는 富貴하야 萬歲香火 하오리라
 眞主가 안이면은 一年內에 移葬하리

艮十節乙 三節에 甲印의 剝換하야
 艮入首 辛戌破에 百代長久 하리로다
 欠歎을 不已하고 七宝山을 올라서서
 三十里 逆水脉이 八大穴이 므자구나
 그中에 三大穴은 水土姓이 主人이라
 其下에 展翅形은 陽宅이 되여구나
 大小科 黃近綿하고 大富 子孫代代하리
 만일에 그릇지면 滯亂風聲 無過하리
 其下을 자새보니 沐浴水 닷시로다
 南으로 건너가 帝座峰 을나서니
 君臣奉朝 一大穴은 龍虎업시 생거구나
 拜祀밧 두에두고 三台峰은 在前하니
 언년이 안저쓰니 아라보리 그뉘란고
 走案이 重重하야 天門이 廣闊하니
 보기도 쉽것만난 主人업시 못주것다
 大幹龍 가는脉이 橫飛로 도라서니
 庚酉坐 乙辰破는 出將入相 하거구나
 南으로 나러와서 左右을 둘러보니
 長鼓山下 將軍大坐 穴在窟中 하엿시니
 투구峰은 在北하고 斬首石은 在西한다
 甲卯脉에 坤申水는 速發長遠 하리로다
 漁翁散網 白雲展翼 陽宅으로 생거구나
 도로 山頂으로 올라와서 장간보니
 그外에 남은穴은 十二穴 쏘잇도다
 艮十節 艮入首에 亥水가 啟丁하니
 陽宅으로 말할진댄 五道內에 第一이라
 五姓이 俱發하야 四期速을 지닌리라
 古阜
 그질로 절을넘어 古阜로 거려와서
 仙人舞袖 구버보니 不貧不富 흐리로다
 正土寺 上上峰에 玉女端坐 奇妙하다
 三世翰林 七世文科 代不乏絶 흐거구나
 南八星 金釵形은 冲天木星 노와쓰니
 穴落 中末하야 枝葉도 하고만다
 子孫이 滿堂하야 榮華가 無數하리
 卅升山을 올라서서 南麓을 구버보니
 白小帶에 잇난穴은 三代가기 어렵도다
 其下에 仙人鋪展 子孫千億 흐것구나

沱洲方丈 祖山되고 蓬萊三山 案이되니
 만일에 찾거드면 文章才士 나리로다
 이山主人 차자보니 火姓이 完然하다
 安山下 渴光飲水은 土山坤卦 分明하다
 四五尺에 물잇거든 以石掩水 하여쓰라
 四千洞 老龍脫海 兩水合流 故東하니
 連代文科 할거시오 富無敵國 ㅎ오리라
 乾坤이 同行하야 寡婦不絶 ㅎ거구나
 壬坎龍에 甲卯回頭 穴한나 쟁거구나
 文科二人 白花三人 木卜姓이 主人이라
 扶安
 獅峙을 넘어서서 扶安地境 다다으니
 東九里 雌鳳抱卵 無欠大地 되엇구나
 穴前에 오난물이 龍을싸고 玄流하니
 水土에 小畜卦라 主人알기 쉬우리라
 西梅洞 龍馬入廐 玉勤案이 分明하다
 庚兪山 乙辰水은 文科不絶 ㅎ리로다
 南七島 건내가니 回龍隱山 더욱쫓타
 그것티 盤龍形은 右道水口 關達하야
 其外 三峰品字되야 大海中에 特立하니
 三代近侍 지난후에 盲人一代 나리로다
 凹腦天裁 鉗穴上에 臥井石 타시로다
 그主人을 찾자하면 水土巽卦 解得ㅎ소
 西五里 飛龍弄珠 西北大海 되엇구나
 案三珠가 特立하야 海水上에 圓立하니
 主山후에 大路잇서 左右가 天基로다
 穴을찾기 어려거든 金山艮卦 아라보소
 文科三代 連出하고 一代王妣 날리로다
 그우에 龍巳聚會 龍虎回抱 하엇구나
 入首星峰 滋細보소 帶玉金星 特立하니
 落落三節 ㅎ은中에 穴星이 圓厚하여
 穴下에 井花水은 三星을 바로흘너
 西山大海 드려가니 木山兪卦 알기쉽다
 三代獨子 되온후에 四代만에 번連하야
 三代文科 一代驥馬 十二代을 大富할리
 穴中에 물잇거든 補土하고 葬事하소
 南十里에 回龍隱山 水繞龍案 하난고나
 甲卯脉이 穴星되야 三四峰이 尖丹하야

水口連峰 巒頭되고 橫立八節 막어쓰니
 三星脉이 穴星되야 川字로 버려있다
 內外孫이 繁昌하야 都執國權 ㅎ오리라
 一代封君 二代文科 庶孫發達 하리로다
 그緣故을 甞거들면 坐向에 잇난이라
 主人峰을 살펴보니 水火姓이 임자로다
 露積峰下 兩大穴은 連代富名 不絶하리
 東南間 三大穴은 未久에 主人나리
 南歌峙 北鼓穴은 찾기가 어려울리
 西南十里 東井过에 老鼠下田 奇妙하다
 橫龍形과 雌猿飲水 代代近臣 날리로다
 그下에 三龍弄珠 水源이 方回하야
 珠山으로 도리가니 無當之富 나리로다
 三山에 臥牛形은 靑艸案이多情하다
 大窩中에 微突穴은 萬年香火 不絶하리
 壬坎脉 當門水은 水土姓이 主人이라
 左有中角 右有中膝은 發福이 長久하리
 山盡水回 하온고되 形穴正中 ㅎ거구나
 胡峙過峽 구버보니 二十四穴 되여시니
 穴之 大小을 말하여 무엇하리
 象牙峙 玉女騰空 山上開局 하엇구나
 明堂이 廣闊하야 穴在山頂 하여쓰니
 五代을 獨侍ㅎ야 次次發福 하리로다
 文科壯元 할거시오 百子千孫 ㅎ오리라
 月明庵 北麓下에 將軍脫甲 望陣形은
 萬險中에 一奇脉은 此山中에 主穴이라
 兵仙二人 날거시오 東方甲族 되오리라
 氣脉이 脫足하니 富貴不至 十五代라
 主人을 발라보니 金水姓이 完然하다
 壬入首 子坐原을 그뉘라서 아라볼고
 陰來陽去 하야쓰니 奇頭로 몸을싸니
 穴形이 隱恠하야 보기가 어려워라
 初過峽 仙人穴은 子孫千億 하리로다
 中間失傳 할거시니 取할것슨 업거구나
 그아래 陽宅나면 純結之地 되리로다
 北岑의 玉女唱歌 節節히 奇妙하다
 庚酉脉 四節下에 艮水故乙 하난고나
 文科七代 六卿一代 火姓이 主人이라

兪金正體 알거드면 穴보기 쉬오리라
 東山峻峯 三四節에 飛鳥投林 보기쫓타
 그아리 八大穴은 主人업서 恨이로다
 屏岩過峽 丑艮脉에 四大穴이 또잇구나
 雙仙望月 雲仙垵에 穴落平地 ㅎ여구나
 玄武가 吐舌하고 左右가 卑濕하여
 穴形이 墜落하니 어으明眼 아라보리
 主人峰을 바라보니 金水姓이 主人이라
 穴深五尺 合變局이니 물잇다고 업어말고 掩石하고 쓰소
 南北大幹 十里許에 十六穴이 생겨구나
 낫낫치 말하자하니 世俗입이 可畏로다
 興德
 興德으로 作路하니 壺石이 여기로다
 半登山 一大脉이 節節히 奇妙하다
 十里脉 改鳳하야 落在平地 하야쓰니
 窟中에 잇난穴을 어으明眼 이라볼고
 甲卯十節 艮十節에 坎癸로 星峰늦고
 雙龍樞星이 特立하니 再結太極 하야쓰니
 禪雲白雲 兩大脉에 湖南大地 숨엇구나
 左右仙人 춤을추고니 玉壺가 뛰난구나
 旗鼓興將 迎送하고 雲砂羅列 前後하니
 積善何人 어들소냐 子孫福祿 重重하다
 瓶盞을 한便에늦고 醉흔드시 도라셔니
 만일그릇 栽穴하면 代代逆臣 나리로다
 水口捍門 바라보니 一点牛山 새롭도다
 大路는 압패잇고 三台는 뒤에잇다
 六卿峰을 자새보니 文千武万 어려울가
 主峰을 자새 살퍼보니 士大夫에 쌍이로다
 火土山이 離卦보소 艮水故戌 ㅎ다ㅎ네
 穴星이 円厚하야 天栽體로 생겨쓰니
 四代王妣 七代翰林 不足한줄 알라서라
 山盡水回 하야쓰니 名賢士才 間出하리
 幞頭帽笏 도라보니 莫上莫下 하리로다
 世代年記 시아르니 六十八代 두번되리
 龍壯拙穴 하야쓰니 말업시 못친穴을
 積德修善 안이하고 례사로 어들소냐
 湖南 八大地에 그중보기 어려워라
 以後 無識之輩은 到頭下에 永葬하야

水火廉貞 못免하고 當代無后 ㅎ리로다
 奇岩은 左右하고 雲水은 南에잇다
 五尺下 四佛石은 備人間之 五福이라
 紫白黃土 細砂中에 石土相親 하리로다
 이山主人 살퍼보니 延日人의 쟁이로다
 그우에 仙人登舟 恨업시 長久하리
 欲下一鱗 一穴은 白氏之物 되오리라
 火山旅卦 이거시라 裁心ㅎ기 어려워라
 東十里 半月形은 穴在平地 ㅎ여구나
 水下砂가 滿布하야 陰砂로 들려쓰니
 主人잇서 차자면쓰 百子千孫 ㅎ오리라
 井邑
 사실峙 너머서서 井邑地境 다다로니
 南五里 君臣東朝 龍飛虎走 하능구나
 文科一代 비록하나 帳中派이 無后하니
 外孫三人 榮貴하야 墳墓守護 하리로다
 井邊海에 白雲鳶展翼 上下穴이 分明ㅎ다
 그아래 天基나면 數百代 長久하리
 井海南 回龍隱山 初年敗은 비록하나
 三代을 經過하면 百子千孫 豪富하고
 大小科茭 잇거마는 穴찾기가 어렵도다
 東十里 盤龍盤巳 年敗多端 ㅎ리로다
 玉白水
 飛燕出洞 渴龍飲水 權金姓이 俱發하리
 東北向 漁翁引綱 白花一人 天基로다
 鳥峯을 너머서니 玉泉福興 여기로다
 前後에 二十四穴은 넋넋치 奇妙하다
 栢山東 中一大脉初節下 鳶膝形이 생거구나
 兩水合流 大川되야 東北으로 中流하니
 丙午丁 三陽峰이 巽辛相對 特立하니
 前高後急 塞陰通陽 長末子孫 昌盛하리
 五十代을 지닌도록 不絶兵符 하거구나
 一節穴下 靑龍石은 忠孝富貴 하리로다
 主人峰을 지새보니 大姓이 發福하리
 西頂에 伏虎形은 眠狗案이 多情하다
 東南으로 轉力하야 西北方이 拱朝하니
 百子千孫 大富하나 大小科茭 一人이라
 이山主人 坐得破은 上山坤卦 解得하소

內莊西麓 雌鳳包卵 龍虎도 回抱하고
品은內水 玄流東南하니 石子千孫 大富하리
白花南行 間成나고 三姓大堯 하리로다
그問翼 問穴은 累代興花 文科로다
南行時살 無數하고 將相이 흔이난다
速堯長遠 無窮하야 血食君子 間出하리
山林處士 仁落하고 代代不絶 하리로다
主人星體 살펴보니 宣姓大堯 하거구나
栢山下 七節脉이 天馬入廐 더욱귀타
乾亥로 轉身하야 陰來陽作 하엿구나
穴星이 円厚하고 堂局이 平鋪하니
七代翰林 九代將相 名滿一國 하리로다
乾入首 當門穴에 萬山이 共術 하여쓰니
子孫福祿 말할진딘 口不可言 하리로다
天馬은 在後하고 의영室이 在前하다
冲天紫氣 木星積神 富貴無雙 하리로다
內外孫이 俱堯하야 都執兵權 하리로다
主人을 자세보니 火姓이 分明하다
天藏地秘 하엿쓰니 以待后人 하거구나
大角山 第三峰下 王子脉 龍岩上에
庚兌이 開帳하야 亥入首 乙方水에
龍虎가 回龍하고 八字水가 合流하니
將軍大坐 하느 中에 前後左右 陣山되니
千旗가 列蓋하고 萬馬兵 內外에 結陣하고
內體山과 白岩山이 轉轉剝換하야
水口長鎖 하여쓰니 幙頭劔印 俱備하니
만일에 어더쓰면 大將子孫 不絶하리
主人峰을 자세보니 木火姓이 主人이로다
西五里 半月形은 文武兼全 하련이와
勇士一人 날거시니 名振他鄉 ㅎ리로다
黃榮織柳이 흔穴은 富貴長達 하리로다
그主人을 바라보니 木火姓이 어드리라
南十里을 下去하니 回龍隱山 仙人對局
龍已聚會 仙女洗衣 橫水間에 숨에구나
이안에 四大穴은 한사람 쌍이로다
文科二人 九代進士 大富無敵 ㅎ오리라
東二里 渴馬飲水 天基로 생거구나
白岩過 玉女騰空 唱歌案이 分明하다

外龍 回抱하야 東北水가 故南하니
白花七人 날거시오 長孫宅富 나리로다
그박게 金盤形은 玉極案이 分明하다
庚兌로 星峰노고 千丁으로 回頭하야
未入首 土星下에 南北水가 東流하니
外虎가 回抱하야 子孫大富 白花로다
姓貫居地 아자하면 山火賁卦 解得하소
金榜洞 드러가니 제을부는 祿王女는
赤岩上에 狢坐하야 무엇슬 히弄한가
原脉下 一大穴은 龍長虎短 하얏구나
秋月山 案이되고 西南水臨 가北하니
大小科茭 함기나가 老職二代 二品할리
참으로 眞穴을쓰면 印傘不絶 할거시라
丙午丁 狢行脉이 坤申으로 起峰하야
下水砂을 望見하니 逆水로 回頭하여
潭陽
潭陽过 石峰한나 勢峙로 보닛두고
쏘흐脉은 木魚黛로 回水口을 안이보며
戌로 龍이나니 眞穴은 此脉이라
三谷水가 合流하야 東北으로 흘러간다
四龍勢가 이안니가 懸針穴이 分明하다
百子千孫 하난中에 壯元郎이 間間나고
木馬不絶 하려이와 赫赫文章 나리로다
이山主人 바라보니 大火姓이 초지하리
白岩过 弟三龍이 岩石이 起伏하야
그下에 穴이되니 飛龍騰空 이거시라
龍虎가 둘러되고 本身이 流下하야
龜山이 水口되여쓰니 石中土穴 여기로다
만일에 어더쓰면 文武 兼全하리
三代封君 一代大將 連代富貴 하리로다
七尺下 茭盤石은 傷치말고 쓰거드면
忠孝도 나려이와 文章도 綿綿하리
主人姓貫 찾자거든 山水恒卦 解得하소
아마도 이山穴은 木姓이 主人이라
走獐逢網 蒼龍出雲 소엽시 생거구나
北十里 走馬脫鞍 穴在窟中 하여쏘다
用地六年 速發하야 子孫도 多數하리
大小科舉 날거시니 水口円峰 살펴보소

子坐午向 堂門破에 山勝水腦 더욱조타
 主人峰을 짐작하니 火姓이 入葬하리
 亥卯未年 初筮하야 二十八世 傳하리라
 赤城으로 下去하니 南五里 渴龍飲水
 五代文科 날거시오 万歲富貴 하리로다
 北十里 金盃形은 雲中玉壺 完然하다
 玉女唱歌 泊船形은 大川过 잠거구나
 北으로 도라보니 兒馬狝遊 奇妙하다
 龍虎가 重重하야 兩水南流 하여가니
 石橋中에 一大穴은 銀哭가 만이있다
 내지말고 用地하면 富貴兼全 하오리라
 만일에 닦거드면 多殺人命 하리로다
 玉果
 玉泉東 太山下에 渴한사심 누어구나
 水口에 三羅星은 貴은無雙 하리로다
 三陽峰이 羅立하고 巽辛相對 하여쓰니
 忠孝富貴 木命이사 代代綿綿 하거구나
 東十里 躍馬走敵 華盖金星 노와쓰니
 알기쉽고 보기쉽다 金姓이 主人이라
 東虎过 穴盡處에 天基한나 쟁거구나
 北十里 玉壺形은 外山이重重 抻天하다
 文科二人 날거시오 白花一人 날리로다
 台峰下 伏虎形은 眠狗案은 馬峙이모다
 身富名揚 하느날에 土山比卦 자시보소
 大角山下 五里許에 五馬作隊 望目井案
 龍頭虎長 하운中에 七星羅立 하여쓰니
 鉗속에 잇난穴을 아라보리 그뉘런고
 압기세 두눈물이 大川으로 流去하니
 內窄 外廣하야 巽虎庚兌 特立하니
 白花二人 文科五人 甲子辰年에 나거구나
 七代翰林 百子千孫 二十六代 近侍하리
 東南間 高山脉에 玓珠擲地 또잇구나
 亥脉으로 結咽하야 節節이 穴이되여
 丑艮三節 艮入首 乘亥爭癸坐 丁向이라
 十年內에 登科하야 三人 될거시니
 죽도록 穴차자서 立身揚名 하여서라
 水山遯卦 되여쓰니 完山李氏 丁宇하다
 眉山西麓 老鼠下田 積粟案을 노와구나

坎癸乾亥 三節下에 兩橫案이 되어쓰니
 水口重疊 東流水은 七代富貴 나리로다
 廣浪山下 老僧禮佛 千金砂가 重疊하야
 龍虎重重 東流水은 自西流東 하난구나
 二代南行 節道使 高明君子 나리로다
 主人峰을 仔細보니 延日鄭氏 안이런가
 雲山南麓 仙賓讀書 雙玉案 蛾媚案에
 天基로 생거쓰니 子坐에 堂門이라
 이곳子孫 殺人하며 九代尙書 갈대엮다
 西二十里 走獐逢網 東高西備 通達하야
 自西流東 하난물이 不貧不富 百子千孫
 眉山下 地堂處에 雌雄三穴 奇妙하다
 二十三節 開帳하야 明堂이 廣闊하야
 三頂異爭 峙立하야 四正四維 버려쓰니
 五代丞相 二代名賢 宇宙配享 하리로다
 護流는 無流는 하니 미친病이 날이로다
 艮水가 故巽하야 庚午砂와 相冲하니
 先出武臣 發員하야 次次發應 하거구나
 放鷹飛龍 兩大穴은 一峯之間에 매자또다
 一穴은乳요 또十穴은窩 竜方回案 하여쓰니
 子孫繁昌 姑舍하고 女子息은 淫行나리
 眉山南麓 半月形은 天基로 생거구나
 橫財도 間間나고 人物이 豊成하리
 得破姓貫 아자하면 木山咸卦 살펴보소
 北四十里 玉女織錦 龍長二枚 하온中에
 四基水口 하야쓰니 穴在乳頭 하여구나
 土形이면 速發하고 石屏이면 遲發하리
 案山이 彎弓체로 四向을 둘러쓰니
 子孫은 만찬하나 文科兼全 하리로다
 過峽下에 燕巢形은 棟樑案이多情하다
 大路上에 三種石은 鍾出人物 一人이라
 白岩 北十里外에 五穴이 못채구나
 第一에 臥牛形은 腹間에 穴을뒹고
 第二에 盤龍形은 穴在耳上 하엿도다
 第三에 躍馬走敵 穴在窩中 하엿구나
 雙鬼樞星 太極下에 乙水가 臨來로다
 이山主人 찾자하면 積善之人 그뉘언고
 第四에 武公端立 微突中에 作穴하고

第五에 風吹羅帶 垂係間에 在穴이라
 西十里에 九龍爭珠 三竜은 在南하고
 二龍은 在西하며 四龍은 在東하고
 北珠난 平坦石에 陰陽宅이 相雜하야
 前後左右 廣闊하야 水口狹山 閉塞하니
 九龍爭珠 形勢보면 龍長虎短 各各달나
 四向積爭 모와쓰니 石子千孫 万世하리
 才名 超出하야 無等之人 나리로다
 居地姓貫 짐작하니 火姓이 主張하리
 自上達下 쓰거시니 非延李則 延鄭이라
 西山下에 黃龍登空 百里來勢 特壯하다
 入首星峰 시아르니 節節이 剝換하야
 兩水가 合流하야 東南으로 流去하니
 龍虎重疊 불작시명 累代富貴 하리로다
 丙午丁이 羅列하야 巽辛이 尖秀하니
 代代近臣 날거시요 血食之人 나거구나
 姓名居地 알아보니 水土山은 節로다
 東北 金龜尾穴은 穴在平地 ㅎ여구나
 四方이 卑濕하야 물이날가 하거이와
 穴을차자 파거드면 佃砂黃土 나거구나
 이후사람 눈잇거든 이런穴을 어더쓰소
 用之三年 速發하야 万代無窮 하오리라
 이山主人 보거드면 사람마닥 主人이라
 닉말이 헛말인가 지내보면 알이로다
 아무라 날을알면 이런穴을 주련마난
 世無人於 知己하니 어느사람 차지홀고
 欠歎을 不已하고 回文山을 올라가니
 빅짜난 저仙女야 機織을 다바리고
 바람을 실려하야 홀로 안자난고
 네얼골 잠간보니 씨날쫓시 전이엿다
 甲卯脉이 剝擾하야 艮으로 入首하니
 同名을 機岩이라 배싸기 어렵도다
 奇恠한 바우밧티 端正이 안저쓰니
 沙土나무 심을잇어 掩其外向 하야논고
 저건네 將軍峰에 雲仙이 端坐하야
 男女有別 뜻을두고 되하자고 이리왔나
 가의石 뒤에두고 상자바우 압패놋고
 현針絲 가난바울 雲絲을 후려잡고

雲霜衣을 비허니어 무안이 裁作하니
 하물며 네으몸을 蒲葦갓치 爲하니라
 女子의 구든 卍業 晝夜로 심을쓰라
 네才조 알거이와 부딪상치 말아서라
 大丈夫 마음이야 盤石가치 구거이와
 가기을 이젓다가 日暮西山 하얏거을
 仙女을 作別하고 獅子庵을 내려올제
 中腰에 저將軍은 甲冑와 長劔을일코
 陣받게 狺行하야 奔走東西 하난고나
 투구버서 팔에걸고 死生을 盟誓하니
 아마도 저壯士은 敗將軍이 完然하다
 그아래 白馬張鞍 입을버려 소래하며
 任子을 차지라고 無端이 彷徨한다
 任子업난 저白馬을 價을주고 쓰자하니
 네으말은 안이키로 그저늦고 도라서니
 念한마암 大發하야 아모연줄 몰나
 前後左右 둘러보니 多小間에 잇난거시
 六七穴이 잇거만난 許諾할딴 쏘이업다
 任宗
 해해 歎息하고 任宗로 건네가니
 六七穴이 잇서 날을보고 분기난듯
 白花南行 向向났고 百世無欠 하리로다
 雲水山 故龍得雲 未久上天 하거구나
 그아래 花心形는 賤人의 쌍이로다
 西으로 건네가니 雙龍이 如意珠을
 서로돌고 싸울적에 虎山에 업진뱀은
 갈질을 일러쓰니 將軍의 날닌칼이
 龍虎을 배허돌고 左衝하고 右突하니
 法眼이 아니며는 그뉘르서 차자닐고
 主人峰을 구버보니 五姓이 俱發代代나리
 北으로 올라오니 玉女端坐 天基로다
 水口을 살펴보니 文武科擧 비록하나
 五十年 못지니서 縉寡一代 못먼하리
 良馬人廐 一大穴은 全州地境 不遠하다
 大川이 橫流하야 自北流西 하여가니
 美哉라 龍虎回抱 一邑에 秀才로다
 어山主人 차자보니 仁洞張氏 아일련가
 그밋딴 七虎形은 狗洞이 完然하다

文千武万 날거시니 부딪부딪 仔細보소
 雲水蓮花 솜露形은 士大夫에 物冲이라
 甲卯脉 坤申水은 左右로 回抱하니
 連代甲科 날거시요 三代翰閣 히리로다
 이穴차기 어렵거든 蓮花谷을 부딪물소
 南堂店 不遠地에 金釵掛壁 잇거구나
 穴아리 비긴돌리 木体로 숨어신니
 大路过 亭子우에 돌을 차자보소
 百子千孫 하려이와 天下大富 날리로다
 雲水下 庚癸脉이 丙午丁 三節늦고
 回龍顧祖 하여셔라 覆聖形이 생거구나
 三節開帳 土星体은 兵吏判이 나리로다
 將軍大坐 龍馬形은 天基로 모도우니
 生蛇出艸 逐蛙形은 平地路上 되여구나
 雲水洞에 雌鳳抱卵 抱卵形 分明하다
 主人福祿 시이르니 富貴은 與天地偕亡하리
 五老峰에 仙人聚會 雲峰案이 되여구나
 水口藏鎖 三重하니 百子千孫 大富날리
 닉말로 하거니와 사람마닥 어들소야
 西으로 三十里을 巽巳轉卯 하여간다
 乙入首 庚水口에 拱盤하雙 노엿쓰니
 文科五代 하온후에 進士三人 同榜하니
 南으로 四十里을 庚癸行龍 癸入首라
 丑亥로 還龍하야 仙人舞袖 이거시라
 白虎过에 大路잇고 巽方이 水口된니
 忠孝文科 十一代을 그뉘려서 次지할고
 그아에 鳶滕形은 질이나서 棄穴이나
 百年을 지닌후에 이질이 막키이라
 世上에 罔難富貴 與天地 偕老하리
 그리저리 다본후에 갈딕을 이져더니
 路上에 一老翁이 날을보고 禮하거을
 이려나서 答禮하고 姓名을 물어보니
 龍潭사는 李老여을 그老人을 따라가서
 數三日 留宿한 후에 臨癸이 섭섭하야
 陽宅한나 가라치니 이흠은 玉灯이라
 터로 말하면 龍潭에 第一이라
 夫妻間 偕老하니 狒子한나 글가라쳐
 科仗가 되여거을 마음에 不祥하야

이터을 가르치니 五年內에 初筮하야
 十代富名 들으면서 百子千孫 할거시라
 부딪부딪 집을짓고 來終을 보리하니
 其老人이 大惑하야 그날 立柱하니
 精識도 잇거이와 心志도 淳厚하다
 金盞土壺 上下穴은 두러시 줌거구나
 北으로 내려와서 走馬形 求景하고
 僧山으로 도라오니 五六穴이 쏘잇구나
 山僧拱 佛形体 나올줄 미리알고
 南五里 蜈蚣形은 거기서 머지안커을
 흥기가 가라치니 恩해을 치사커을
 그老人을 作別하고 十里地境 너머가니
 盤器에 밥을담아 穴가으로 와거을
 나아가 拜禮하고 鎭安으로 作路하니
 鎭安
 南十里 雙龍爭珠 穴在三処 ㅎ여구나
 金山姤卦 解得하니 水火姓이 主人이라
 南으로 내려가니 臥龍圭珠 水中穴은
 三石峰이 案이되니 賤人發福 하리로다
 東高에 行盤形은 武吏大將 나거구나
 五馬脫鞍 天基보니 白花五人 富錢한다
 中大洞 回龍隱山 盤龍形과 흥기있다
 盤蛇其遊 할거시니 富貴兼全 하것마은
 水口鮑石 뇌잇시니 三代가기 어엽도다
 伏獅伏虎 이두穴은 三品宰相 나리로다
 馬耳을 올라보니 山七 罷身하나
 星體한나 못생기니 名穴이야 말할소야
 多少間에 잇난穴은 不貧不富 쏘이로다
 茂臥朱
 雲裕山을 바라보고 茂臥로 도라가니
 山脉은 쓸만하나 兵火不人 쏘이로다
 陽宅은 許多하니 人物繁盛 하거구나
 避世을 하려하면 湖南第一 되리로다
 陰宅인들 업슬소야 大穴이 적어쏘다
 山清水波 하여쓰니 人心이泰平 하거구나
 歲月이 如流하야 作路한재 半年이라
 於焉向 歲暮하야 客裡 過歲하닉
 愁懷도 重重하고 마음이 鬱鬱하다

衣裳이 藍루하나 고쳐주리 鈕잇슬리
非禮之物 親이하면 天賦之性 그르치리
先生의 주신것이 冊書冊之具 나머도다
積累之功 생각하니 十倍前日 하도다
長水

卯日로 發路하야 長水로 드러가니
南五里 金龜曳尾 金山否卦 分明하다
穴在田中 平坦하야 兩水合於 文流하니
文武三人 날거시오 富饒하기 쉬우리라
東十里 仙人竹掌 當代發福 어려올가
卦體을 살펴보니 土山에 大有로다
峇南地境 峻峇下에 渴竜飲水 飛鳳啟巢
伏虎形과 花心穴은 四大穴의 잇거구나
十八人 近侍하고 血食賢人 나리로다
그外에 남은穴은 無足可觀 하리로다
八竜山 前後左右 歷歷히 둘러보니
山高而 谷深하야 兵火不入 하리로다
雲峯

竹杖을 밧비하야 雲峰으로 너머가니
咸陽地境 天峙下에 竜馬入廐 多情하다
上下에 大路잇고 그가운데 岩井잇서
盤石이 잇쓸거스니 그곳에 쓰거드면
文科七人 날거시오 盲子千孫 하리로다
姓名居住 살펴보니 咸陽朴氏 物件이라
東五里 雙竜弄珠 九川이 同朝하니
欠업시 못친穴이 火雷噬嗑卦 分明하다
良峰이 尖秀하고 丙丁이 特立하니
長孫이 先發하야 榮華가 無窮하리
聯界洞 十五리에 鬪龜曳尾 너안야
土山石穴 모다보고 空然히 도리서서
蟬翼砂만 엮페두고 壬山三節 作支하야
明堂을 좁게놋고 滋味업시 숨엇난고
西峇에 雌鳳歸巢 鼎足水足 압페놋고
金水星 七八節에 端正이 숨어쓰니
이山主人 차자하면 土山无妄卦 아라보소
台峰下 數三節에 臥牛形이 더욱죃다
靑艸을 압페놋고 牛山을 案을삼어
쇼리엇시 숨어쓰니 그뉘라서 아려볼고

그아래 半月形은 銀河案이 되었구나
 明泉을 압페두고 東西로 通達하니
 主人峰 생긴것이 文武連出 五代하리
 東으로 바라보니 將軍形身 雄壯하다
 三代頂相 하려니와 鰥寡不絶 하것구나
 敵陣 엮페두고 武公으로 引弓하여
 쓰와잡게 되었쓰니 旗鼓兵器 俱備하다
 西에 幼兒運母 竜虎回抱 하여도다
 三四峰 羅列中에 雙峰이 孝順思라
 鉗속에 微窠穴은 三階坨 잇서구나
 四五尺을 파거드면 五色土 나리로다
 主人形身 불작시면 水土姓이 護遺하리
 九峰에 猛虎出林 狗山이 完然하다
 先貴後富 多子孫은 文科七代 나리로다
 南原
 그렇저령 求景하고 南原地境 다다으니
 當龍淺水 조흔形体 天基가 생거구나
 連代南行 날거시요 三代文科 나리로다
 金溪洞 武公端坐 掛榜案이 分明하다
 丑艮脉甲 入首에 庚后가 臨申하니
 穴在窟中 하야스니 알기가 어려워라
 西北에 龍虎出地 弄珠案이 되여구나
 穴을찾자 하거드면 中孚卦을 살펴보소
 生巳出艸 金龜形은 上下로 생거구나
 黃竜이 물불썌니 土山天基 丁寧하다
 南으로 내려가니 비돌기가 우는구나
 家勢은 至貧하나 領相一代 누리로다
 穴在平地하니 艮水가 故巽하니
 神眼이 안이면은 裁作하기 어렵도다
 그러지으 바람體은 林木으로 案을삼고
 洞庭湖 엇다두고 호올로 안자논고
 金盤에 숨은穴은 玉杯을 짓티두고
 沚海가 橫流하야 完完히 가는구나
 贈職은 자조나나 大小科行艾職 못하리라
 獅子山 너머가니 風吹羅帶 보기쫘다
 그아래로 내려가니 仙人騰空 雌鳳故巢
 河鰕弄珠 金釵掛壁 四大穴이 完然하다
 이穴을 보라거던 木山火遇卦 살펴보소

西泰山을 느려가니 黃鶯이 쯤는구나
 亥龍 轉兌하야 辛入首 丁作穴에
 平崗에 局을짓고 逆水로 안자쓰니
 明堂이 平坦하고 水口가 緊固하네
 万石君이 될거시오 名公巨卿 나리로다
 寅方에 虎蹲石은 支孫이 虎死하리
 鳴峯직 東南麓에 三大穴이 무채구나
 恠穴이 되어쓰니 찾기가 어려우리
 泰山이라 비록하나 竜虎도 回抱하고
 穴前에 大江水가 自西東流 하엿쓰니
 만일에 어더쓰면 文科不絶 하리로다
 飛態峙 올라서니 北麓穴이 奇妙하다
 兩水가 合流하야 東北으로 流去하니
 節鉞之將 날거시오 白花二人 나거구나
 大峰下 兌穴은 陰陽宅이 俱去하다
 主人峰이 五峰이라 解遯小畜 故妹로다
 질馬峙 五里許에 躍馬奔敵 더욱쫓다
 巽辛峰은 木星이요 庚癸峰은 火星이라
 穴在石間 하엿쓰니 仔細이 살펴서라
 三代翰林 二代將軍 水星이 主人이라
 三門地境 三大穴은 各在東西 하엿쓰니
 水口가 一般이라 自西北流 하느구나
 하나는 進士나고 하나는 文科나리
 仲流無后 支孫이사 血食千枝 하리로다
 馬峙壯洞 드러가니 長水地境 仙人讀書
 文科도 不絶하고 南行判書 나거구나
 天裁土星凹穴은 孝順鬼을 썩어논다
 師丈峰이 東山되고 劔印星이 案이로다
 微窩中에 科鉗穴을 俗眼이야 어이알리
 主人峰이 머러쓰니 當待后人 하난구나
 南으로 멀이가니 七星形 銀河案이라
 金盤에 玉壺形은 求禮地境 不遠하다
 그안에 三大穴은 頭流山에 穴이잇다
 亥竜 十二節에 左右로 回抱하야
 竜虎가 重重하고 雙樂山이 主人된다
 女劔形과 帝座案은 穴在平地 하엿구나
 冲天紫氣 金星體을 俗眼이야 모으리라
 만일에 어더쓰면 當代에 發福하야

三十代 宰相하고 王妃가 并出하리
求禮
두루두루 다求景하고 求禮로 너머가니
頭流盡 山下에 地拔食田 하여구나
九万丈 높픈山이 九万里大川이 配合하니
城郭이 堅固하니 完朴之地 되여구나
그아리 五鳳故巢 陰陽宅이 俱去하다
文章才子 만이 늦고 湖南에 名勝之地라
瘴毒이 밀이난니 何時에나 回運할고
貪狼星下 前後左右 낫낫치 珠玉이라
山을싸라 올라가니 帝座한나 뇌엿구나
水口藏鎖 긴히하고 明堂이 平坦하니
世上에 드문보빅 그뉘라서 아라볼고
穴上에 올라보니 端正이 안진거동
一点塵埃 업서쓰니 奇奇妙妙 하거구나
그외에 나문穴은 어이다 말할쇼야
谷城
갈질이 밧부기로 谷城으로 거어오니
南間에 一穴이생거쓰니 美人端坐 丁寧하다
兵權之威 모도잇고 山林態道 업서도다
通明山을 올느가니 將軍大坐 이한穴은
鴨綠江上 十里許에 穴在高峰上 上頂이라
王字脉 三十節은 將相竜이 되여구나
陽來陰作 하여쓰니 文武兼全 万户候을
万馬登空 하여쓰니 계뉘라서 차지할고
坎癸方에 嶺川水오고 乾亥方에 투구로다
巽辛은 兵鬼되고 丙午丁은 諸將된다
前後左右 羅列하야 万山이 同朝하며
入首星峰 精神峰이 湖南大地 쏘이로다
千年香火 姑舍하고 百代將相 나리로다
雲砂가 羅列하고 艮丙이 堂堂하니
百子千孫 億万世에 文千武万 하리로다
丁入首 庚十節에 艮水故巽 하느고나
大江이 輻漆하니 山勝水勝 될이로다
純陽局에 太極되니 아려보기 어려워라
伊后 잇셔와서 守護하기 不祥하다
天藏地秘 하여쓰니 虛慾을 닉지말느
主人峰이 노파쓰니 甲科도 代代났고

이穴을 보자하면 土山艮卦 解得하소
 人物도 만타마은 最高峰에 못친穴을
 아무리 아자한들 ㄴㄴ치 물을소야
 恨歎을 不己하고 西便으로 도라보니
 巽巳脉 三十節에 丙丁으로 起頭하야
 庚癸脉 四節下에 庚入首 되여구나
 艮水가 故乙하니 良馬走敵 이거시라
 天馬은 뒤에잇고 耳廐은 北에잇다
 窩中에 乳突穴은 無欠大地 丁寧하다
 当代에 速發하야 三十九代 갈거시니
 富貴豪華 第一이니 어이안이 奇妙하리
 一品穴이 居中하니 東北間을 하엿구나
 해해世上 사람덜아 눈잇거든이 穴을보소
 儒林才士 間間나고 富貴長遠 하리로다
 主人峰을 시아으니 火姓박기 쏘잇나야
 中穴坐向 이으니 土山ჴ나 슬퍼서라
 너을볼上 形体보니 ㄴ날쫄시 쫄히엿다
 世上사람 귀잇거든 니늑노릭 드러보소
 제눈에는 못보와도 드러서나 짐작하소
 龍穴砂水다말니 어느늑가 모을소야
 原出하야 을짜음에 日暮西山 하여거을
 主人은춧자하니 訢間之處가 쫄히엿다
 玉果
 邑에드려 留宿하고 玉果로 作路하니
 雀山形身 星作하야 不高不低 하엿구나
 山川이 融結하야 眞氣가 都集한다
 巽龍 十三節에 穴在頭上 하여구나
 三代宰相 하온후에 九代近臣 날리로다
 大川이 東流하니 天乙太乙 公明하다
 穴中에 나느土色 盤石佃砂 나리로다
 甲卯回頭 艮入首 乙水가 故丁하니
 小路은 左後하고 鵲川이 馮南하니
 名隸才土 先富貴은 代不之絶 하리로다
 主人을 불작시면 木火山이 坤卦로다
 穴한나 잇는거을 몇사람이 직키이라
 西北에 玉女散花 群山案이 조을시고
 美哉라 이한穴은 丙水向에 잇셔구나
 大小科茭 三人이요 位至二品 하리로다

岩水間에 穴잇서 名枉東西 하여구나
 水口는 한가지라 庚水가 솟에가니
 어와 이山福錄 百代連綿 하리로다
 西으로 간난脉이 雲中上龍 어기로다
 空아리 刀劔砂은 거듭거듭 빅거도다
 雲龍 中天하야 三陽峰이 머러도다
 穴前水 서시되고 龍박기大川이라
 鵲山堂頭 小絡下에 渴龍飲水 보기죃다
 富豪는 三代하고 七代丞相 하리로다
 물과잇서 東에가니 虎短龍長 하여구나
 南十里 老僧禮佛 佛田이 完然하다
 이穴을 보자하면 그밭슬 仔細보소
 雪山에 老鼠下田 精粟案이 생거구나
 庚酉水가 東에가니 累代南行 느리로다
 이山主人 찾자하니 土山頤卦 分明하다
 三洞水가 合流하니 雙龍爭珠 回龍勢은
 逆氣로 생거쓰니 富貴兼全 하거구나
 生巳逐蛙 盤石形은 말할거시 업거이와
 은술신난 저仙女는 大路가 업페이다
 이穴찾기 어업거든 水火土에 艮卦보소
 同福
 大綱大綱 求景하고 同福으로 作路하야
 雁城尾城 四十里 飛龍이 더욱죃다
 穴在 平地하야 大江案이 되여구나
 碧城東 泰山下에 走鹿形体 奇怪하다
 赤壁之上 燕巢形은 公候之地 完然하다
 方山下에 仙人舞袖 橫琴案이 多情하다
 回龍隱山 武公端立 不遠間에 생거구나
 그아리 八回버려 天地氣運 모도오고
 西으로 바라보니 盤龍形이 쏘잇구나
 이물에 大小穴은 木火姓이 主人이라
 其外에 九大穴은 無欠大地 잇거구나
 多小間 잇난穴은 長遠無窮 하리로다
 이물에 수다穴形 龍穴圖을 보와세라
 南方에 진여기는 어으明眠 아라불가
 八卦을 버러쓰니 山川精氣 숨엇도다
 樂安
 거름을 직촉하야 樂安으로 건너가니

邑北便 一大穴은 天藏地祕 하엿구나
百子千孫 万世榮華 有福之人 쓰라로다
西过에 玉女撫瑟 江过에 숨어쓰니
山水 清明하니 有德君子 나리로다
亥戌過峽 十二節에 乾亥龍에 亥入首라
龍虎가 回抱하야 本身水가 巽에가니
百子千孫 巴魯하나 骨肉相殘 하야구나
邑地을 자시보니 湖南에 首節로다
四方이 明朗하니 士大夫 만히나리
西으로 둘러보니 八大이 잇것구나
東에는 靑龍이요 南에는 白鳶이라
仙人讀書하느고나 儒林은 흔이나리
白雲山을 둘러보니 節節히 奇妙하다
四方을 둘러보니 片片히 金이로다
澗水过에 渴鹿形은 그뉘라서 아려볼고
울마시난 저白馬야 三珠案이 되여구나
龍馬은 在西하고 猛虎은 在東한다
亥卯未 三合局에 長川이 回流하니
富貴는 비록하나 鰥寡相殘 못면한다
그우에 將軍形은 水僵玄武 하느구나
巽辛丙丁 六秀砂은 龍腰로 分合하니
大帳內에 弄珠잇서 代代文科 나려로다
大穴은 업시나마 지근穴 無數하다
光陽

몸에날기 어더는지 光陽地境 드러서니
三代監使 二代判事 十一代을 翰林하리
溫水洞 石門內에 神人戲珠 하나로구나
그問에 十八穴은 차자보기 어럿워라
松川下 金龜曳尾 金玉滿堂 하리로다
그아래 雌雄二穴은 代代相公 나리로다
順天

大綱만 求景하고 順天地境 다다르니
五虎臥峯 구버보니 千里行龍 奇妙하다
龍허리에 穴을막저 山川이 輻湊하니
났낫치 眞穴이라 五代三公 하리로다
北十里 擊鼓形은 舞童案을 하여구니
그下에 盤金形은 玉杯案이 더욱귀타
良馬奔敵 脫鞍形은 水馭에 생거구나

西十里 赤龍戲珠 七珠案이 分明하다
老鳶展翼 臥牛形은 溪城안에 숨어구나
雌鳳挖卵 半丹形은 三台峯下 艮脉이라
馬丹右過 地盡處에 祥雲三穴 分明구나
一穴은 在頭하고 二穴은 居尾하니
七代將相 五代節度 水口堅固 주시로다
累代冢貴 비록하나 頭穴이 第一이라
宝成
數日을 頭遊하야 宝城으로 作路하니
山陽東五里許에 半月形이 잇구나
三台案 倉庫峰은 陽宅으로 생거구나
南으로 내려가니 渴龍이 飲水하는구나
江過 大路上에 無端히 업접구나
花補龍을 褫리보니 눈딴업난 사십무어
石角을 依지하야 어언이 온자쓰니
이穴을 窺자한면 金山에 姤卦보소
主人峰을 仔細보니 五姓이 大爨 하리로다
逆水起局 平坦하니 文武之穴 하고만타
主人峰을 바라보니 往氏山이 되리로다
大川過 伏虎形은 千年秀火 하리로다
數十年을 지닌가면 寡母一代 느거구느
長興
西으로 越嶺하야 長興地境 ㄷㄷ으니
崑山下에 上帝奉朝 拜禮밧에 뇌여구나
느경은 안이되고 三台는 西에잇다
雙鬼彗星 세운고되 穴在上취 하여구나
그朝臣이 옹위하니 君王之地 되리로다
이山主人 차자보니 延鄭의 奇物이라
이后 百年문에 우연이 쓸거시니
하날임이 주심이니 그뉘리서 曷으리오
거기서 不遠업에 三台穴이 ㅍ잇구나
우에는 君王되고 아래는 臣下되니
前後間 그새이에 君臣穴이 생거구나
長鼓山 十里許에 將軍形体 보기쫄타
三雲案 斬首穴은 穴下에 源寂이서
庚台龍 乾히익여 亥坐에 乙破로다
東山에 將軍形体 玉女洗衣 ㅍ잇구나
不小한 이두穴은 一峯間에 숨어구나

武科三公 늘거시오 百代豪富 하리로다
 南行品書 一道監使 長流이 나것구나
 東十里 石峰下에 武公端坐 仔細보소
 庚台巳間 起伏하여 二峰안이 되여구나
 以石非土 五六尺에 白黃色土 늘거시니
 속에 盤石 잇슬진디 間間貴 누리로다
 이穴차차 쓰거드면 그비슬 일치말고
 이穴主人 姓名보니 水木山에 坎卦로다
 그건네 伏虎形은 天基가 생거구나
 이후 聖靈늑면 그달을이 半朝로다
 天關山 金體보니 前後左右 空도만다
 乾亥脉 子入首에 石中土穴 其中났다
 王字脉 八節下에 於焉이 생거구나
 馬鳴洞 드러가니 土山石穴 더욱조다
 돌을알고 차거드면 三色靑土 나것구나
 木山坤卦 살펴보니 火姓이 임자로다
 三年만에 鰥寡나서 淫亂一代 비록하나
 이穴을파지안코 지늑가면 文武兼全 하리로다
 變치못할 이물이 沐溶水 탓시모다
 迦迤大山 將軍形은 大窩間에 잇서구나
 海水가 朝堂處라 金水山 旣濟卦로다
 數多한 穴名을 어이다 말할소야
 綾州
 그리저리 大綱보고 綾州風景 求景하니
 南山蒼龍 出雲形은 雲烟峯 案對로다
 白雲이 在左하고 車洞이 不遠하다
 兌穴이 作庚하야 四龍三虎 되엿도다
 兩水合流 하난水口 華表捍門 이거시라
 端雲은 石門되고 巽辛은 文筆體라
 巳丙에 重重梅花요 玄武 御屏이다
 帝關이 不遠하야 穴在頂中 하여구나
 五尺을 파고쓰면 武代近臣 代代나리
 主人峰이 木星이라 木火姓이 完然하다
 南으로 二十里許에 盤竜弄珠 보기조타
 骨龍이 起伏하야 數百節이 되여구나
 入首에 特立華蓋 重重 回抱하고
 八百烟花 粉黛象에 四龍顧祖 案이되니
 百子千孫 文武科은 千萬年을 富貴하리

巽山下 生龍下에 伏虎形이 생거구나
 生龍案 回頭中에 一江波가 잇서쓰니
 茂林에 斬龍하고 山林에 虎頭잇다
 癸方水口가 緊鎖하니 武冠天下 하리로다
 主人을 보자하니 水土姓이 發福하리
 東으로 도라오니 錦帳이 아레잇다
 帳內帳中 數節峰이 忽然落在 平地로다
 左畔에 머리싸고 變窩格이 되엇구나
 穴머리 두어마디 土姓 護勅하야
 靑山이 심이얹서 三重案이 노파신니
 外居石이 起伏하야 穴在原頭 高廣處라
 主人姓名 아자하면 金山周卦 仔細보소
 東便에 飛禽落地 唵栗案이 되여구나
 壬坎龍 壬坤入首 雲山아 疊疊하야
 穴在曠野中 一塊方을 그뉘리셔 아라불고
 靈泉이 우에잇서 晝夜로 흘러가니
 萬世兒孫足瓊珠은 丑下有尾하고 門中이 文彩잇다
 슈슈洞 七里許에 蜈蚣形이 奇妙하다
 西南에 海蝦弄珠 三姓天基 되엇구나
 天女騰空 臥牛形은 不遠間에 잇서구나
 其外 六十四穴 龍穴圖을 차자보소
 和順
 和順地境 너머서니 九十穴이 생거구나
 邑內前面 玉女形은 龍穴脉이 天基로다
 無等山 西南麓에 大將大坐 拔劍形은
 旗鼓兵器 迎送하니 文千武萬 나리로다
 東十里에 玉女舞袖 橫琴案이 되엇구나
 十九人이 近侍되고 五代南行 날리로다
 放鷹形 伏虎形은 丁男子孫 發福하리
 西北에 臥牛形은 積艸案이 되여구나
 早年에 登科하야 一代丞相 하리로다
 西南州 盤龍形은 三峰案이 多情하다
 兩水가 合流하야 自東流西 하난고나
 七代文科 三代南行 水土山에 咸卦로다
 東南에 大海잇서 飛龍形이 생거구나
 文章貴人 날거시요 隱泉功勳 無窮하리
 東南에 龍已聚會 祿后土山 坎卦로다
 主人峰을 仔細보니 吳姜姓은 天基로다

東南에 飛鳳故巢 竹田案이 되어구나
 仙人乘鳶 下田形은 鼓瑟峰下 天基로다
 山陽에 走鹿形은 木卜姓이 主人이라
 西五里 芟龍負舟 大江案이 丁寧하다
 主山 三節下에 竜虎二峰 卓立하니
 艮峰이 圓字요 巽丑이 相對하여쓰니
 穴이 늙파 鉗이 되니 兩水合流 分明하다
 文科才士 多生하고 血食一人 나리로다
 西南에 猛虎形은 사심을 압페두고
 재흔자 질기면서 자최을 자랑한다
 白花南行 三人났고 連代近臣 나거구나
 南興洞 十里許에 鳳하나 잇서구나
 渴龍이 물을보고 大江으로 내려오니
 金山下 十里許에 西伏舟形 쏘잇구나
 主人峰을 仔細보니 木星艮卦 아라보소
 西南方鸚鵡峯에 鸚鵡逢虫 貴하도다
 七代文科 間間났고 五代公候나리로다
 庚酉坐 艮水故乙 自東流南 하난구나
 그건네 乙辰脉이 万世榮貴 하거구나
 마일에 그릇치면 賊臣兄弟 나리로다
 主人形体 짐작하면 火姓의 쌍이로다
 昌平
 桃花洞에 當宿하고 昌平地境 너머서서
 邑地을 살펴보니 터는바록 적어쓰니
 山川이 明朗하니 多出人才 하리로다
 鳴陽洞 五里許에 玉女騰空 죠흠시고
 其以內 風吹羅帶 中間에 穴잇난니
 잠간새에 發福하야 오릿가기 어렵도다
 其外에 난穴은 낫낫치 穴이잇다
 北十里 上根龍이 無欠大地 되엿구나
 定陽洞 將軍出洞 佩劔形이 더욱쫓다
 渴龍이 물을보고 거름을 지촉하여
 머리을 쌍에박고 大江過에 내려오니
 木星下에 天基보소 石子千孫 富貴하리
 三代名隸 날거시오 文科不絶 하리로다
 潭陽
 畝歎을 不已하고 潭陽으로 作路하야
 九岩上 大路过에 穴춧기 어려워라

乾亥龍 數節下에 甲卯入首 艮飛穴에
 微窩斜鉗 되여시니 어늬明眼 아라볼고
 마일 차자스거드면 七代文科 富貴로다
 星下山 十二峯에 八大穴이 못첫구나
 二穴은 陰宅이요 六穴은 陽宅이라
 水口을 자세보니 그內에 무친穴을
 알기나 알제마난 裁作하기 쉬울소야
 長坡山을 나가니 回龍形勢 雄壯하다
 그脉에 무친穴이 五穴이 잇거구나
 金釵掛壁 蜈蚣形과 燕巢玉灯 渴馬形은
 穴星이 端正하니 不貧不富 쏜이로다
 南으로 닐려가니 雲中 微月形은
 五雲이 玲瓏하고 光彩가 燦爛하다
 辛癸龍 庚一節에 庚入首 坤坐艮向
 艮壬水가 臨辰하고 城門은 亥에잇고
 朱雀은 在前하고 丙午峰이 高秀하니
 三峯下 大路上에 完然穴이 누어구나
 百子孫千 하련이와 富貴富相 不絶하리
 東十里을 닐려가니 金龜形 쏜잇구나
 前後에 貴人잇고 主案이有情하다
 人山은 巽에잇고 峰峯은 左에잇고
 人字路上 七峰下에 艮行三節 壬爭穴은
 壬丙이 相對하며 甲乙이 故未하니
 前山이 羅列하고 三陽이 俱存하다
 丙丁龍에 巽坐乾向 坤癸水가 故甲하니
 三聖五賢 날거시오 出身三台 나리로다
 主人을 보려하니 말하기 어렵소다
 居地姓貫 짐작하니 海島人이 되리로다
 그外 나문穴은 어이다 말할소야
 南平
 그리저리 求景하고 南平으로 너머오니
 乃吝南 半月形은 三台案이 分明하다
 明山이 來朝하니 天基가 되엇구나
 西山에 臥牛下田 靑艸가 업난곳에
 무엇슬 보라하고 밧가에 누여논고
 그우에 釵金擲地 玉女보고 반만웃네
 二馬山에 蜈蚣形은 當代速發 쏜이로다
 永平東 十五리에 黃巳出艸 숨머잇다

西北 渴龍出洞 陽宅으로 내려왔다
 東野 將軍出洞 虎踞岩下 잇거구나
 西北에 渴龍形은 물을차자 오난구나
 大山下 丑辰脉에 兒龍弄珠 생거구나
 文科七代날거시오 貴無敵世하리로다
 主人峰을자세보니 木火姓이임자로다
 穴在圓中斜鉗이라 그뉘라셔알라볼리
 그外에 잇는穴이 不過四代하리로다
 光州
 竹杖芒鞋밧분거름 光州로올나보니
 玉女峰下老人頂穴 子坐午向岩石上에
 細溪을압페늦고 남모으게숨어구나
 西二十里 琴瑟山下에 金鱉之水 생거구나
 뒤에온 石峰잇고 압페은 乾川이있다
 用之后 十八年에 百子千孫 하리로다
 西南에 玉女散花 群仙으로 案을삼고
 金釵을 손에쥐고 空然이 춤을춘다
 이主人 보려하니 木山에離卦로다
 東五里 飛龍形은 三池案이 多情하다
 東에난 龍이잇고 北에은 馬리있다
 이穴을 차자쓰면 無價之寶 되리로다
 南三에 君臣奉朝 名賢君子 나거구나
 前後左右 둘러보니 片片이 金이로다
 文科八代 하온后에 血食之人 나거구나
 南三에 回龍隱山 土山鼎卦 보와서라
 四尺下 白土色에 새알이 잇쓸턴니
 以石掩之 하고쓰거들면 七代文科 百子千孫
 九代進士 南行贈職 말로난 못다하리
 龍虎가 重疊하니 卯水가 故丁이라
 東에잇난 仙女舞袖 朝天橫當 案을삼아
 重重立石 穴唇되니 大小科茭 흔이나리
 이山主人 그뉘련고 木山에 小畜卦라
 東十里 行舟形은 雙檣로 案을하니
 別로 죠흔것슨업쓰나 不貧不富 하리로다
 西北 巳龍聚會 穴在凹膛 하여구나
 大江으로 破을하니 判書二代 나거구나
 그안에 回龍顧祖 大野中에 狆山이로다
 龍虎도 回抱하고 左右蟬翼 삼겨시니

文武三代 하려니와 富貴兼全 하리로다
 景陽八里 圓峰下에 암鳳이 알을 품고
 디숨품을 이지하고 말업시 숨어스니
 이거슬 자시보니 陽宅이 싱겨도다
 西大江邊 鎗山 北에 金尾下水 불작시면
 文科一人 贈職三代 螭蛉繼祀 한後에서
 百子千孫 富하고 文人才士 날리로다
 이山主人 姓名보니 水土山 隨리로다
 北으로 올라가니 渴한말이 물마시고
 큰절을 압피노코 안장으로 몸을싸고
 어연이 누어스니 알아보리 뉘잇슬고
 龍頭에는 큰질잇고 虎頭에는 새암잇다
 三代後에 節道使와 子孫千億 되오리라
 主人을 아자하면 火山旅卦 되오리라
 穴在正中 自堂處에 不偏不倚 하여도다
 丑入首 艮坐原의 庚酉水가 故丁하니
 西으로 도라보니 老翁이 낙기너코
 東南大野中에 三魚品子 찾난구나
 用之九年 速發하야 傳之無龍 하리로다
 西山에 안진玉女 말이풀어 몸에감고
 초마버서 산에걸고 金釵을 가로잡고
 溪水을 이지하야 하염업시 섯노라
 南山에 저한仙人은 玉女보고 춤을춘다
 穴深五尺 파거드면 石佛한雙 잇거구다
 傷치말고 쓰거드면 間間勇士 나리로다
 三角山 西北麓에 西大穴이 쏘잇구나
 한나는 回龍顧祖 한나는 鬼犢失母
 죽어가난 사람을 어렵게 살어내면
 이穴을 차자줄거시니 積善修善 하여쓰소
 三代贈職 몬저하고 文武兼全 하리로다
 南岳에 躍馬戲勤 仙賓案이 생거구나
 重重龍虎 回抱하니 不得戍破 分明하다
 一品富貴 累代進士 百子千孫 나거구나
 居住姓貫 아자하면 火山謙卦 解得하소
 東十里 文章揮筆 玉硯案 大川过에
 天基한나 생거구나 富貴兼全 하리로다
 보디山 大峙南麓에 陽宅이 쏘잇구나
 內外砂角 回抱한디 穴下에 源泉水가

坤艮으로 들러가서 水口 長鎖真密하니
 中国丞相 하온후에 子子億孫 不絶하리
 千金砂에 지닌다면 虛名만 傳하리라
 金釵掛壁 玉梳案은 北榆谷에 잇나이라
 狒侍三代 하온후에 内外孫이 繁盛하리
 百子千孫 하련이와 国勢을 잡으리라
 이山主人 살펴보니 大姓이 完然하다
 無等山을 불러서서 前後左右 살펴보니
 東으로 내려와서 金塘山이 생거구나
 木星下 大將形은 穴在鉗中 하머도다
 穴上에 올라서서 四方을 둘러보니
 旗鼓兵帳 버러논디 幙頭帽笏 分明하다
 丙丁巽辛 羅列한디 壬氣가 亥로오니
 三月內에 發福하야 天下名將 나리로다
 主人峰을 仔細보니 水木山에 坎卦로다
 壬坎乾亥 十節下에 阴阳宅이 無數하다
 水火姓이 大發后에 土姓이 主人이라
 甲卯脉 八節下에 狗顔山 뒤에놓고
 虎石이 엇페서며 於然히 아자쓰니
 平坦에 무친穴은 金水星이 主人되리
 그우흐로 올라가니 多小穴이 許多하다
 白馬山을 너머가니 阳宅이 쏘잇구나
 大野을 압페놓고 太極이 端坐하니
 名賢才士 間間났고 貴富累代 하오리라
 거름을 재촉하야 漁形山 올라보니
 寅艮으로 過峽하고 丑艮으로 起頭하니
 平地阴砂 結咽処에 節節이 奇妙하다
 竜未起処 先落하야 巫么端坐 생거구나
 丙午로 莊脉하야 丁一節 庚立節에
 土星太極 圓厚하야 卑湿処에 穴이나니
 毬簷이 分明하고 衾衿이 端妙하다
 一隊水가 朝堂하니 速發長远 하거구나
 이山主人 보려하니 木火山에 離卦로다
 山頂에 올라보니 懸針穴이 되어구나
 穴後石에 角이잇서 危急脊薄 하어쓰니
 速發은 비록하나 不過三代 하리로다
 龍穴坐을 살펴보니 亥坐에 巽破로다
 主人形体 仔細보니 水金山에 鼎卦로다

乙辰脉 回頭處에 穴한나 생거구나
 子孫은 만치안이하나 香火不絶 하리로다
 窩窟속에 잇는穴을 그뉘라서 알아볼고
 南麓을 구버보니 三四穴이 쏘잇구나
 子孫은 비록만하나 貴은 못하리로다
 初節이 未盡하야 다시 一麓에 올라가니
 쓰기는 쓰제만년 成敗가 多端 하리로다
 故鳳形과 玉女形은 不遠地에 숨어구나
 北으로 올라서니 陰陽宅이 無數하다
 大峙上 將軍形은 欠업시 大地로다
 山勢는 重重하고 軍師은 眈眈로산니
 太極에 突이잇서 그아래 窟로되니
 坐向을 보려하니 乙辰巽巳 同宮이라
 文武大將 數百人을 말하여 무엇하리
 長成
 그리저리 逕邇하고 長城으로 作路하니
 海水鰲山이 여기시라 山川이 回朝한다
 明朗한 陰陽宅이 寸步間에 하고만타
 半登山 大幹脉에 山水配合 하여구나
 南二十里許에 巳龍聚會 天基로다
 東으로 바라보니 宝劔出匣 쟁거구나
 鳳山下 一大脉이 逆水로 도라서니
 子孫에 文武科은 代代로 쓴어질가
 이穴主人 알나거든 土山艮卦 仔細보소
 南十里 金釵掛壁 竜虎가 回抱하고
 入首上 노은돌리 어연이 雄壯하다
 文科一人 白花三人 富貴도 長远하다
 玄武가 特立하고 三水가 合流하니
 西南으로 흘러가니 아라보기 쉬우리라
 沙泊上 올라가니 飛竜이 구름타고
 行脉十節 丙丁龍川 竜虎업시 狺行하야
 쓴치다가 다시나서 窩鉗으로 開口하니
 案山이 倉庫峰이라 큰질박기 明堂보소
 穴深五尺 파거드면 赤白黃土 날거시오
 三代을 經過后에 富貴兼全 하오리라
 이山主人 찾자하니 火木山에 離卦로다
 그아래 누은龍이 靑雲놀 자바타고
 갈곳시 업난樣은 구름속에 穴이잇다

玉女峰下 구버보니 仙人이 춤을춘다
 五代進士 할거시오 一代尙書 나리로다
 主人姓名 아자하면 木山晋卦 仔細보소
 台峰下에 伏虎形은 眠狗案을 하고있다
 明堂압페 물이나니 天基가 쏘잇구나
 巽脉下에 竜이나서 如意珠을 다토난듯
 文武兼 하난中에 位至三品 되리로다
 岐岩下에 칼리잇서 將軍을 차자가난구나
 初年은 貧寒하나 勇士一人 날거시니
 칼을차자 하거들면 將軍밧슬 차자가소
 白岩은 水口되고 저鼓峙는 案이로다
 其下에 天基나면 振威은 無雙이라
 芦嶺下 廣大바우 織布하난 저 玉女야
 배낭안이 싸고 配匹몬저 찾난구나
 이穴을 어더쓰면 美色滿朝 하리로다
 南川下 午丁脉에 집짓는 저鳳凰은
 竹實을 입에물고 梧桐가지 찬느구나
 水口得破 意外나니 良方水가 故乙하니
 文科三代 速出하고 翰林淸職 나리로다
 이穴을 보자거든 堂洞을 무려보소
 玆原南 十五리에 구름속에 숨은달리
 阳宅이 생거구나 水金姓이 發興하리
 良癸金星 數三節에 阳宅한나 쏘잇구나
 明堂이 廣濶하야 大江이 둘러신니
 百子千孫 大富貴은 말할 수가 다업소다
 主人峰을 살펴보니 三姓이 大發하리로다
 代代進士 나언이와 南行官職 흔이나다
 水姓과 火姓人은 初發子孫 비록하나
 二百年 內外間에 無后가 흔이되리
 辰氣을 만이타면 庶孫이 繁盛하리
 그러나 이터氣運 與天地로同老하리
 物腎峙 過峽하고 雙貴樞星 노은후에
 師丈峰 뒤에두고 讀書하는 저仙人은
 大學里 엮페놋코 案箱을 놋피놋코
 掩膝端坐 하여시니 穴在乳頭 分明하다
 大小科舉 흔이나고 文章才士 나리로다
 甲卯으 三四節에 乙辰으로 開帳하니
 丙午坤 七峰下에 十二節 巽爭氣이라

玉女峰 一幹脉이나려 牛頭石이 거기로다
 甲卯 三四節에 乙辰으로 開帳하니
 帳中貴人 이것시니 어이다 말할소야
 거기서 結咽하고 甲乙로 닳려온다
 土山脉에 三峯노니 太極形体 더욱조다
 窩中에 一氣穴은 石槨이 눅거구나
 車身에 靑龍생거 벽水을 하고있다
 案山이 天門이라 질馬재 너머있다
 明堂이 緊束하고 水口捍門 三棧이라
 回山이 拱朝하고 大川이 돌렸쓰니
 石土가 相雜하여쓰니 玉女가 積案하다
 天藏地秘 하온中에 鬼神이 守直한다
 七代翰林 一代領相 五代王妃 나리로다
 百子千孫 億万年을 宇宙配亭 하리로다
 主人峰이 木星이니 水火姓이 어들리라
 中巽龍 石中穴은 才華은 업섯쓰나
 穴星이 堅固하고 主案이 端正하니
 富貴은 업서쓰나 百子千孫 하리로다
 이山主人 아자하면 火姓이 完然하다
 小巽龍으로 건너가니 奇奇妙妙 더욱쫓타
 來八去八 騎竜上에 穴星이 円厚하고
 錦繡屏帳 돌려쓰니 富貴無双 하리로다
 만일에 엇거드면 万世榮華 하오리라
 이山主人 살펴보니 九月山에 子孫이라
 初筮 八兄弟가 同榜及第 하리로다
 水口로 내려오니 龍頭上에 穴이있다
 大窩中에 穴이잇서 남모으게 숨엇쓰니
 富貴도 만컨이와 數百代을 長久하리
 그우에 올라가니 白鳶이 날게페고
 靑甲에 홀로안자 神仙자최 찬난구나
 萬山이 峻高하니 石中土穴이 分明하다
 盤石洞 드러가니 宿虎가 쏘잇구나
 盤石으로 몸을싸고 以待后人 하리로다
 內外孫이 俱筮하야 千年香火 하리로다
 鴨食洞 드러가니 上下穴이 多情하다
 질馬재 올라서니 鳳吹羅帶 臥牛形은
 節節이 屈曲하하야 一峯之間에 생거구나
 그러나 누은소는 木卜姓이 차지후리

白岩으로 올라가니 乾亥入首 가리바우
 三峰이 흥기서서 나얼보고 반기논듯
 낫낫치 말하자하니 八大穴이 거기있다
 朝陽里로 너머가니 梧桐枝에 운노鳳이
 送水로 案을삼어 三個바우 압페놓고
 円田을 이지하야 벗슬 찬노구나
 主人峰을 仔細보니 大姓之物 分明하다
 그리저리 내려오니 多小穴이 無數하다
 山水 配合之處에 陰陽宅이 업슬소야
 宿鳥投林 하느處에 猛虎出林 한나있다
 鶴洞은 在前하고 狗岩石은 水口로다
 이穴을 차자쓰거드면 大富文科 累代하리
 居住姓貫 仔細보니 黃州人에 생이로다
 白岩下 前後左右 片片금이 되었구나
 穴星을 바라보고 五福洞 내려가니
 丁未로 逆頭하니 賤人爲貴 하리로다
 坎癸方에 두줄물이 岩間에 湧出하니
 眞燕山 前後左右 十六穴이 숨었구나
 許多한 脉靜氣穴을 낫낫치 다말할소야
 西으로 내려오니 玉女端坐 보기쫓타
 陰陽宅 함기나니 累代近臣 하리로다
 千峰大江 둘러쓰니 血食君子 나리로다
 그우에 仙人舞袖 二代尙書 나거구나
 蒼龍出雲 雙鳳形은 位至 三品하리
 鰲山四面 다가보니 우리나라 洛陽이라
 山川이 秀麗하니 名勝之地 되었서라
 穴한나 어더쓰면 其外 十二穴은
 不間 생것쓰니 遠 그질로다 차지리라
 五六年을 山에놀아 그려저려 단이다가
 이쌍山水 求景하니 마암이 울울하다
 陽宅은 만컨마는 陰宅이 흔할소야
 栢山半登 兩大脉이 陽宅이 더욱만다
 닉나이 半百이라 보던中 第一이라
 운수가 멀었쓰니 이언山水 바랄소야
 어와이 닉身勢 다뭇될 일로다
 高敞
 솔우峙 求景하고 高敞으로 너머가니
 多小間 잇느穴이 逆氣라 奇妙하도다

龍聚入角 放馬形은 欠업시 생거구나
馬形은 보기쉬나 龍形으로난 어려우니
半月形 伏虎形은 長城地境 不遠하다
邑地도 偏小하거이와 山水도 적어도다
茂長

그질로 바로나서 茂長으로 너머서니
長砂山 一技脉은 可觀之物 만하도다

五姓主人峰論

土姓 孫亥沈琴嚴元任晉閔鳳奉都陶景太豈貢鞠葛鮑河明壯
金姓 王龍張方柳元裴康黃成徐房溫文白申慶南俞盧楊安全韓
水姓 吳許蘇馬曾孟金西門表下余呂禹也貝睦杖槐襄魚單南宮門路
木姓 趙奇朱周孔洪曹高崔梁黃車夏劉陸權諸廉池朴卓范林郭
火姓 李施陣邊鄭薛尹千宋姜羅葵田咸邪石殿錢傳馬庚

乾甲丁 亥卯未 木局 甲祿在寅 乙祿在卯
巽庚癸 巳酉丑 金局 庚祿在甲 辛祿在酉
艮丙辛 寅午戌 火局 丙戌祿在己 丁巳祿在午
坤乙壬 申子辰 水局 壬祿在亥 癸祿在弓
木局以木爲分金餘皆放한要覽

壬丁坐 子未坐坤得乙破天地亥泰格坤申得午破卦母格凶丁得巽破合生得格巽得壬破矢地定位交泰同
子未坐坤乙得午破十五數配合格水火不相射格未得巳破山澤相通氣格巳得未破

孫勻有堯福簪纓傳世格甲卯得坤破六呂相生格長方取絕

癸坤坐坤得丙破偉呂相生格甲卯得庚破消坐山格凶甲得酉破天地交泰格

丑申坐酉得己破取妻生格戌得巽破先天格申得午破文曲見水格

艮庚坐丙得酉破山澤乙相通格辛得丙庚破卦子破酉得亥庚破丁破坤破丁破六律相生格

甲申坐乾辛得巽破天地交泰格丁得亥破子母相害格乾得丁破息坐山格寅亥得辛破

消坐山郎滅坤得巽破天地交泰格

寅酉坐戌得午破午破戌破取妻生子格己得申破形刊戮歎格

卯戌坐戌得坤破六律桐生格丙丁得坤破害犯子消凶郎滅亥丁得巽破十五數合格亥得丁破
雷風相待格

乙乾坐坤得壬乾破十五數配合格亥得庚坤破犯害母格乾得庚破六律相生格

辰亥坐申得丑破九數生子格乾亥得丙破六害破寅申得戌破陰陽相濟格飛龍俠水格

巽壬坐艮得乾破十五數配合格辛得壬破六律相生格癸得辛破掛子破艮得庚破雷風相搏格

巳子坐艮得酉破先後天相格山澤通泰格申得寅破刑戮敗凶酉申得丑破陰陽相濟格

天柱滅乾甲坐離壬寅戌破離坐震破震坐艮破

門破艮坐乾破坤乙坐坎癸申辰破坎坐兌破兌坐巽破巽坐坤破

大白杀 壬坎癸甲乙卯 壬坎癸 辰巽巳庚酉申 辰巽巳

丙午丁未坤申 丙午丁 戌乾亥丑寅艮 戌乾亥

窺山論

辛酉窺山定出聖人 乙辰窺山定出盜賊 卯酉窺山子孫貧寒 戌亥窺山百日內大凶 坤申窺山子孫早死
丁酉窺山子孫龍朔 癸丑窺山女出淫亂 子丑子丑家內賊出第富 寅卯寅卯子孫敗惡 子午子午賊乱大刑
良方良方乱賊子 乾方窺山諸頭石大風瘡 癸丑三峯辛方一峯火突九見 丁方三峯狂風病

火山

長生寅 長男亥 長女巳

大庙辰 包絶亥 中男子 小男未 中女午 小女丑

大杀子 小杀丑 婚戌婦 辰男敗

水土山

長在辛 長男亥 長女巳

大庙辰 包絶巳 中男子 小男丑 中女午 小女未

大杀午 寅女申 小杀未 材中女

金山

長在巳 長男申 長女寅

大庙丑 包絶申 中男酉 婿丑婦卯 中女卯 男財巳女財亥

辰婦戌男 才寅

大杀酉小杀卯

包絶申大杀酉小杀戌

小女戌

木山

長生亥 長男寅 長女申

大庙未 小男辰 中男卯 婦未婦丑 中女酉 男財亥女財巳

包絶申大杀酉小杀戌 小女戌

偷尸 甲卯龍辰戌丑庚風踏吹回穴上不出去則爲偷尸左右在墓之四五步長在方四五尺下有之
養尸 坤兌坎乾方窺峯手足出外矣

疑龍經 忠肝集

山有變化之元妙水有曲直之吉凶欲明其術須察其奧無知之业車不以山川性情氣脉

爲本全以天星理氣生旺之說作書感人真以爲維經爲上指龍指向利口禳人可愛

莫甚豈知山川自有山川之生貴賤自貴賤之形体以要龍脉爲本巒頭

爲体砂水爲用神察其搏擾俯仰順逆生死陰陽緩急動靜向背之

性情庶哉復得郭陽諸先生之定宋耳谷中閔鎖爲上平洋水聚爲佳所貴

者平中之陰所愛者谷中之陽動中觀其脉靜中觀其氣勢求抗動中靜穴求

於靜中動良龍須乎脉之定穴當註氣現明緩急纔加吞吐以陰陽而不浮

沉况而須憑唇口愛親當註界明山有枝龍之別地有厚薄之宜壠之脉

陰陽取陽枝龍之地陽陽取陰支有陽猛成陰壠有陰極成陰陽成可種須陽

莫湊地厚處當註薄取地薄處須尋厚栽取薄者亦須唇口取厚者須取

其瘠平洋無氣脉之可觀定穴有水神之徵佐觀生死直曲之間尋行止於

雌雄之內形体臥平田氣脉從乎水現体小者當乎中体大者須察乎傍傍

生則動死則靜不現於前須示其側方則取動圓則取靜來須脉現止須氣

納矣據催官理氣之說六秀爲貴玄龍爲尊四墓寅脉更劣然有亥
 艮六秀之龍終故絕敗者有寅甲庫行龍出大富貴者何也皆以因星体貴
 以貴星体賤以賤古之名墓鑿鑿可據不誣矣
 陰至則生在於陽陽至則生在於陰下生上者上生下者爲陰峻爲陰平爲陽陽
 乳爲陰窩爲陽取乳者葬其平取窩者葬其急山壠之脉其氣屬陰
 多乘其枝故日葬麓平洋之地其氣屬陽多取其頂故葬其山顛有
 半陽半陰之脉或平乳金面有二分陰八分陽八分陰二分陽陰多則取陽陽
 多則取陰見其龍勢之有來是亦不來見龍勢之不來是亦有來見其
 來而不來者脉不至也見其不來而來者氣之至也靜則觀其脉隱則
 觀其氣花穴及生龍虎分合都是孤陰真脉瀕分合真龍藏於砂水
 初玩無情細察自妙龍以剝擾爲先奇特爲尊剝擾者祖中出細
 細中出祖奇特者大中特者小小中特大異者閃藏頓跌向別象像變化
 莫測故日龍也與象山同流不斷不異雖能起伏皮毛不擾摠有星峯
 疲削手脚尖射此非龍也行龍不斷則不伏不伏則不起卸須到低起
 要成星

將相脉이 全無하니 罷壁하기 어려오리
 多小間에 잇난거시 保子孫 以巳로다
 禪雲山 上上頂에 穴한나 생거구나
 富貴文科 나련이와 三代가기 어려우리
 東湖過 丑艮脉에 고기잡난 저漁翁덜아
 仙童으 노래듯고 고기잡기 이젓도다
 이穴 차자쓰면 万世榮華 하언마는
 못래가에 못쳐쓰니 俗眠으로 어이알리
 바로 내려올제 질가에 인난거시
 龍도안이고 뱀도안이되 제우쓸만 하것구나
 亥三節 乾入首에 竹砂洞 村後이라
 仔細이가려 쓰거들면 百子千孫 하리로다
 靈光
 허허탄식 不己하고 靈光地境 너머서니
 北七里 兩水間에 六竜爭珠 하느고나
 如意珠가 西이되니 穴찾기 어려워라
 竜壯 穴拙하야 舍衿處에 鉗이나니
 平地阳砂 回抱하니 어으明眠 알어보리
 依山主人 그뉘란고 水土姓이 大發하리
 門內에 들러가서 左右을 살펴보니
 東西南北 四方中에 西南山水 더욱쫓다
 西五里 花蝶尋香 當代 速發하리

文武科도 만나났고 代代富豪 하리로다
 艮兌木星 正土穴에 庚酉水가 故東하니
 찾기도 어렵거이와 아라보리 뉘잇쓰리
 北二十里 大過峽에 雌雄三穴 더욱좃타
 紫氣木星 數三節에 平地結咽 자조하니
 一幹은 西에가식 龍已聚會 되어구나
 穴後에 天載土星 泰山이 생거구나
 四代丞相 七代王妃 百子千孫 文武科은
 代代로 날거시니 제마닥 어들소야
 主人峰을 차자보니 木土山에 革卦로다
 東岑峙을 너머서니 臥牛形은 天基로다
 一隊海水 朝堂廻라 人才府庫 되리로다
 五百年을 經過하면 名賢君子 나리로다
 丙丁方이 通高하니 代代人物 슨어질가
 華蓋金星 主人되니 五姓 俱發하리
 將相峙 結咽하고 隱仙峰을 이라든니
 竜虎업시 생긴穴이 鬼龍渡江 丁寧하다
 雲砂가 羅列하고 丙丁이 重重하니
 萬鐘錄을 먹늘富貴 口으로난다 못하리로다
 美哉라 이穴星이야 눈으로난 못보것다
 더욱貴타 良平之才 代不乏絶 하리로다
 이려함으로 三奇中 第一이 되었구나
 穴前에 卯方水은 大海 드러가니
 제임子 못만나면 열번써도 다파것다
 그리저리求景하고 仙津나리 건너서니
 海過에 노푼山이 九岵山이 가깝구나
 그산에 올라가니 고기잡난 저漁翁덜은
 낙기딴을 드리우고 구덕을 자로본다
 當代發福 長遠하니 秀大不絶 하거구나
 主人姓名 차자보니 金水山에 坎卦로다
 前後에 잇난穴은 不貧不富 하리로다
 長頭山 도라서니 海過에 大화잇다
 上下穴리 생거구나 火姓이 主人되리
 鳳山에 鳳보소 掩所에 怪穴보소
 保子孫은 而已로새 大小科氣 업서구나
 그밧기논 勝地업서 柿木島로 도라든니
 猿성이 한나잇서 果實을 품에품고
 秋風을 이지하야 두려시 안젓구나

坤申脉 庚入首에 艮水가 故乙하니
 明堂이 廣濶하야 裁作하기 어려워라
 富貴도 만컨이와 子孫이 千億이라
 兪金星이 主人되니 代代榮華 하리로다
 姓名遠近 이두가지 水火山에 謙卦로다
 다말하기 어렵구나 其幹脉에 許多穴은
 거문고타난 저玉女은 撫瑟案이 完全하다
 鼓頭가 멀어쓰니 穴落平地 湖溫處라
 月明水淸 한곳에 鼓聲이 나느고나
 아마도 이한穴은 火姓이 主人이라
 竹杖으로 山을치니 三角山이 여기있다
 山頂을 올라보니 庚癸乾亥脉이 모다
 四節下에 円厚星體 穴在窩中 하여구나
 碑文을 祥考하니 權氏墓가 짓커구나
 말무릎곳 전이업서 그저가기 섭섭하야
 筆束에 붓설니여 이山運路 기록하야
 穴中의 무더두고 欣然히 도리서니
 日後 有識君子 過히深責 마압소서
 한탄 不己하고 생실로 내려오니
 그中에 무친穴이 적지안니 하것구나
 水口円峰 불작시면 明哲之人 나리로다
 그질로 求景하고 拜禮峙 올라서니
 山盡 水盡處에 拜起相迎 더욱좃다
 龍長 穴拙하야 鉗속에 窟이되니
 連代長遠이 큰穴을 그뉘리서 아라볼고
 寅艮脉 辛代破을 世俗사람 아라볼가
 天馬는 前에잇고 旗鼓는 右에잇다
 五老峰에 오난氣運이 박기 다시업네
 子孫福泉 만커쓰니 此邑에 두자리라
 主人峰 仔洞보니 火山旅卦 解得하소
 그山을 너머서니 임者업는 저막아지
 마廐을 짓티두고 갈바을 전이몰나
 말독바우 바라보고 누濕한디 누어구나
 이穴을 찾자하니 主人업서 렴어로다
 万一에 어더쓰면 文千武万 나것구나
 明堂에는 子孫잇서 百代有侍 하리로다
 그질로 내려오니 蒼龍出雲 奇妙하다
 甲卯乙辰 巽巳人首하야 庚水가 故癸하니

四山 拱朝하야 珠山이 水口로다
 大小科慶 大富貴은 代不乏絶 하거구나
 堂山洞 드러가니 多小穴이 만하도다
 金釵掛壁 蜈蚣形과 仙人舞神 雙竜出雲
 十里內에 생거쓰나 木火姓이 직키이라
 甲山東南 둘러보니 穴이사 만컨만는
 主人峰이 狻立하니 아라보리 뉘잇슬고
 그중에 貴한穴이 紫鳶故巢 쏘이로다
 鳶洞은 在前하고 三山이 在後하다
 穴在 鉗窩中에 平地陰砂이 안이려가
 마일에 어더쓰면 七代翰林 三代文科
 代代로 날거시오 富貴無雙 하리로다
 그러저려 求景하고 馬福山을 너머가니
 前後左右 回抱한디 鳳한나 생거구나
 乾亥三節 結咽하야 亥坐에 巽破로다
 大小科도 만컨이와 四代丞相 二代王妃
 万世長远 하련이와 名滿一國 하리로새
 이主人 알라거든 金山遯卦 解得하소
 그질로 내려오니 森溪縣이 어기로다
 堂局이 廣濶하니 人物이 繁盛하리
 鉢玉山 一氣脉이 紫氣木星 노와구나
 焚香 四拜하고 그골에 드러가니
 西南에 鉢孟노고 路上에 禮佛하니
 穴星이 正方하니 壬亥脉이 巽水로다
 文科七人 날거시오 百子千孫 하리로다
 首陽山 大過峽에 나운氣運 차자가니
 大讀峙 五過峽에 無双之穴 만커고나
 羅州
 그산을 올라서서 羅州로 내려오니
 逆氣로 가난龍이 群鳥가 分明하다
 龍穴을 取擇하니 保其子孫 쏘이로다
 辛代 結咽起頭하야 勇珎山이 特立하야
 丑艮으로 起伏하니 眞龍正穴 이것시라
 雙鬼樞星 새운處에 曲尺氣怪 丁寧하다
 乳頭에 穴이나니 橫樑案이 多情하다
 子孫福泉 만컨마난 富豪은 全히업다
 老鼠下田 數多穴은 水土山에 免濟로다
 落月峙 過峽處에 半月形이 奇妙하다

穴後에 天載木星 어니明眼 아라보리
 用之八年 初發하야 富貴兼全 할리로다
 亥入首 乾坐穴에 堂門水가 远朝하니
 長孫은 無欠하나 中末이 初敗보리
 良行 八節下에 仙人形体 特立하니
 이거시 主人인가 南에 処土한나고
 庚癸脉 將軍形은 艮水故乙 하엿도다
 文科七人 날거시오 富貴無雙 하리로다
 水月洞 너머가니 上下穴이 쏘잇구나
 子孫은 만이나고 百代香火 不絶하리
 主人形体 살펴보니 水火姓이 되리로다
 其中에 大幹이 二十六節 옹위하니
 大穴나난 根本이라 그뉘라셔 分別하리
 거음을 밧비하야 數里을 내려가니
 華盖金星 차린后에 滿月掛西 하야구나
 穴前에 올라셔서 前後左右 살펴보니
 七星峰 三台案은 錦繡屏帳 돌너쓰니
 文千武万 十代相과 七代王妃 万鍾象을
 積德積善 안이하고 제바닥 어들소야
 姓名坐破 일으나니 水木山에 坎卦로다
 穴星이 円厚하야 上下分別 어여워라
 乳中에 微窩보소 用之五年 速發하야
 二十九代갈거시니 蠡斯千古 부려하리
 欣然이 이러나셔 勇珎穴을 시아르니
 乾亥南麓 辛代峽에 円鳳形勢 第一이라
 穴埭에 天輪土星 아라보기 어려워라
 自己官星 案이되니 万代榮華 하리로다
 鉗속에 窩가되니 靑砂黃土 나리로다
 이山主人 그뉘련고 水火姓 쌍니로다
 張衫을 썬쳐입고 伏龍上頂 올라서니
 御屏所幕 두른밧틱 穴한나 못처구나
 前案이 廣濶하야 數百里을 얼것쓰니
 火姓이 主人이라 그外사람 쓸대업니
 坐한나만 그릇치면 三代가기 어려워라
 竹杖으로 가라치고 南麓을 구버보니
 主人업시 무친穴이 許多이 쏘잇구나
 世俗사람 눈잇거든 이穴차자 쓰거들면
 百子千孫 大小科은 代不乏絶 하리로다

北으로 도라보니 多小間에 잇난穴을
 帳中속에 둘러쓰니 水姓이 직키리라
 龍과脉이 응위하야 平地로 내려가니
 別般氣像 잇기로서 그아릭로 닥려가니
 黃龍이 배을지고 자최엽시 숨머쓰니
 아마도 이한穴이 奇奇妙妙 하것구나
 大江은 在前하고 大路은 在後하다
 艮行二節 亥二節에 乙水故未 壬坐로다
 巽輓艮丙 相逢하고 乾坤子午 相逢하니
 龍頭峰 水口익기 珠山이 完然하다
 穴星이 圓厚하야 天輪轉圜 둘러쓰니
 三聖五賢 五代翰林 將相 速出하리
 七代을 지닌가면 宇宙配享 하거구나
 五尺七寸 파거드면 石匣中에 雙鯉로다
 傷치말고 쓰거드면 六十八代 長远하리
 穴을보고 主人보니 金土姓이 안이던가
 錦城下 行舟形은 四百餘年 王都로다
 南으로 내려가니 雙龍合襟 形体좃다
 台峰은 在左하고 月半은 在右하다
 坎癸行龍 壬亥脉이 亥坐巳向 巽砂로다
 主人形体 시아르니 木卜姓이 大發하리
 그우에 올라서니 陰陽宅이 俱吉하다
 그옛페 늘근龍이 如意珠을 다루논고나
 重兌로 發足하야 壬亥로 作首하어
 庚辛이 어드노코 庚水가 故甲하니
 百子千孫 富貴榮華 永世無窮 하리로다
 五尺五寸 파거든 五色宝劍 잇거구나
 부딪부딪 조심하야 傷치말고 쓰라
 母山峰下 十六節에 陰陽宅이 쏘잇구나
 大小科는 비록나나 年敗多端 보기신타
 그렁저렁 求景하고 西北山水 絶勝하다
 行舟은 天基되고 업진사자 잇것구나
 飛龍은 잠을자고 胡馬은 춤을춘다
 辰巽土体 微窩穴이 이불山이 생거구나
 大小科氣 흔나고 子孫千億 富貴하니
 案山이 重疊하니 水口가圓鎖 하여쓰니
 蠡斯千古 하려이와 食泉万鍾 어려올가
 五尺五寸 차거드면 紅粉砂金 靑器로다

主人峰을 자시보니 水土姓이 직키이라
山脉이 淸秀하야 北龍지 너머서니
主龍壬坎 庚兌回頭 七四器난 天基로다
火姓은 淫行하고 木姓이 大發하리
龍巳聚會 富貴穴은 榮浦가 생거구나
主人形体 乾卦되니 徐白姓이 大發하리
錦城山 前後左右 陰陽宅이 無數하다
이山主人 살펴보니 水土山에 臨卦로다
그우에 나오니 七峰下 連珠脉이
臥牛形 생거시니 靑艸가 머리구나
甲卯脉 庚壺坐에 艮水故乙 丁寧하다
문저는 牛時차고 뒤에는 丑峯보소
巽辛은 相對하고 艮丙은 相望이라
伏虎은 在丑하고 靑龍은 在丁하다
四尺下 三色土와 生物거복 날거시니
傷치말고 쓰거드면 三公道伯 날리로다
四十字 決錄中에 金土姓이 主人이라
私欲을 멀리하면 보기도 쉬우리라
그재을 너머서니 老鳳故巢 더욱좃다
穴在上聚 微窩中에 艮坐에 戌破로다
乙辰方이 空虛하니 初年敗은 더욱좃다
三十八年진년후에 子孫福泉連化하리
西北間에 許多穴을 낫낫치 말할소야
니말리 허사될가 世上입이 可畏로다
其外 無欠大穴은 龍穴뿔에 잇나이러
咸平
竹杖을 재촉하야 咸平으로 作路하니
단난사심 너논어니 竜泉을 업페두고
거름을 밧비하야 山涯을 向하난고
艮脉 十二節에 穴星이 円厚하야
殘窩로 생거쓰니 陰砂合衿 分明하다
穴前이 卑濕하니 알기가 어려워라
天門에 金星形体 堂局水가 故丁하니
萬一에 차자쓰거드면 百子千孫 長久하리
半路로 數里을가니 山形이 勝부한딕
左右 滿布하니 陽宅이 奇妙하다
木姓이 百年후에 火姓이 主張하리
玉女峰을 바래보고 緩緩이 건네가니

山飛水走 한난곳에 木星精神 슈여하다
 三綱領 八條目은 女子에게 不當하다
 女必從夫뜻슬알고 雲仙을 차지라고
 金釵을 빼어잡고 어연이 내려오니
 아름다운 저玉女은 丈夫마음 活蕩한다
 거문고 노인곳에 노래소리 나는고나
 거름을 밧비하야 穴前으로 드러서서
 玉梳案을 차지라고 左右을 둘러보니
 고머리와 大學坪은 上下 버려있다
 坐한나만 그릇치면 代代淫行 나가구나
 主人峰을 자시보니 水火山에 泰卦로다
 文科三人 날거시오 大富子孫 나리로다
 甲山下 十五里에 八大穴이 쏘잇구나
 主人峰을 살펴보니 水火姓이 지키리라
 九秀峰下 伏兔望月 石子天孫 富貴하니
 其아래 漁翁前垂釣 穴在鉤中 ㅎ엇구나
 이穴차자 쓰거드면 速發富貴 하리로다
 雙栢洞 차자갈제 路上의셔 拜禮하고
 十餘里을 드러가니 禮說講을 하난구나
 鍾더리 모와서서 스승을 위로하니
 年滿한 저老僧이 가사을 다바리고
 明珠만 손에쥐고 이리저리 徘徊하니
 度量이 헌칠하고 積神이 싹싹하다
 萬一에 차자쓰면 文千武萬 代代하리
 主人姓名 보자거든 土山進卦 解得하소
 數多한 大小穴을 낫낫치말할소야
 務安
 그날로질을떠나 務安으로作路하니
 山盡水回하나곳에 多小名穴업슬소야
 台峰下伏虎形은 眠狗案이有情하다
 龍虎回抱水口上에 穴在田中 四岩間이라
 工夫하난 저地師야 裁作하기 어려워라
 그외에 十二穴은 제뉘라서 알아보고
 三水洞下 初過峽에 九賓재가 생거구나
 그아래 將軍形은 文千武萬 하리로다
 이穴을 찾자하면 투구바우 무려보소
 四十三節 乾亥脉에 僧達山이 特立하니
 錦繡屏帳 들어논대 우리스승 계시도다

堂局이 平順하고 規模가 廣大하니
 帝座氣像 넋파쓰니 山水會圓 하여구나
 天藏地秘 하온穴을 제마닥 求景하리
 石川이 回朝하고 萬山 溷漆하니
 甲山精氣 외운곳에 설범가사 버려쓰니
 아름다운 저岸上에 열두상자 分明하다
 鉢盂은 在東하고 雲庵은 在南하다
 저老僧의 거동보소 百八念珠 손에 쥐고
 七十袈衫 썰쳐입고 못든弟子 강바드니
 其中에 늘근중이 스승으게 問安하니
 念珠한나 내려져서 水口圓峰 되여구나
 艮兌金星 冲天한디 穴在方圓 盖粘處라
 四輪商石 뒤에잇고 金魚玉機 아래잇다
 八百煙花 되여잇고 三千紛黛 외와쏘다
 乾坤艮巽 特立하니 王子師傅 흔이났고
 丙丁巽辛 노차쓰니 壯元及弟 代代나리
 葫芦山이 나타난니 女作王妃 하리로다
 雲蒸貴心 하여쓰니 應天上之 三光이라
 回字土而 作金하니 眩目感 되오리라
 北辰天柱 노파쓰니 賔宇宙之無窮이라
 兌貴捍門 열여시니 名振他邦 하리로다
 交鎖直結 하논양은 四字가 分明하다
 回天命段 造化어든 鬼神도 모를리라
 錦江百里 두룬물이 魚貫隊陣 되여구나
 聖賢은 如담이요 將相은 玆玆날리
 伊후에 子孫千億 万世万世 長久하리
 이山運路 시아르니 九十八代 香火하리
 主人나서 찾거드면 一夜之間 永葬하리
 七尺下 銀端石은 鬼神도 몰으리라
 가기을 이저던니 날리이무 저물거을
 거름을 밧비하야 竹田으로 내려노니
 円邱아에 나논鳳이 집을차자 도라든다
 梧桐枝 잇난곳에 復興峰이 多情하다
 節節히 起伏하야 北良으로 脉이난니
 穴後에 練丹石은 太極形体 分明하다
 毬簷葬口 分습싸고 平地陰砂 回抱하니
 乾入首 堂門水은 三公道伯 代代나리
 六尺二寸 파거드면 五色黃土 나거구나

用之八年 初敗하나 그거시 더욱좃타
 山脉이 華麗하고 水勢가 明朗하니
 奇奇妙妙 생겨쓰니 湖南大地 되오리라
 案山에 상서九里 朝陽이 丁寧하다
 文千武万 十代翰林 虚言이 안니로다
 主人峰을 仔細보니 水火姓이 직키리라
 丑艮峰이 特立하엿쓰니 丑生이 發蔭하기 쉬우리라
 主人形体 文笔이라 九仞山案이 되리로다
 轉天輪轉全垓 모르거든 이련穴을 어이알리
 穴前에 퍼인돌리 四金帶줄 모르이라
 엇지하야 이큰穴이 不遠間에 생겨난고
 姓名居地 運路보니 木火山에 家人卦라
 身勢타령 잠간하고 囚月洞 너머가니
 구름속에 무친穴을 世俗사람 아라보리
 이山運氣 시알이니 百子千孫 累代富貴
 집집마닥 할것시요 사람마닥 바드리라
 艮八節 兌入首에 乙水故未 壬坐로다
 그아레로 내려오니 八十老翁 밧가난디
 엇더한 게집아히 點心밧을이고 도라오니
 行力도 피곤한中 飢渴恨心 절로난다
 할슈 전히엿서 老翁게 사례하니
 나을만나 相坐한后 飲食을 勸하거을
 그老翁을引導하야 쥬린飢腸 飽食하고
 물가에 내려와서 老鼠下田 가아치니
 當年 發朴하야 三代富貴 하오리라
 西南으로 건너가서 多小名穴 다본후에
 狗山峯 너머서니 猛虎渡江 하난구나
 泰山이 峻香한디 大水가 冲殺하니
 이거시 貴格이라 連代長远 하거구나
 万一 어더쓰면 當代泰亡 하리로다
 자서이 이르나니 穴在平地 無人處라
 그리로 도라셔니 漁翁垂釣 잇거구나
 穴在鉤中 하여쓰니 아라보리 업스리라
 두루다 구경하고 東倉으로 내려온니
 七十七年 리母親 卦을어더 解得하니
 그날로 내려가서 不孝을 못免하고
 天崩地痛 만노후에 飛鳳抱卵 裁穴하니
 傳之無窮 바라더니 悲痛하고 切痛하다

鬼神이 作害하야 어와 번님니아
三年을 못지니셔 破傷之 되단말가
運數라 어이할고 그后하난수업서
吉地을 어들셔 三年을 못지닌니
아난것도 쓸디업고 順天積德 하여셔라
그后 할수업서 村後에 安葬하고
三年을 지닌後에 光陽雲山 드러가셔
數間庵子 지어니셔 寺名을 玉龍寺라하니라
年長七十 늘근몸니 貂居山門 심심하야
竹杖으로 벗을삼아 남은山川 求景하니
海南
山盡水回 하난곳에 海南이여기로다
大湖過 海鯪弄珠 公卿案이 完然하든
烏石이 坤에잇고 名泉이 西에잇다
丙午方 잠긴구실 江우에 버려잇고
슴谷에 나느상셔 百代香火 하리로다
乾亥龍庚入首에 卯水故乙 分明하다
이穴을 차자거든 粉洞을 무러보소
이山運路 살펴보니 火姓이 主人이라
堂岳 北十里許에 一隊兵士 모와구나
四方이 平平한디 窩中突氣 생거구나
千金砂 한자리에 알아보기 쉬우리라
이山主人 보려하니 金水山에 巽卦로다
西泰山下 胡僧禮佛 鉢孟案이 天基로다
主人峰이 木星이라 李氏가 主張하리
東으로 구버보니 업진범이 내려온든
眠狗案 大狗過에 穴在平坦 原石下라
坎穴로 入首하야 子坐에 癸門이라
前後左右 독이잇서 가온디 穴이느니
萬一에 어더쓰면 富貴兼全 하오리라
其外에 數多穴은 龍穴뭍에잇느니라
康津
康津으로 너머서니 前後에 名泉이잇고
五雲이 玲瓏하다 이山形体 仔細보니
木卜姓이 못어드면
두루두루다 求景하고 康津으로 너머서니
바다가에 돈난龍이 五雲이 玲瓏하다
竜池十里 너룬물이 北帶莞島 하엿구나

穴前에 名泉 잇고 白虎 밧기 人家 잇다
 이 山形体 乍새보니 亥坐에 巽破로다
 木卜姓이 뭇어드면 山佳人의 쌍이로다
 用之三年 大發하야 三國宰相 나리로다
 東二十里 乙字脉에 半月形이 더욱 좃다
 正星 밧터 穴이 밧지 隱然이 숨머 잇다
 無欠大地 이것이라 사람마닥 어들소야
 이 山主人 살펴보니 當待后人 하능구나
 翰林이 七人이요 尙士가 一人이라
 이 穴이 奇妙키로 圖式을 기려 닐니
 日後 有識君子 仔細히 살펴보소
 西五里 生蛇逐蛙 碧溪을 이지하야
 말업시 숨어쓰니 어느 明眠 아라불고
 坐得破을 짐작하니 水土山에 渙卦로다
 柳李兩姓 어더쓰면 連代文科 富貴하리
 그점터 伏虎形은 머글것시 만하구나
 乙山來脉 十里許에 午丁으로 내려와서
 巽入首庚 寅得穴坐破 大川이 되엿구나
 마일에 차게되면 百子千孫 하리로다
 東으로 건너가니 춤을춤 저 仙人은
 鳳峯上 舍人峰下 乾亥十節 坤坐로다
 이 山主人 보려하니 金姓이 完全하다
 三代后에 發蔭하야 九卿八相 나리로다
 童子土星 뇌여거든 穴인줄 짐작하소
 其下에 내려오니 龍馬飲水 쏘잇듯
 金銅一脉 水南우에 月出山이 생거구나
 左脚峯 右星山에 子坐午向 堂門이라
 主人이多情하고 起伏이分明 하도듯
 穴落平地 乳頭하야 微微陰砂 물렀스니
 万一에 어더쓰면 文科七代 나리로다
 百子千孫 富貴하야 萬代榮華 하리로다
 이 山主人 자세보니 木火山에 離卦로다
 老鼠下田 仙人讀書 不遠間에 생거구나
 興陽東頭 上帝奉朝 이것시 奇妙하다
 穴在 釣中하야 左水流東 하엿구나
 主人峰이 金星이라 水土山에 恒卦로다
 그아례로 내려오니 나능龍이 바다보고
 餘脉을 어지하야 흠업시 생거구나

大路는 在前하고 三龍虎 重疊하야
 丁七節 丙三節에 午坐에 子破로드
 이山主人 구버보니 水火姓이 지키리라
 北으로 五十里에 雲中微月 쏘잇구나
 左長右短 石脉中에 穴在峯上 分介處라
 左右에 버린峯巒 明堂을 들엇스니
 累代文科 날거시오 百子千孫 하리로다
 主人峰을 仔細보니 李氏山이 되오리라
 雙龍爭珠 伏虎形은 鳳凰埕 上龍이로다
 九江一分 細絲脉이 東珠竹島 하엿소다
 南으로 내려오니 黃龍出岫 생거구나
 北山之下 三節上에 白抵破을 이지하야
 微微케 숨어스니 아라보기 어려워라
 그아릭 내려오니 禮佛하나하는 老僧은
 葬蓋冠峯 그사이에 申兪로 穴을미저
 海水中分 하온곳에 瀛洲 數峯案이되니
 陰陽宅이 俱吉하야 萬世榮華 하이노다
 이山主人 찾자하니 木山遯卦 分明하다
 北으로 너머가니 美人貴星 되엇구나
 丑艮으로 屈曲하야 三台을 버여스니
 巽卯入首 甲坐에 亥水가 乙로가니
 芙蓉大帳 버인곳에 人山이 水口로다
 이穴을 어더쓰면 位高一品 富貴하리
 主人峰이 土星이라 金山大忙卦 되여구나
 西으로 二十里許에 飛鳳故巢 쏘잇구나
 庚兌行龍 壬亥入首 亥庚水 歸來하니
 五尺二寸 파거드면 珠玉一雙 잇슬터니
 傷치말고 쓰거드면 代代榮華 할거시오
 累代翰林 百子千孫 清高不絶 하거구나
 이山主人 살펴보니 當代后人 하리로다
 그업페 紫鳳抱卵 泰山下 小水上에
 亥三節 艮作氣에 巽方水가 歸來하니
 白石은 在後하고 黑石은 在前한다
 穴在 微窩卑湿處의 子孫千億 되보이라
 海山東南 燕巢形은 甲卯行龍 艮主峰에
 天王峰은 庚에잇고 貴人星은 坤에잇다
 艮入首 丁水破에 人山水口 護從한다
 案前倉庫 버려시니 穴在匡石 石磷下라

五尺七寸 파거드면 三色土中 石函난다
 傷치말고 쓰거드면 文武兼筭 하연이와
 八代南土 五代閣老 三代大將 王妃나리
 不遠間 兩大穴이 火姓主人 分明하다
 延日人이 못어드면 華脂山의 子孫이라
 靈岩
 歆歎不已 할슈업서 靈岩으로 내려오니
 東北十里 武公端坐 掛局案이 되어구나
 文武七人 날거시오 位至三品 하리로다
 主人峰을 아자거든 木山性卦 자새보소
 月出山下 花檻形은 天基로 생거구나
 東便에 龍馬奔散 飛來飛去 洛水中에
 蝦坐가 東에잇고 神人이 춤을춘다
 穴前에 올라안져 가기를 이져더니
 明朗한 저하날이 雨水가 急急하거날
 갈바을 전이몰나 거름을 재촉하야
 山下로 내려가니 一間斗屋 가시門에
 白髮老人 분주겨늘 그老翁을 차자녀
 비피할일을 의논하니 그老人이 마자드려
 안방에 아치고셔 名飯을 지어주니
 飲食이 소담하고 山菜 정결하니
 主人姓名 무려보니 愼老人이 丁寧하다
 年長六十 저老人이 俱無子女 偕老커날
 마음이 不祥하야 龍已聚會 가라치니
 用之三月 初筭하야 百子千孫 할거시니
 나이만고 병잇겨늘 帝陽으로 分金하이
 三日內에 喪妻하고 二十八日에 再娶하야
 三月內에 立胎하야 連生三子 하리로다
 大抵라 이한法은 九天運路 十六宮을
 한그무로 쏘바닉여 開生休囚 열거스니
 奪造化之妙術이라 제마닥 알아보리
 거그셔 머우를제 於焉間에 五月이라
 本土로 가려하니 主人老翁 말如此날
 至키 새례하고 鳩林으로 다시보니
 九天에 가신父母 瞻掃奉堂 쏘이로다
 終日토록 痛哭하고 洞裡로 드려가니
 村樣은 依旧하나 人心이 大變하야
 참時도 溜키어려워 바로나려 갈여하니

外戚에 한老人이 至極히 請하거늘
거기가서 留하면서 宝劔出連 가라치니
數日을 지닌後에 親山守護 付托하고
靑鳶洞을 드더가서 先生殺訓 잊지안고
十杀通脉 이니노레 石窟속에 너어두고
東方盛襄시아려서 石門이 생여셔라
日後에이石門어려 成土兼이 차지리라
八路名山 無卦글러 너노레굿태 붓쳐쳐쓰니
同 父母兄弟라도 그릿 고대 저치말고
안화는 고사하고 神氣漏洗 되리로다
우리아래 人民되여 정성으로 求山하면
첫재난 爲親이요 뜻재는 제일이라
다른일 求타가는 아이되면 고만이라
求山이라 하난거슨 잘못하면 망가하리
世上사람눈잇거든 求山하기 심을쓰소
죽은父母 陰德으로 子子孫孫 富貴되면
어와이안 죠흔일을 사람마닥 짐을쓰소
우리東方 地理綱領 水火姓이 傳受하리
白頭山 을다가서 돌을새워 초을하고
馬鐵峯 너머서서 五埧山 내려오니
白雲庵 모든精氣 與天地 偕亡하리
張道士에 일을보니 과심키가 가이업다
年少한 저少年이 남의손에 속이어서
그릇친일 만커이와 이도또한 운수로다
저허물을 갑자한들 그사람이 다죽어씨니
어딤가서 말할소야 다뭇될 일이로다
그령저령 지닌다가 與艸木으로 同腐하리로다

[현대역]

국사옥룡자 유세비록

성은 최요, 이름은 도선, 호는 옥룡자로 영암구림에서 나고 자랐다.

내 나이 십오세(十五歲)에 지리서(地理)를 관람(閱覽)하니

이치(理致)도 알 수 없고 산리(山理)에도 눈에 설어

선생(先生)을 찾으려고 당(唐)나라에 들어가서

칠일(七日)을 재계(齋戒)하고 장일행(張一行)을 만나보니

일조(一朝)에 활각(豁覺)하여 전(前)허물 돌아보니1

사십구년(四十九年) 그른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구나

조물(造物)이 시기(猜忌)하여 선생(先生) 이별(離別)하고 본국(本國)으로 돌아올 제

백두산(白頭山) 선녀담(仙女榻)에 선파2집(仙婆集)을 배웠구나

팔도강산(八道江山)을 역력(曆歷)히 돌아보니

명당정혈(明堂正穴)3 많건마는 제 뉘라서 알아볼고

바로 내려 올 즈음에 은진읍내(恩津邑內) 지나서니

호남(湖南) 오십(五十) 삼주(三洲) 버린4 중(中)에 산수(山水)도 더욱 좋다

여산(礪山)

여산(礪山) 지경(地境) 들어가서 좌우를 살펴보니

북십리(北十里) 복호형(伏虎形)5은 병이판(兵吏判)이 나리로다

면견안(眠犬案)6 대로변(大路邊)에 화개금성(華蓋金星)7 벌였으니

아름다운 저 성신(星辰)이 말굽에 다 녹는다

용지팔년(用之八年)에 초발(初發)8하여 대소과거(大小科擧)를 쉬우리라

그 옆의 비봉형(飛鳳形)9은 오동안(梧桐案)10이 더욱 좋다

청룡안(靑龍案)11에 대천수(大川水)가 남(南)으로 횡류(橫流)12하니

오육척(五六尺)을 파게 되면 삼우석(三隅石)13이 있으리라

주인봉(主人峯)14을 자세히 보니 송씨(宋氏)15의 차지로다

서편(西便)의 익간혈(翼間穴)16은 풍후(豐厚)하고 유덕(有德)하다

삼대(三代) 후에 발복(發福)하여 문무병출(文武并出) 하리로다

남십리(南十里) 반룡농수(盤龍弄水) 술좌(戌坐)에 진파(辰破)로다

부귀(富貴) 속면(速綿)하려니와 자손천억(子孫千億) 하리로다

용장혈줄(龍長穴拙)17하니 향화천년(香火千年) 하리라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수화성(水火姓)이 발복(發福)이라

그 곁에 행주형(行舟形)18은 강담안(江潭案)이 되었으니

부귀(富貴)도 많이 나고 백자천손(百子千孫)하리로다

용호(龍虎)가 회포중(回抱中)에 입석봉(立石峯)이 서(西)에 있다.

함열(咸悅)

그렇저런 구경(求景)하고 함열(咸悅)로 내려오니
 북오리(北五里) 복호형(伏虎形)은 연대부(連代富) 하겠구나
 그 건너 황룡부주(黃龍負舟)19 삼조안(三槽案)20이 아름답다
 대해횡류(大海橫流) 서남(西南)하니 무관대부(無官大富) 하리로다
 십리허(十里許)에 달리는 사슴21이 벼를 잃고 갈 데 몰라
 평원광야(平原廣野) 언덕 위에 돌 하나로 몸을 싸고
 언연이 누웠으니 어느 손안(損眼)이 알아볼고
 혈(穴)을 찾아 쓰게 되면 혈식군자(血食君子)22나리로다
 방원녹초(芳原綠草), 저 뱀은 무엇을 보려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대야(大野)로 내려간다
 그 앞에 장군형(將軍形)23은 격고안(擊鼓案)24이 더욱 좋다
 반월형(半月形)25과 오공형(蜈蚣形)은 보기도 좋거니와
 속발부귀(速發富貴)26하여 문무삼대(文武三代) 나리로다
 용두(龍頭) 밑에 늙은 중27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주인봉(主人峯) 살펴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임자(任子)로다
 진산(珍山)
 그 길로 넘어서니 진산(玠山)이 여기로다
 동편(東便)에 천마형(天馬形)28은 백호안대(白虎案垓)가 말 없어라29
 혈(穴)이야 좋건마는 천인(賤人)의 땅30이로다
 그밖에 금채형(金釵形)31은 옥소봉(玉梳峯)32이 분명하다
 혈재굴중(穴在窟中)33 하였으니 알아보기 어려워라
 그 위에 숨은 누운 소34는 경전안(耕田案)35이 되었구나
 사면(四面)에 물이 나니 재혈(裁穴)36하기 어렵구나
 혈재굴중(穴在窟中)하니 악마기적(躍馬奇敵)37이 보기 좋다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오대부귀(五代富貴) 있었구나
 옥계대(玉溪垓) 갈(渴)한 용(龍)38이 물을 보고 내려온다
 안심산(安心山)39 하(下) 내려오니 양택(陽宅)40하나 숨었구나
 오성(五姓)이 단발(但發)하여 수백대(數百代) 가기(家基)로다
 잘못 찾아 살게 되면41 계집 잃고 패가(敗家)하리
 고산(高山)
 고산지경(高山地境) 다다르니 팔대혈(八大穴)42이 분명(分明)하다
 제일독서(第一讀書) 선인(仙人)이 옥책안(玉冊案)43 정대성(正大星)에
 혈재상취음작(穴在上聚陰作)44하니 알아보기 쉬우리라
 제이(第二) 갈룡음수(渴龍飲水) 대수(大水)가 횡류(橫流)하니
 전태산(前泰山) 후대로(後大路)에 수전현무(水纏玄武) 하였으니
 겸출대부(兼出大富) 하려니와 일대광인(一代狂人)45 못 범하리
 제삼(第三)에 행주형(行舟形)은 간수(艮水)가 귀을(故乙)하니46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칠대한림(七代翰林) 나리로다

혈오척하(穴五尺下) 물 있거든 이석엄수(以石掩水)47 하여 써라
 제사(第四) 주마탈안(走馬脫鞍)48 대천(大川)이 옆에 있다
 반룡(盤龍)49 복호(伏虎) 양대혈(兩大穴) 양택(陽宅)으로 생겼구나
 문무과(文武科) 대대(代代)나고 천하대부(天下大富) 하리로다
 건해맥(乾亥脉)50 백리평야(百里平野) 오도내(五道內) 제일(第一)이라
 금산(錦山)
 금산(錦山) 동이십리(東二十里)에 달리는 말이 안장을 벗고
 뚜벅뚜벅 내려와서 물을 보고 옆졌으니
 만일 얻게 되면 명현재사(名賢才士)51 나리로다
 삼사척하(三四尺下) 마제석(馬蹄石)52은 무가지보(無價之寶)53 되리로다
 좌득파(坐得破)54를 찾았거든 천상운괘(天上遯卦) 해득(解得)55하여
 사장봉(師丈峯) 독서형(讀書形)은 백반석(白盤石)이 나리로다
 동남편(東南便) 수리허(數里許)에 금용형(金龍形) 금오형(金鰲形)과
 선인창가(仙人唱歌) 비봉거소(飛鳳故巢) 오동산(梧桐山)에 모두 있다
 좌(坐)를 찾으려 하거든 수구금성(水口金星)56 보아서라
 임피(臨陂)
 임피(臨陂) 지경(地境) 넘어져서 술산형체(戌山形体) 바라보니
 사십리(四十里)를 오는 용(龍)이 절절(節節)이 기복(起伏)하여
 해십절(亥十節)57 계오절(癸五節)58에 신술(辛戌)59로 과협(過峽)60하고
 복종금성(伏鐘金星) 세웠으니61 천하대지(天下大地)가 이 아닌가
 임강(壬坎)62으로 입수(入首)63하여 양래음작(陽來陰作)64 하였구나
 간병득(艮丙得) 정수구(丁水口)65에 삼태칠성(三台七星) 벌였으니
 만일에 얻어 쓰면 부귀무쌍(富貴無雙)하리로다
 간병(艮丙)이 상망(相望)하고 건곤(乾坤)66이 병립(並立)하니
 자오(子午)67가 원수(遠數)하니 만세영화(萬世榮華) 하오리라
 주인봉(主人峯) 살펴보니 수토성(水土姓)의 물(物)이로다
 거지성명(居地姓名) 알자하면 화뢰서합(火雷噬嗑)68 해득(解得)하소
 전안산(前案山) 백여리(百餘里)에 사산(四山)이 폭주(輻湊)69 하였으니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니 호남(湖南)의 수대지(首大地)라
 육척하(六尺下) 석함중(石函中)에 사백팔자(四百八字)70 결록(訣錄)있어
 자손복록(子孫福祿) 벌였으니 적선하인(積善何人)71 얻을 소냐
 팔형제(八兄弟)가 동방급제(同榜及第) 명만일국(名滿一國)하리로다
 그릇 재혈(裁穴)하게 되면72 당대멸망(當代滅亡) 못 면(免)하리
 흥탄(歆歎)을 불사(不巳)하고73 호산(虎山)으로 건너가니
 장군대좌(將軍大坐) 복호형(伏虎形)은 양대혈(兩大穴)이 더욱 좋다
 혈재굴중(穴在窟中)74 하였으니 알기도 쉬우리라
 그 사이에 십육혈(十六穴)은 다 말하기 어렵도다
 옥구(沃溝)

옥구(沃溝)로 넘어서니 집 찾는 저 봉황은
 오동지(梧桐枝) 어디두고 지극간(枳棘間)에 왕래(往來)하니
 당대(當代)에 속발(速發)하여 수십대(數十代) 가리로다
 주인(主人)을 찾자하니 목복성(木卜姓)의 땅이로다
 매화낙지(梅花落地) 연소형(燕巢形)75은 문천무만(文千武萬) 나것구나
 그 아래 내려오니 고기 잡는 저 노옹(老翁)은
 갈대숲 풀 없는 곳에 독조한강(狢釣寒江) 하는구나
 우연(偶然)히 병(病)이 나서 수삼일(數三日)을 조리(調理)하여
 오성촌(五姓村)에 다다르니 그 안에 김상인(金喪人) 있어
 연장(年長) 칠십(七十) 늙은 몸이 감천지성(感天至誠) 효자(孝子)로다
 자연(自然)히 감동하여 맹호출림(猛虎出林) 가르치니
 용지오년(用之午年)에 초발(初發)하여 대부호화(大富豪華) 하리로다
 날을 잡아 재혈(裁穴)하니 경유좌(庚酉坐)에 을파(乙破)로다76
 만경(萬頃)
 주인(主人)에게 하직하고 만경(萬頃)으로 넘어서니
 동십리(東十里)의 선인무수(仙人舞袖)77 횡금안(橫琴案)78이 분명하다
 혈재평지탄(穴在平地坦)하여 사면(四面)이 비습(卑濕)하니79
 법안(法眼)이 아니거든 알아보기 어려워라
 서이십리(西二十里) 금채형(金釵形)은 삼면수(三面水)가 포조(抱朝)하니80
 해삼절(亥三節) 임입수(壬入水)81에 자좌오향(子坐午向)82에 당문파(當門破)라
 거지성명(居地姓名) 짐작하니 산수진괘(山水震卦)83 정녕(丁宇)하다
 낭월산(郎月山) 일지맥(一枝脉)에 황사취함(黃巳聚舍) 생겼으니
 기암(奇岩)은 재후(在後)하고 대로(大路)는 재전(在前) 하였구나
 이 산혈(山穴)을 찾았거든 화개금성(華蓋金星) 수삼절(數三節)에
 축간(丑艮) 박수(剝搜) 간입수(艮入首)84에 정수귀술(丁水啟戌)하는구나85
 만일에 얻어 쓰면 금옥만상(金玉滿箱) 다언(多彦)하리
 목산감괘(木山坎卦)86 해득(解得)하니 금성인(金星人)이 주인(主人)이라
 대해변(大海邊)에 갈마음수(渴馬飲水) 사백여년(四百餘年) 천기(天基)로다
 그 곁에 선인망해(仙人望海) 알아볼 이 누 있을고
 장군치하(將軍峙下) 대좌형(大坐形)은 부귀쌍전(富貴雙全)하것구나
 문무과(文武科) 이십중(二十中)에 대장일인(大將一人) 나니라
 기고병기(旗鼓兵器)하여 나립(羅立)하여87 해중(海中)에서 버렸으며
 혈재석산(穴在石山)이 미와처(微窩處)88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볼고
 삼사척(三四尺)을 파게 되면 반석(盤石) 아래 쌍리(雙鯉)로다
 혈을 얻어 쓰게 되면 전후처(前後妻)를 다 죽이고
 독자(獅子)로 발복하여 백자천손(百子千孫)하리로다
 상두산(象頭山) 넘어서니 김제읍내(金堤邑內)가 불원(不遠)하다
 김제(金堤)

용천동하(龍泉洞下) 비룡형(飛龍形) 오운안(五雲案)89이 다정(多情)하다
 혈(穴)바닥을 구경하니 기기묘묘(奇奇妙妙) 하였어라
 좌편(左便)에는 적석(赤石)이요 우편(右便)에는 백석(白石)이라
 관(冠)같이 놓인 돌을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사십일년(四十一年) 초발(初發)하여 대대영화(代代榮華)하리라
 주인봉(主人峯)을 바라보니 대주지물(待主之物)90 정녕(丁宇)하다
 오룡봉하(五龍峯下) 행주형(行舟形)은 대강(大江)이 안(案)이로다
 간병(艮丙)이 통달(通達)하여 손신(巽辛)91이 특립(特立)하니
 영호남녀(英豪92男女) 대대(代代)나서 명만천하(名에滿天下) 더욱 좋다
 을진쌍행(乙辰雙行)93 회두(回頭)하여 간좌원(艮坐原)이 당문(當門)되니94
 북남충효(卜男忠孝) 부귀(富貴)는 대부핍절(代不乏絕)95하리로다
 서산하(西山下) 석척혈(石擲穴)96은 신부명양(身富名揚)97 대대(代代)하리
 남십리(南十里) 대강변(大江邊)에 자웅삼혈(雌雄三穴) 또 있구나
 동호변(東湖邊)의 사대혈(四大穴)은 주인 찾아 가르치고98
 그 아래 봉황형(鳳凰形)은 삼회구회(三回九回)99하였으니
 대기(大基)로 마련하여 수백대(數百代)가 오리라
 현토동(玄土洞)의 사룡혈(死龍穴)100은 당문대발(當門大發) 뿐이로다
 익산(益山)
 이 날로 차령(車嶺) 넘어 익산(益山)으로 작로(作路)하니
 평원광야(平原廣野) 언덕 위에 갈록분야(渴鹿奔野)101 너는 어이
 독산(積山)을 바라보고 소리없이 숨었나요
 단산하(單山下) 독룡형(狻龍形)에 명령계사(螟蛉繼祀)102 하겠구나
 서십리(西十里) 행주형(行舟形)은 문과(文科) 오대(五代) 나리로다
 그 밑에 삼룡희수(三龍戲水)103 간수(澗水)를 앞에 두고
 입석(立石)을 의지하여 자는 듯이 숨었구나
 금산항괘(金山恒卦)104 이것 이라 칠대문과(七代文科) 하리로다
 운위동(雲胃洞)의 장군지일(將軍枝劔)은 혈재전상(穴在田上)105 하였구나
 용호단단(龍虎但斷) 야중독립(野中豨立)106 그 뉘라서 알아보리
 삼안봉(三案峯) 돌아드니 귀룡은산(故龍隱山) 더욱 좋다
 수성행룡(水星行龍)107 십이절(十二絕)에 낙재평지(落在平地) 하였으니
 문인재사(文人才士) 대대(代代) 나고 명다군자(名器君子)나리로다
 전주(全州)
 그리저리 구경(求景)하고 전주(全州) 지경(地境) 들어서니
 상제봉조(上帝奉朝)108 일대혈(一大穴)은 부래중화(浮來中華)109하였도다
 용사중(龍四重)110 호삼중(虎三重)에 전후(前後) 원근(遠近) 옹위(擁圍)하니
 이 혈(穴)을 쓰게 되면 오대(五代)만에 군왕(君王)나리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이씨천년(李氏千年)111 분명하다
 경입절(庚入節) 태십절(兌十節)112에 병오룡(丙午龍) 되었으니

독전사대(獮傳四代)한 후에 구중궁궐(九重宮闕) 차지(次持)하리
 손입수(巽入首) 사좌원(巳坐原)113에 간수(艮水)가 귀거(故去) 하니114
 백자천손(白子千孫) 하는 중(中)에 도집국권(都集國權)115 하리로다
 그곳에서 추술(推術)116하니 완산(完山)으로 근본(根本) 삼고
 인황산하(仁皇山下)117 승정(昇定)하여 아국주장(我國主張)118 되오리라
 동(東)으로 건너가니 용지산(龍止山)이 여기로다
 자기목성(紫氣木星)119 진좌혈(辰坐穴)120은 장군형(將軍形)이 생겼으니
 만산(萬山)이 공조(拱朝)121하고 백천(百川)이 벽주(湍湊)하니
 만세향대(萬歲香大)122 하려니와 봉악(峯岳)이 은면(隱面)하고123
 절절(節節)이 대살(帶殺)하니124 실전(失傳)125이 염려(念慮)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화성(火姓)의 땅이로다
 유산하(柳山下) 와우형(臥牛形)은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다126
 양택(陽宅)은 축좌(丑坐)하고127 음택(陰宅)은 간좌(艮坐)128하소
 남고사(南高寺)129 서일록(西一麓)에 보검출갑(寶劍出甲) 그 누가 알리
 병룡(並龍) 십이절(十二節)에 오백년(五百年)이 통태(通泰)하다
 내외손(內外孫)이 구발(俱發)하여 이십팔대(二十八代)130 가리로다
 남록(南麓)에 금반형(金盤形)131은 용산경(龍山頃)에 생겼구나
 인사옥대(印砂玉帶)132 앞에 있고 화개쌍산(華蓋雙傘) 안(案)이로다
 무흠대지(無欠大地)133로다 사람마다 얻을소나
 해입수(亥入首) 임좌원(壬坐原)에 갑묘수(甲卯水)가 곤(坤)에 가니134
 삼태안(三台案)만 못하여도 육경(六卿)은 간간(間間)이 나리로다
 주인(主人)을 자세히 보니 화성(火姓)이 분명하다
 비아동(飛鴉洞) 내려가니 비아상화(飛鴉相和)135 하는구나
 태봉룡(胎峯龍) 찾아가서 형체(形體)를 자세히 보니
 동쪽으로는 혈(穴)이 없고 북쪽으로는 비봉(飛鳳)이라
 주회십리(周回十里) 역수맥(逆水脈)에136 좌우선국(左右旋局) 진결(眞結)하여137
 묘제(印帝)가 재정(在丁)하니 구대삼공(九代三公) 완연(完然)하다
 어찌 아니 기묘(奇妙)하리 이대후인(以待後人) 하는구나
 장파사(長破寺)에 유숙(留宿)하고 반룡혈형(盤龍穴形) 굽어보니
 역수(逆水)로 결국(結局)138 하였으니 일대승상(一代丞相) 무후(無後)하리
 벽송사(碧松寺) 전후국(前後局)은 병화불입(兵火不入)139 하리로다
 금구(金溝)
 기하(其下)에 사자형(獅子形)은 상혈(上穴)로 제등(齊等)한다
 서록(西麓)에 십팔혈(十八穴)은 흠패(欠敗)없이 평평(平平)하다
 금구(金溝)로 내려와서 두루 다 구경하고
 금산하(金山下)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은 절절(節節)이 기묘(奇妙)하다
 동십리(東十里) 서봉두(西峯頭)에 양택(陽宅)이 더욱 좋다
 용호(龍虎)가 중중(重重)하여 전천(前川)이 회포하며140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여 동고서저(東高西低)하였으니
 대부(大富)도 하려니와 문과일인(文科一人) 백화삼대(白花三代)141
 음달(淫達)로 안(案)을 하면 성패(成敗)가 비상(非常)하다
 삼태(三台)142로 안(案)을 하고 수구(水口)로 입석(立石)하면
 묘산(印傘)도 불절(不絕)하고 부귀(富貴)도 장원(長遠)하리
 서남월령(西南越峯) 옥녀형(玉女形)은 용장호단(龍長虎短) 하였구나
 명당이 현출(現出)하고 대천(大川)이 남류(南流)하니
 용요(龍腰)에 대로(大路)나고143 호두(虎頭)가 곧추되면144
 백화일인(白花一人) 날 것이오 오대문과(五代文科) 하리로다
 거지성관(居地姓貫) 보자하니 수토산(水土山)에 병화(並火)로다
 서십리(西十里) 황산하(黃山下)에 와우형(臥牛形)이 기묘(奇妙)하다
 동고북저(東高北低)하여 용호(龍虎)가 회포(回抱)하며
 혈전수(穴前水)가 서(西)로 가니 임두수(淋頭水)145를 못 피하리
 백화(白花) 삼대(三代)하려니와 문과대부(文科大富)하리로다
 서십리(西十里)에 회룡은산(回龍隱山)은 양택(陽宅)으로 생겼도다
 대로(大路)가 남(南)에 있고 용호(龍虎)가 중첩(重疊)하니
 부귀(富貴)도 하려니와 자손(多孫)도 많으리라
 불원(不遠)한 동령변(東嶺邊)146에 부국(富局)이 되었구나
 무과(武科) 삼인(三人)이 날 것이오 천하장사(天下壯士) 나리로다
 동토성(東土星)에 오공형(蜈蚣形)147은 오인안(蜈蚣案)이 생겼으니
 백화(白花) 이인(二人)에 문과(文科) 삼인(三人) 근대(近代) 부귀(富貴) 나리로다
 그 중에 운중반룡(雲中盤龍) 용호(龍虎) 회포(回抱) 하였구나
 문무겸전(文武兼全) 수백대(數百代)에 위치(位至) 삼품(三品)148 하리로다
 대로과(大路過)에 주장복망(走獐伏網)149 백자천손(百子千孫) 호부(豪富)하리
 태인(泰仁)

그 길로 내려와서 태인(泰仁) 지경(地境) 들어서니
 남십리(南十里) 삼룡농주(三龍弄珠) 내세(來勢)가 방원(方圓)150 하였도다
 용호(龍虎)가 회포(回抱)하여 안삼중(案三重)이 되었으니151
 무과칠대(武科七代) 진사(進士)하고 천하거부(天下巨富)나리로다
 동십리(東十里) 복호형(伏虎形)은 토산(土山) 가인(家人) 정녕(丁宇)하다
 손신(巽辛)이 특립(特立)하여152 병오정(丙午丁)과 상대(相對)하니153
 근출문과(近出文科) 하려니와 용장호단(龍長虎短) 한(恨)이로다
 혈전(穴前)의 원천수(元泉水)는 여천지(與天地)로 해망(偕亡)하리154
 반룡(盤龍) 비룡(飛龍) 양대맥(兩大脉)이 상망지(相望地)에 숨었구나
 대개장(大開帳) 주산(主山)위에 삼종석(三種石) 되었으니
 삼대(三代)후에 무과(武科)나고 오대(五代)후에 문과(文科)나리
 혈(穴)을 보고 왕자(任子)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주인(主人)이라
 오삼절(午三節) 정입수(丁入首)에 인수(印水) 귀술(啟戌)하는구나

대야과(大野過) 선인등공(仙人騰空) 김제(金堤)가 불원(不遠)하다
 주삼봉(主三峯) 전대천(前大川)에 이십칠인(二十七人)이 입조(入朝)하리라
 상두산하(象斗山下) 십리외(十里外)에 회룡(回龍) 반룡(盤龍) 양대혈(兩大穴)은
 주산(主山) 대천(大川) 중중(重重)하여 음양택(陰陽宅) 겸전(兼全)하니
 대장(大將) 일인(一人) 대각(臺閣) 오인(五人)은 음택(陰宅)에서 나리로다
 이십일인(二十一人) 대소과(大小科)는 양택(陽宅)에서 나리로다
 맹인(盲人) 일인(一人)이 나면 명만일국(名滿一國)하리로다
 주작봉(朱雀峯)이 남(南)에 있고 고목석(瞽目石)이 동(東)에 있다
 주인을 찾자하니 수토성(水土姓)이 주인(主人)이라
 대야동(大耶洞) 약마주철(躍馬走徹) 대천(大川)이 횡류(橫流)하여
 천기(天基)로 생겼으니 정토성(正土星)이 원후(圓厚)로다
 주산(主山) 삼사절(三四節)에 좌우(左右)가 비습(卑濕)하니
 찾기가 산란(散亂)커든 마상평(馬上坪)을 자세히 보소
 굴치(屈峙)에 운중반룡(雲中盤龍) 천혈(天穴)로 생겼구나
 석중토혈(石中土穴) 자백중(紫白中)155에 호복석(虎伏石)이 있으면
 삼대문과(三代文科) 칠대한림(七代翰林) 부귀호화(富貴豪華) 할 것이니
 혈중(穴中) 돌았거든 부디 부디 상(傷)치 마소
 천장지비(天藏地秘) 하였으니 이대후인(以待後人) 하는구나
 불원지(不遠地)에 회룡은산(回龍隱山)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한다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여 대천(大川)으로 흘러가니
 주산(主山) 일절(一節) 횡작(橫作)한 데 좌우(左右) 삼암(三峯) 숨었도다
 좌산(中山) 상경(上頃) 올라서서 전후좌우(前後左右) 살펴보니
 그 중(中)에 문장형(文章形)은 나를 보고 반기는 듯
 혈재상취(穴在上聚)156하여 은은(隱隱)히 숨었도다
 그 뒤라서 알아볼고 경내(境內)의 숨은 혈은
 간맥(良脈) 하나 추려 잡고157 수락동(水落洞)에 내려가니
 노봉귀소(老鳳啟巢) 너는 어이 혈후합금(穴後合襟)158 하였구나
 혈전(穴前)에 큰 못 있어 대수(大水)를 저축(貯畜)하니
 초패(初敗)159는 있으나 부귀장원(富貴長遠)하리로다
 혈재구중(穴在鉤中)160 하였으니 알기가 어려워라
 적덕수선(積德修善)한 후(後)에 이 혈(穴)을 얻으리라
 남방(南方)에 권렴사(捲簾砂)161는 오년내(五年內)에 해(害)가 되나
 그 후(後)에 부귀(富貴)하여 만세향화(萬世香火) 하리로다
 참 주인(主人)이 아니면 일년내(一年內)에 이장(移葬)하리
 간십절(艮十節) 을삼절(乙三節)에 갑묘(甲卯)로 박환(剝換)하여162
 간입수(艮入首) 신술파(辛戌破)163에 백대장구(百代長久) 하리로다
 흥탄(欽歎)을 불사(不已)하고 칠보산(七寶山)을 올라서서
 삼십리(三十里) 역수맥(逆水脈)에 팔대혈(八大穴)이 맺혔구나

그 중(中) 삼대혈(三大穴)은 수토성(水土姓)이 주인이라
 그 아래에 전익형(展翊形)은 양택(陽宅)이 되었구나
 대소과(大小科) 황근면(黃近綿)하고 대부자손(大富子孫) 대대(代代)나리
 만일에 그르치면 음란풍성(淫亂風聲)164 가히 없다
 그 아래를 자세히 보니 목욕수(沐浴水) 탓이로다165
 남(南)으로 건너가서 제좌봉(帝坐峯) 올라서니
 군신봉조(君臣奉朝) 일대혈(一大穴)은 용호(龍虎)없이 생겼구나
 배사(拜祀)받은 재후(在後)하며 삼태봉(三台奉)은 옆에 놓고
 연연(焉然)히 앉았으니 알아볼 이 그 누군가
 주안(走案)이 중중(重重)하여 천문(天門)이 광활(廣闊)하니
 보기도 쉽다만은 주인(主人)없이 못 주겠다
 대간룡(大幹龍) 가는 맥(脉)166이 횡비(橫飛)로 돌아서니
 경유좌(庚酉坐)에 을진파(乙辰破)는 출장입상(出將入相) 하겠구나
 남(南)으로 내려와서 좌우(左右)를 둘러보니
 장고산하(長鼓山下) 장군대좌(將軍大坐) 혈재굴중(穴在窟中) 하였으니
 투구봉은 재북(在北)하고 참수석(斬首石)은 재서(在西)한다
 갑묘맥(甲卯脉)에 곤신수(坤辛水)는 속발장원(速發長遠)하리로다
 어옹산망(漁翁散網) 백운전익(白雲展翼) 양택(陽宅)으로 생겼구나
 도로 산정(山頂)으로 올라와서 잠간 보니
 그 외(外)에 남은 혈(穴)은 십이혈(十二穴)이 또 있도다
 간십절(艮十節) 간입수(艮入首)에 해수(亥水)가 귀정(啟丁)하니
 양택(陽宅)으로 말할진대 오도내(五道內)에 제일(第一)이라
 오성(五性) 구발(俱發)하여 사조정(四朝廷) 지내리라
 고부(古阜)
 그 길로 절을 넘어 고부(古阜)로 걸어와서
 선인무수(仙人舞袖) 굽어보니 불빈불부(不貧不富) 하리로다
 정토사(正土寺) 상봉(上峯)에 옥녀단좌(玉女端坐) 기묘(奇妙)하다
 삼세한림(三世翰林) 칠세문과(七世文科) 대부핍절(代不乏絕)167를 하겠구나
 남팔성(南八星) 금채형(金釵形)은 충천목성(沖天木星)168 놓았으니
 혈락중말(穴落中末)하여 지엽(枝葉)도 하도 많다169
 자손이 만당(滿堂)하여 영화(榮華)가 무수(無數)하리
 좌승산(坐升山)을 올라서서 남록(南麓)을 굽어보니
 백소대(白小帶)에 있는 혈(形)이 삼대(三代)가기 어렵도다
 기하(其下)에 선인포전(仙人鋪展)170 자손천억(子孫千億)하겠구나
 망주(沔洲) 방장(方丈) 조산(祖山)되고 봉래삼산(蓬萊三山) 안(案)이 되니
 만일에 찾아들면 문장재사(文章才士) 나리로다
 이 산주인(山主人) 찾아보니 화성(火姓)이 완연(完然)하다
 안산하(安山下)에 갈룡음수(渴龍飲水)는 토산곤괘(土山坤卦)171가 분명하다

사오척(四五尺)에 물이 있거든 이석엄수(以石掩水)하여 써라
 사천동(四千洞)의 노룡탈해(老龍脫海) 양수(兩水) 합류(合流) 동귀(東故)하니
 연대문과(連代文科) 할 것이요 부무적국(富無敵國)172 하오리라
 건곤(乾坤)173이 동행(同行)하여 과부가 불절(不絕)하겠구나
 임강룡(壬坎龍)에 갑묘(甲卯) 회두(回頭)174 혈(穴)하나 생겼구나
 문과이인(文科二人) 백화삼인(白花三人) 목복성(木卜姓)이 주인(主人)이라
 부안(扶安)
 사치(獅峙)를 넘어서서 부안(扶安) 지경(地境) 다다르니
 동구리(東九里) 자봉포란(雌鳳抱卵)175 무흠대지(無欠大地)176 되었구나
 혈전(穴前)에 있는 물이 용(龍)을 싸고 현류(玄流)하니
 수토(水土)에 소축괘(小畜卦)177라 주인 알기 쉬우리라
 서매동(西梅洞)에 용마입구(龍馬入廐) 옥대안(玉勒案)이 분명하다
 경태산(庚兌山) 을진수(乙辰水)178는 문과부절(文科不絕) 하리로다
 남칠도(南七島) 건너가니 회룡은산(回龍隱山)179 더욱 좋다
 그 곁에 반룡형(盤龍形)은 우도수구(右道水口) 관달(關達)하여
 기외(其外) 삼봉(三峯)은 품자(品字)되어 대해중(大海中)에 특립(特立)하니
 삼대근시(三代近侍) 지난 후에 맹인(盲人) 일대(一代)나리로다
 요뇌천재(凹腦天載) 경혈(鉗穴) 상(上)에 와정석(臥井石) 탓이로다
 그 주인 찾자하면 수토손괘(水土巽卦) 해득(解得)하소
 서오리(西五里)의 비룡농주(飛龍弄珠) 서북대해(西北大海) 되었구나
 안삼주(安三珠)가 특립(特立)하여 해수상(海水上)에 원립(圓立)하니
 주산(主山) 후(後)에 대로(大路) 있어 좌우(左右)가 천기(天基)로다
 혈(穴)을 찾기 어렵거든 금산간괘(金山艮卦)180 알아보소
 문과(文科) 삼대(三代) 연출(連出)하고 일대왕비(一代王妣) 나리로다
 그 위에 용사취회(龍巳聚會)181 용호회포(龍虎回抱)182하였구나
 입수성봉(入首星峯) 자세히 보니 대옥금성(帶玉金星)이 특립(特立)하니
 낙락삼절(落落三節)183 하는 중(中)에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혈하(穴下)에 정화수(井花水)는 삼성(三星)을 바로 흘러
 서산대해(西山大海)로 들어가니 목산태괘(木山兌卦)184 알기 쉽다
 삼대(三代)를 독자(獨子) 되온 후에 사대(四代)만에 번연(繁連)하여
 삼대문과(三代文科)에 일대철마(一代驥馬) 십이대(十二代) 대부(大富)하리
 혈중(穴中)에 물 있거든 보토(補土)하고 장사(葬事)하소
 남십리(南十里) 회룡은산(回龍隱山) 수요용두(水繞龍案)185 하는구나
 갑묘맥(甲卯脉) 혈성(穴星)186되어 삼사봉(三四峯)이 첨원(尖圓)하여
 수구(水口) 연봉만두(連峰巒頭)되고 횡립(橫立)하여 팔절(八節) 막았으니
 삼성맥(三星脉)이 혈성(穴星)되어 천자(川字)로 벌려있다
 내외손(內外孫)이 번창(繁昌)하여 도집국권(都執國權)187 하리로다
 일대봉군(一代封君) 이대문과(二代文科) 서손(庶孫)이 발달(發達)하리

기(其) 연고(緣故)를 묻거들면 좌향(坐向)에 있느리라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임자(任子)로다
 노적봉하(露積峯下) 양대혈(兩大穴)은 연대부명(連代富名) 부절(不絶)하리
 동남간(東南間) 삼대혈(三大穴)은 비구(非久)에 주인 나리
 남가치(南歌峙)188 북고혈(北鼓穴)은 찾기가 어려워라
 서남십리(西南十里) 동정변(東井邊)189에 노서하전(老鼠下田) 기묘(奇妙)하다
 횡룡형(橫龍形)과 자원음수(雌猿飲水) 대대(代代) 근신(近臣)나리로다
 그 아래에 삼룡농주(三龍弄珠) 수원(水原)이 방회(方回)하여
 주산(珠山)으로 돌아가니 무부지부(無富之富)190 나리로다
 삼산(三山)에 와우형(臥牛形)은 청초안(靑艸案)이 다정하다
 대와(大窩) 중(中)에 미돌혈(微突穴)은 만년향화(万年香火)191 부절하리
 산진수회(山盡水回)하는 곳에 혈형정중(穴形正中)하였구나
 호치과협(胡峙過峽)192 굽어보니 이십사혈(二十四穴) 되었으니
 혈시대소(穴之大小)을 말하여 무엇하리
 상아치(象牙峙)193 옥녀등공(玉女騰空) 산상개국(山上開局)194 하였구나
 명당(明堂)이 광활하여 혈재상정(穴在上頂) 하였으니
 오대(五代)를 독시(獨侍)하여 차차(次次) 발복(發福)하리로다
 문과장원(文科壯元)할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하리로다
 월명암(月明庵) 서록하(西麓下)에 장군탈갑망진형(將軍脫甲望陳形)195
 만험중(萬險中)에 일기맥(一奇脉)은196 이 산중(山中)에 주혈(主穴)이라
 병선(兵仙) 이인(二人)이 날것이요 동방갑족(東方甲族)197되리로다
 기맥(氣脉)이 탈족(脫足)하니198 부귀(富貴) 불지(不至) 십오대(十五代)라
 주인(主人)을 바라보니 금수성(金水姓)이 완연하다
 임입수(壬入首) 자좌원(子坐原)199 그 뒤라서 알아볼고
 음래양거(陰來陽去) 하였으니 기두(旗頭)로 몸을 싸니
 혈형(穴形)이 은괴(隱恠)하여 보기가 어려워라
 초과협(初過峽) 선인혈(仙人穴)은 자손천억(子孫千億) 하리로다
 중간(中間)에 실전(失傳) 할 것이니 취(取)할 것은 없겠구나
 그 아래 양택(陽宅)나면 순결지지(純結之地) 되리로다
 북령(北嶺)에 옥녀창가(玉女唱歌) 절절(節節)이 기묘(奇妙)하다
 경유맥(庚酉脉) 사절하(四節下)에 간수귀을(艮水故乙) 하는구나
 문과칠대(文科七代) 육경일대(六卿一代) 화성(火姓)이 주인(主人)이라
 태금정체(兌金正體) 알면은 혈(穴)보기 쉬우리라
 동산준령(東山峻嶺) 삼사절(三四節)에 비조투림(飛鳥投林) 보기좋다
 그 아래 팔대혈(八大穴)은 주인없어 한이로다
 병암(屏巖) 과협(過峽) 축간맥(丑艮脉) 사대혈(四大穴)이 또 있구나
 쌍선망월(雙仙望月) 운선대(雲仙臺)에 혈락평지(穴落平地) 하였구나
 현무(玄武)가 토설(吐舌)하고200 좌우(左右)가 비습(卑濕)201하여

혈형(穴形)이 추락하니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보리
 주인봉(主人峯)을 바라보니 금수성(金水姓)이 주인이라
 혈심오척(穴深五尺) 합변국(合變局)202에 물 있다고 염려(念慮) 말고 엄석(掩石)하고 쓰소
 남북대간(南北大幹) 십리허(十里許)에 십육혈(十六穴)이 생겼구나
 날날이 말하자니 세속(世俗) 입이 가외(可畏)로다203
 흥덕(興德)
 흥덕(興德)으로 작로(作路)하니 호석(壺石)이 여기로다
 반등산(半登山) 일대맥(一大脉)이 절절(節節)이 기묘하다
 십리맥(十里脉)이 개봉(改鳳)하여 낙재평지(落在平地)하였으니
 굴중(窟中)에 있는 혈(穴)을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볼고
 갑묘십절(甲印十節) 간십절(艮十節)에 감계(坎癸)로 성봉(星峯)204 놓고
 쌍룡추성(雙龍樞星)이 특립(特立)하니 재결태극(再結太極)205 하였으니
 선운(禪雲) 백운(白雲) 양대맥(兩大脉)에 호남대지(湖南大地) 숨었구나
 좌우선인(左右仙人) 춤을 추고 옥호(玉壺)가 뛰는구나
 기고흥장(旗鼓興將) 영송(迎送)하고 운사(雲砂) 나열(羅列) 전후(前後)하니
 적선하인(積善何人) 얻을소냐 자손복록(子孫福祿) 중중(重重) 하다
 병반(瓶盤)을 한 편에 놓고 취한 듯이 돌아서니
 만일 그릇 재혈(裁穴)하면206 대대(代代) 역신(逆臣) 나리로다
 수구한문(水口捍門) 바라보니 일점우산(一點牛山) 새롭도다
 대로(大路)는 앞에 있고 삼태(三台)는 뒤에 있다
 육경봉(六卿峯) 자세히 보니 문천무만(文千武万) 어려울가
 주봉(主峯)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대부(士大夫)의 땅이로다
 화토산(火土山)에 이괘(離卦) 보소 간수(艮水)가 귀술(故戌)하는구나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천재체(天裁體)로 생겼으니
 사대왕비(四代王妣) 칠대한상(七代翰林) 부족(不足) 한 줄 알았어라
 산진수회(山盡水回)하였으니 명현재사(名賢才士) 간출(間出)하고
 복두모홀(幞頭帽笏)207 돌아보니 막상막하(莫上莫下) 하리로다
 세대년기(世代年記) 헤아리니 육십팔대(六十八代) 두 번 되리
 용장혈줄(龍長穴拙)하여 말없이 묻힌 혈(穴)을
 적선수덕(積善修德) 아니하고 예사(例事)로 얻을소냐
 호남(湖南)의 팔대혈(八大穴)에 기중(其中) 보기 어려워라
 이후(以後)에 무식지배(無識之輩) 도두하(到頭下)에 영장(永葬)하여208
 수화염정(水火廉貞)209 못 면(免)하고 당대무후(當代無后) 하리로다
 기암(奇岩)은 좌우(左右)하고 운수(雲水)는 남(南)에 있다
 오척하(五尺下)의 사불석(四佛石)은 비인간지오복(備人間之五福)이라
 자백황토세사중(紫白黃土細砂中)에 석토(石土)이 상친(相親)하리로다
 이 산주인(山主人) 살펴보니 연일인(延日人)의 땅이로다
 그 위의 선인등주(仙人登舟) 한 없이 장구(長久) 하리

합하일린(欲下一鱗)210 일대혈(一大穴)은 백씨지물(白氏之物) 되리로다
 화산여괘(火山旅卦) 이것이라 재심(裁心)하기 어려워라
 동십리(東十里) 반월형(半月形)은 혈재평지(穴在平地)하였구나
 수하사(水下砂)가 만포(滿布)211하여 음사(陰砂)212로 들렀으니
 주인 있어 차지(次持)하면 백자자손(百子子孫)하리라
 정읍(井邑)
 사실치(峙) 넘어서서 정읍(井邑) 지경(地境) 다다르니
 남오리(南五里) 군신동조(君臣東朝) 용무호주(龍無虎走)하는구나
 문과일대(文科一代) 비록 하나 장중조(帳中派)는 무후(無後)하리
 외손(外孫) 삼인(三人) 영귀(榮貴)하여 분묘(墳墓) 수호(守護)하리로다
 정변해(井邊海)에 백운도전익(白雲巖展翼) 상하혈(上下穴)이 분명(分明)하다
 그 아래 천기(天基)나면 수백대(數百代) 장구(長久)하리
 정해남(井海南)에 회룡은산(回龍隱山) 초년패(初年敗)213는 비록 하나
 삼대(三代)를 지나가면 백자자손(百子子孫) 호보(豪富)하고
 대소과급(大小科莚) 있건마는 혈(穴) 찾기가 어렵도다
 동십리(東十里) 반룡(盤龍) 반사(盤巳) 연패다단(年敗多端) 하리로다
 옥백수(玉白水)
 비연출동(飛巖出洞) 갈룡음수(渴龍飲水) 권금성(權金姓)이 구발(俱發)하리
 동북향(東北向) 어옹인망(漁翁引網)214 백화일인(白花一人) 천기(天基)로다
 조령(鳥嶺)를 넘어서니 옥천(玉泉) 복흥(福興) 여기로다
 전후(前後)에 이십사혈(二十四穴)을 날날이 기묘하다
 백산동(栢山東) 중일대맥(中一大脉) 초절하(初節下)에 도등형(巖膝形)이 생겼구나
 양수(兩水) 합류(合流) 대천(大川)되어 동북(東北)으로 동류(同流)하니
 병오정(丙午丁) 삼양봉(三陽峯)이 손신(巽辛) 상대(相對) 특립(特立)하니
 전고후급(前高後急) 색음통양(塞陰通陽)215 장말자손(長末子孫) 창성(昌盛)하리
 십오대(十五代)를 지내도록 부절병부(不絕兵符) 하겠구나
 일절혈하(一節穴下)의 청룡석(靑龍石)은 충효부귀(忠孝富貴)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 자세히 보니 대성(大姓)이 발복(發福)하리
 서정(西頂)에 복호형(伏虎形)은 면구안(眠狗案)이 다정(多情)하다
 동남(東南)으로 전력(轉力)하여 서북방(西北方)이 공조(拱朝)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대부(大富)하고 대소과급(大小科莚) 일인(一人)이라
 이 산주인(山主人) 좌득파(坐得破)216는 상산곤괘(上山坤卦)를 해득(解得)하소
 내장서록(內藏西麓) 자봉포란(雌鳳抱卵) 용호(龍虎)도 회포(回抱)하고
 품(品)은 내수(來水)가 현류(玄流)217 동남(東南)하니 석자천손(石子千孫) 대부(大富)하리
 백화남행(白花南行)218 간성(間成)나고 삼성(三姓) 대발(大發)하리로다
 그 문익간혈(問翼間穴)219은 누대(累代) 흥화(興花) 문과(文科)로다
 남행시(南行時)살220 무수(無數)하고 장상(將相)이 흔히 나리
 속발장원(速發長遠) 무궁(無窮)하고 혈식군자(血食君子)221 간출(間出)하며

산림처사(山林處士) 인락(仁落)하고 대대부절(代代不節)하리로다
 주인성체(主人星體)222 살펴보니 선성(宣姓) 대발(大發) 하겠구나
 백산하(栢山下) 칠절맥(七節脉)에 천마입구(天馬入廐) 더욱 좋다
 건해(乾亥)로 전신(轉身)223하여 음래양작(陰來陽作)224 하였구나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고 당국(當局)이 평포(平鋪)225하니
 칠대한림(七代翰林) 구대장상(九代將相) 명만일국(名滿一國)하리로다
 건입수(乾入首) 당문혈(當門穴)이 만산(萬山)이 공술(拱術)하였으니
 자손복록(子孫福祿) 말할진대 구불가언(口不可言)하리로다
 천마(天馬)는 재후(在後)하고 외양실226은 재전(在前)하다
 충천자기목성(沖天紫氣木星) 정신(情神) 부귀무쌍(富貴無雙)하리로다
 내외손(內外孫)이 구발(俱發)하여 도집병권(都執兵權) 하리로다
 주인(主人)을 자세히 보니 화성(火姓)이 분명(分明)하다
 천장지비(天藏地秘)하였으니 이대후인(以待後人) 하겠구나
 대각산(大角山) 제삼봉하(第三峯下)에 왕자맥(王字脉) 용암상(龍岩上)에
 경태(庚兌)로 개장(開帳)하여 해입수(亥入首) 을방수(乙方水)에
 용호(龍虎)가 회룡(回龍)하고 팔자수(八字水)가 합류(合流)하니
 장군대좌(將軍大坐)하는 중(中)에 전후좌우(前後左右) 진산(陳山)이 되고
 천기(千旗)가 열개(列蓋)하고 만마병(萬馬兵) 내외(內外)에 결진(結陳)하고
 내체산(內體山) 백암산(白岩山)이 전전박환(轉轉剝換)하여
 수구장쇄(水口長鎖)하였으며 복두검인(幞頭劍印) 구비(具備)하니
 만일에 얻었으면 대장자손(大將子孫) 불절(不絕)하리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주인이로다
 서오리(西五里) 반월형(半月形)은 문무겸전(文武兼全)하려니와
 용사(勇士)가 일인(一人)날 것이니 명진타방(名振他方)하리로다
 황앵직류(黃鶯織柳) 이 한 혈(穴)은 부귀(富貴) 장달하리로다
 그 주인(主人)을 바라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얻으리라
 남십리(南十里) 내려오니 회룡은산(回龍隱山) 선인대국(仙人對局)
 용사취회(龍已聚會) 선녀세의(仙女洗衣) 횡수간(橫水間)에 숨었구나
 이 안에 사대혈(四大穴)은 한 사람 땅이로다
 문과(文科)이인(二人) 구대(九代) 진사(進士) 대부(大富) 무적(無敵)하리로다
 동이리(東二里) 갈마음수(渴馬飲水) 천기(天基)로 생겼구나
 백암변(白岩邊)에 옥녀등공(玉女騰空) 창가안(唱歌案)이 분명하다
 외룡(外龍)이 회포(回抱)하여 동북수(東北水)가 귀남(啟南)하니
 백화(白花) 칠인(七人) 날 것이요 장손(長孫)택부(宅富)나리로다
 그 밖에 금반형(金盤形)은 옥극안(玉極案)이 분명하다
 경태(庚兌) 성봉(星峯) 놓고 오정(午丁)으로 회두(回頭)하여
 미입수(未入首) 토성하(土星下)에 남북수(南北水)가 동류(東流)하여
 외호(外虎)가 회포(回抱)하여 자손대부(子孫大富) 백화(白花)로다

성관거지(姓貫居地) 알자하면 화산분괘(火山賁卦) 해득(解得)하소
 금방동(金榜洞)에 들어가니 적(笛)을 부는 저 옥녀(玉女)는
 적암상(赤岩上)에 패좌(狒坐)하여 무엇을 희롱(戲弄)하나
 원맥하(原脉下) 일대혈(一大穴)은 롱장호단(龍長虎短)하였구나
 추월산(秋月山)이 안(案)이 되고 서남수임(西南水臨) 귀북(啟北)하니
 대소과급(大小科筭) 함께 나가 노직(老職)227 이대(二代) 이품(二品)하리
 참으로 진혈(眞穴)을 쓰면 인산불절(印傘不絕) 할 것이라
 병오정(丙午丁)228 독행맥(狒行脉)이 곤신(坤申)229으로 기봉(起峰)하여
 하수사(下水砂)를 망견(望見)하니 역수(逆水)로 회고(回顧)하여
 담양(潭陽)
 담양변(潭陽邊) 석봉(石峯) 하나 세치(勢峙)로 보내두고
 또 한 맥은 목어대(木魚黛)230로 회수구(回水口)를 아니 보며
 술(戌)로 용(龍)이 나니 진혈(眞穴)은 이 맥이라
 삼곡수(三谷水)가 합류(合流)하여 동북(東北)으로 흘러간다
 사룡세(四龍勢)가 이 아닌가 현침혈(懸針穴)이 분명하다
 백자천손(百子千孫)하는 중에 장원랑(壯元郎)이 간간(間間)나고
 목마(木馬)231 부절(不絕)하려니와 혁혁문장(赫赫文章)나리로다
 이 산주인(山主人) 바라보니 대화성(大火姓)이 차지하리
 백암변(白岩邊)의 제삼룡(第三龍)이 암석(岩石)이 기복(起伏)하여
 그 아래 혈(穴)이 되면 비룡등공(飛龍登空) 이것이다
 용호(龍虎)가 돌이 되고 본신(本身)이 하류(下流)하여232
 민산수구(毘山水口) 되었으니 석중토혈(石中土穴) 여기로다
 만일에 얻어쓰면 문무겸전(文武兼全) 하리
 삼대봉군(三代封君) 일대대장(一代大將) 연대(連代) 부귀(富貴)하리로다
 칠척하(七尺下) 황반석(黃盤石)은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충효(忠孝)도 내려니와 문장(文章)도 면면(綿綿)하리
 주인성관(主人姓貫) 찾았거든 수도항괘(水土恒卦) 해득(解得) 하소
 아마도 이 산혈(山穴)은 목성(木性)이 주인(主人)이라
 주장복망(走獐伏網) 창룡출운(蒼龍出雲) 소 없이 생겼구나
 북십리(北十里) 주마탈안(走馬脫鞍) 혈재굴중(穴在窟中) 하였구나
 용지(用之) 육년(六年) 속발(速發)하여 자손도 많이 나고
 대소과거(大小科擧) 날것이니 수구원봉(水口圓峯) 살펴보소
 자좌오향(子坐午向) 당문파(當門破) 산승수뇌(山勝水腦) 더욱 좋다
 주인봉(主人峯) 짐작(斟酌)하니 화성(火姓)이 입장(入葬)하리
 해묘미년(亥卯未年)에 초발(初發)하여 이십팔세(二十八世) 전(傳)하리라
 적성(赤城)으로 내려가니 남오리(南五里) 와룡음수(臥龍飲水)
 오대문과(五代文科) 날 것이요 만세부귀(萬歲富貴)하리로다
 북십리(北十里) 금반형(金盤形)은 운중옥호(雲中玉壺) 완연(完全)하다

옥녀창가(玉女唱歌) 박주형(泊舟形)은 대천변(大川邊)에 잠겼구나
 북쪽으로 돌아보니 아마독유(兒馬狝遊) 기묘(奇妙)하다
 용호(龍虎)가 중중(重重)하고 양수(兩水)가 남류(南流)하여 가니
 석교중(石橋中) 일대혈(一大穴)은 은기(銀器)가 많이 있다
 내지 말고 쓰게 되면 부귀겸전(富貴兼全)하리로다
 만일 내게 되면 다살인명(多殺人命)하리로다
 옥과(玉果)
 옥천동(玉泉洞) 태산(太山) 아래에 갈(渴)한 사슴이 누웠구나
 수구삼라성(水口三羅星)은 귀무쌍출(貴無雙出)하리로다
 삼양봉(三陽峯)이 라립(羅立)하고 손신(巽辛) 상대(相對) 하였으니
 충효부귀(忠孝富貴) 목명(木命)233이는 대대면면(代代綿綿)하리로다
 동십리(東十里) 악마주적(躍馬走敵) 화개금성(華蓋金星) 놓았으니
 알기 쉽고 보기 쉽다 금성(金姓)이 주인(主人)이다
 동호변(東湖邊) 혈진처(穴盡處)에 천기(天基) 하나 생겼구나
 북십리(北十里) 옥호형(玉壺形)은 외산(外山) 중중신천(重重伸天)이라
 문과(文科) 이인(二人) 날 것이오 백화(白花) 일인(一人) 나리로다
 태봉하(台峯下) 복호형(伏虎形)은 면구안(眠狗案)이 마치(馬峙)로다
 신부명양(身富名揚) 하는 날에 토산비괘(土山比卦) 자세보소
 대각산하(大角山下) 오리허(五里許)에 오마작대(五馬作隊) 망목정안(望目井案)에
 용두호장(龍頭虎長) 하는 중에 칠성(七星)이 나립(羅立)하였으니
 겸(鉗)234속에 있는 혈을 알아 볼 이 그 누구인가
 앞에서 두룬 물이 대천(大川)으로 흘러가니
 내착(內窄)하고 외광(外廣)하여 손신경태(巽辛庚兌) 특립(特立)하니
 백화(白花) 이인(二人) 문과(文科)오인(五人) 신자진년(申子辰年) 나졌구나
 칠대한림(七代翰林) 백자천손(百子千孫) 이십육대(二十六代) 근시(近侍)235하리
 동남간(東南間) 고산맥(高山脉)에 진주척지(珍珠擲地) 또 있구나
 해맥(亥脉)으로 결인(結姻)하여 절절(節節)이 혈(穴)이 되니
 축간삼절(丑艮三節) 간입수(艮入首)에 승해쟁계좌(乘亥爭癸坐) 정향(丁向)이라
 십년내(十年內) 등과(登科)하여 삼인(三人) 될것이니
 죽도록 혈(穴)을 찾아 입신양명(立身揚名) 하여라
 수토둔괘(水土遯卦) 되었으니 완산이씨(完山李氏)가 정녕(丁寧)하다
 미산(眉山) 서록(西麓) 노서하전(老鼠下田) 적숙안(積粟案)이 놓였구나
 감계건해(坎癸乾亥) 삼절하(三節下)에 양횡안(兩橫案)이 되었으니
 수구(水口) 중첩(重疊) 동류수(東流水)는 칠대(七代) 부귀(富貴)나리로다
 광랑산하(廣浪山下) 노승예불(老僧禮佛) 천금사(千金砂)가 중첩(重疊)하고
 용호(龍虎)가 중중(重重) 동류수(東流水)는 자서류동(自西流東) 하는구나
 이대남행(二代南行) 절도사(節道使)며 고명군자(高名君子)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연일정씨(延日鄭氏) 아니런가

운산(雲山) 남록(南麓) 선인독서(仙賓讀書) 쌍옥안(雙玉案) 아미안(蛾蟬案)에
 천기(天基)로 생겼으니 자좌(子坐)에 당문(當門)이라
 이 곳 자손(子孫) 살인(殺人)하며 구대상서(九代尙書)간데 없다
 서이십리(西二十里) 주장봉망(走獐逢網) 동고서비(東高西備) 통달(通達)하니
 자서류동(自西流東)하는 물이 불빈불부(不貧不富) 백자천손(百子千孫)
 미산하(眉山下) 지당처(地堂處)에 자웅삼혈(雌雄三穴) 기묘(奇妙)하다
 이십삼절(二十三節) 개장(開帳)하여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고
 삼정(三頂) 손쟁(巽爭) 특립(特立)하며 사정사유(四正四維)236벌였으니
 오대승상(五代丞相) 이대명현(二代名賢) 종묘배향(宗廟配享)하리로다
 護流(護流)는 無流(無流)는 하니 미친 병이 나리로다
 간수귀손(艮水故巽)하여 경오사(庚午砂)와 상충(相沖)하니
 선출무신(先出武臣)한 발원(發員)237하여 차차(次次) 발응(發應) 하겠구나
 방응(放應) 비룡(飛龍) 양대혈(兩大穴) 일령간(一嶺間)에 맞었구나
 일혈(一穴)은 유(乳)요 또 십혈(十穴)은 와(窩) 룡방회안(竜方回案)238 하였구나
 자손번창(子孫繁昌) 고사(姑捨)하고 여자식(女子息)이 음행(淫行)하리
 미산(眉山) 남록(南麓) 반월형(半月形)은 천기(天基)로 생겼구나
 횡재도 간간(間間)나고 인물(人物)도 풍성(豐成)하리
 득파성관(得破姓貫) 알자하면 목산함괘(木山咸卦) 살펴보소
 북사십리(北四十里) 옥녀직금(玉女織錦) 용장이지(龍長二枝)하는 중에
 사색수구(四塞水口)하였으니 혈재유두(穴在乳頭)하였구나
 토형(土形)이면 속발(速發)하고 석병(石屏)이면 지발(遲發)하리
 안산(案山)이 만궁체(灣弓體)로 사향(四向)을 둘렀으니
 자손은 많치 않으되 문무겸전(文武兼全)하리로다
 과협하(過峽下) 연소형(燕巢形)은 동량안(棟樑案)이 다정하다
 대로상(大路上) 삼종석(三鐘石)은 종출인물(鐘出人物) 일인이라
 백암(白岩) 북십리외(北十里外)에 대혈(大穴)이 숨었구나
 제일(第一) 와우형(臥牛形)은 복간(腹間)에 혈(穴)이 있고
 제이(第二) 반룡형(盤龍形)은 혈재이상(穴在耳上)하였으며
 제삼(第三) 약마주적(躍馬走敵) 혈재와중(穴在窩中)하였구나
 쌍귀추성(雙鬼樞星)239 태극하(太極下)에 을수(乙水)가 임래(臨來)로다
 이 산주인(山主人) 찾자하면 적선지인(積善之人) 그 누구인가
 제사(第四) 무공단립(武公端立) 미돌중(微突中)에 작혈(作穴)하고
 제오(第五) 풍취나대(風吹羅帶) 수사간(垂絲間)에 혈(穴)이 있다
 서십리(西十里) 구룡쟁주(九龍爭珠) 이룡(二龍)은 재남(在南)하고
 이룡(二龍)은 재서(在西)하며 사룡(四龍)은 재동(在東)이라
 북주(北珠)는 평탄석(平坦石)에 음양택(陰陽宅) 상잡(相雜)하니
 전후좌우(前後左右) 광활(廣闊)하여 수구(水口) 독산(狺山) 개색(閉塞)이라
 구룡쟁주(九龍爭珠) 형세(形勢) 보면 용장호단(龍長虎短) 각각(各各) 달라

사향적쟁(四向積爭) 모았으니 石子千孫(石子千孫) 만세(萬世)하리
 재명초출(才名超出)하여 무등지인(無等之人)240 나리로다
 거지성관(居地姓貫)짐작하니 화성(火姓)이 주장(主張)하리
 자상달하(自上達下) 쓸 것이니 연안이씨(延安李氏)가 아니면 연일정씨 (延日鄭氏)로다
 서산하(西山下) 황룡등공(黃龍登空) 백리내세(百里來勢) 특장(特壯)하다
 입수성봉(入首星峯)헤아리니 절절박환(節節剝換)하여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여 동남(東南)으로 흘러가니
 용호(龍虎) 중첩(重疊) 불작시면 누대부귀(累代富貴)하리로다
 병오정(丙午丁)이 나열(羅列)하고 손신(巽辛)이 첨수(尖秀)하여
 대대(代代)로 근신(近臣) 날 것이요 혈식지인(穴食之人)나리로다
 성명거지(姓名居地) 알아보니 수토산(水土山) 절(節)이로다
 동북(東北)에 금민미혈(金尾尾穴) 혈재평지(穴在平地)하였구나
 사방이 비습(卑濕)하니 물이 날까 하겠지만
 혈(穴)을 찾아 파게 되면 세사황토(細沙黃土) 나겠구나
 이 후에 사람 눈 있거든 이런 혈을 얻어 쓰소
 용지삼년(用之三年) 속발(速發)하여 만세무궁(萬世無窮)하리로다
 이 산 주인(主人) 찾아보니 사람마다 주인이라
 내 말이 헛말인가 지나보면 알리로다
 아무라도 나를 알면 이런 혈(穴)을 주련마는
 세무인어지기(世無人於知己)하니 어느 사람 차지 할고
 흥탄(欽歎)을 불사(不巳)하고 회문산(回文山) 올라가니
 베 짜는 저 선녀(仙女)야 기계(機械)를 다 버리고
 바람을 싫어하여 홀로 앉았구나
 네 얼굴 잠깐 보니 떠날 뜻이 전혀 없다
 갑묘맥(甲卯脉) 박요(剝擾)하여 간(艮)으로 입수(入首)하니
 동명(同名)을 기암(機岩)이라 베 짜기 어렵도다
 기괴(奇恠)한 바위 밑에 단정히 앉았으니
 사토(沙土) 나무는 심을 이어 엄기외향(掩其外向) 하였는고
 저 건너 장군봉(將軍峯)은 운선(雲仙)이 단좌(端坐)하니
 남녀유별(男女有別) 뜻을 두고 피(避)하고자 이리왔네
 가애석241 뒤에 두고 상자(箱子)바위 앞에 놓고
 현 침자(針絲) 가는 바늘 운사(雲絲)242를 후려잡고
 운무의(雲霧衣) 베어 내어243 무난(無難)이 재작(裁作)하니
 하물며 너의 몸이 포위(蒲葦)같이 위하니라
 여자의 굳은 부업(婦業)244 주야(晝夜)로 힘을 써라
 너의 재주 알거니와 부디 상치 말아라
 대장부 마음이야 반석 같이 굳으니
 갈 길을 잊었다가 일모서산(日暮西山)하였구나

선녀(仙女)를 작별(作別)하고 사자암(獅子庵) 내려오니
 중요(中腰)에 저 장군(將軍) 갑위(甲冑)와 장검을 잃고
 진(陳) 밖에 독행(狻行)하여 분주동서(奔走東西) 하는구나
 투구 벗어 팔에 걸고 사생(死生)을 맹서(盟誓)하니
 아마도 저 장사(壯士)는 패장군(敗將軍)이 완연(完然)하다
 그 아래 백마장안(白馬張鞍) 입을 벌려 소리하며
 임자 찾으려고 무단(無端)히 방황(彷徨)한다
 임자 없는 저 백마(白馬)는 값을 주고 쓰자 하니
 너의 말 아니기로 그저 놓고 돌아서니
 염(念)한 마음 대발(大發)하여 암울한 줄 몰라
 전후좌우(前後左右) 둘러보니 다소간(多小間)에 있는 것이
 육칠혈(六七穴)이 있건마는 허락할 데 전혀 없다
 임실(任實)
 허허탄식(虛虛歎息)하고 임실(任實)로 건너가니
 육칠혈(육칠혈)이 있어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백화남행(白花南行) 향향(向向)나고 백세무흠(百世無欠) 하리로다
 운수산(雲水山) 귀룡득운(故龍得雲) 미구상천(未久上天) 하겠구나
 그 아래의 화심형(花心形)은 천인(賤人)의 땅이로다
 서(西)로 건너가니 쌍룡(雙龍)이 여의주(如意珠)를
 서로 물고 싸울 적에 호산(虎山)의 옆진 범이
 갈 길을 잊었으니 장군(將軍)의 날랜 칼이
 용호(龍虎)를 빼어들고 좌충(左衝)하며 우돌(右突)하리
 법안(法眼)이 아니면 그 뒤라서 찾아 넣고
 주인봉(主人峯)을 굽어보니 오성(五姓) 구발(俱發) 대대(代代) 나리
 북(北)으로 올라가니 옥녀단좌(玉女端坐) 천기(天基)로다
 수구(水口)를 살펴보니 문무과거(文武科擧)는 비록 하나
 오십년(五十年)이 못지나서 환과(鰥寡) 일대(一代) 못 면(免)하리
 양마입구(良馬入廐) 일대혈(一大穴)은 전주(全州) 지경(地境) 불원(不遠)하다
 대천(大川)이 횡류(橫流)하여 자북유남(自北流南) 하여가니
 아름답다 용호(龍虎) 회포(回抱) 일읍(一邑)의 수재(秀才)로다
 이 산주인(山主人)은 찾아보니 인동장씨(仁同張氏) 아닐런가
 그 밑에 칠호형(七虎形)은 구동(狗洞)이 완연(完然)하다
 문천무만(文千武萬) 날것이니 부디부디 자세히 보소
 운수(雲水) 연화함로형(蓮花含露形)은 사대부(士大夫)의 물충(物冲)이라
 갑묘맥(甲卯脉)에 곤신수(坤申水)는 좌우(左右)로 회포(回抱)하니
 연대(連代) 갑과(甲科) 날 것이요 삼대한각(三代翰閣) 하리로다
 이 혈을 찾기 어렵거든 연하곡(蓮花谷)을 부디 물어보소
 남당점(南堂店) 불원지(不遠地)에 금채괘벽(金釵掛壁) 있었구나

혈 아래 베긴 돌이 목체(木體)245로 숨었으니
 대로변(大路邊) 정자(亭子) 위에 돌을 찾아보소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천하대부(天下大富)하리로다
 운수하(雲水下)의 경계맥(庚癸脉)에 병오정(丙午丁) 삼절(三節)놓고
 회룡(回龍)이 고조(顧祖)하여 복골형(覆釜形)이 생겼구나
 삼절개장(三節開帳) 토성체(土星體)는 병이판(兵吏判)246이 나리로다
 장군대자(將軍大坐) 용마형(龍馬形)은 천기(天基)로 모아있고
 생사출초축와형(生蛇出草逐蛙形)은 평지노상(平地路上) 되었구나
 운수동(雲水洞)에 자봉포란(雌鳳抱卵) 포란형(抱卵形)이 분명(分明)하다
 주인복록(主人福祿) 해아리니 부귀(富貴)은 여천지(與天地) 해망(偕亡)하리
 오로봉(五老峯) 선인취회(仙人聚會) 운봉안(雲峯案)이 되었구나
 수구장쇄(水口藏鎖)247가 삼중(三重)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대부(大富) 나리
 내말대로 하거니와 사람마다 얻을소나
 서(西)으로 삼십리(三十里)를 손사전묘(巽巳轉卯)248 하여간다
 을입수(乙入首) 경수구(庚水口)에 공반일쌍(拱盤一雙)놓였으니
 문과오대(文科五代) 한 후(後)에 진사삼인(進士三人) 동방(同榜)하리
 남(南)으로 사십리(四十里)를 경계행룡(庚癸行龍) 계입수(癸入首)에
 축해(丑亥)로 환룡(還龍)하니 선인무수(仙人舞袖) 이것이라
 백호변(白虎邊)에 대로(大路)있고 손방(巽方)이 수구(水口)되니
 충효문과(忠孝文科) 십일대(十一代)를 그 뒤라서 차지(次持) 할고
 그 안의 도슬형(鳶膝形)은 길이 나서 기혈(棄穴)이나
 백년(百年)을 지난 후(後)에 이 길이 막하리라
 세상(世上)에 없는 부귀(富貴) 여천지(與天地) 해망(偕亡)하리
 그리저리 다 본 후에 갈 바를 잊었더니
 노상에 일노옹(一老翁)이 나를 보고 예(禮)를 하거늘
 일어나서 답례(答禮)하고 성명(姓名)을 물어보니
 용담(龍潭)사는 이노(李老)이라 그 노인을 따라가서
 수삼일(數三日) 유숙(留宿)한 후(後)의 임발(臨發)이 섭섭하여
 양택(陽宅) 하나 가르치니 이름은 옥정(玉灯)이라
 터로 말하자면 용담(龍潭)의 제일(第一)이라
 부처간(夫妻間) 해로(偕老)하니 독자(狒子) 하나 글 가르쳐
 科仗(科仗)가 되었거늘 마음이 불상(不祥)하여
 이 터를 가르치니 오년내(午年內)에 초발(初發)하여
 십대부명(十代富名) 들으면서 백자천손(百子千孫) 할 것이라
 부디부디 집을 짓고 래종(來終)을 보라하니
 그 노인(老人)이 대혹(大惑)하여 그 날로 입주(立柱)하니
 정성(精誠)도 있거니와 심지(心志)도 순후(順厚)하다
 금반토호(金盤土壺) 상하혈(上下穴)이 뚜렷이 잠겼구나

북으로 내려와서 주마형(走馬形) 구경하고
 산승(山僧)으로 돌아드니 오육혈(五六穴)이 또 있구나
 남오리(南五里) 오공형(蜈蚣形)이 거기서 머지 않거늘
 함께 가서 가르치니 은혜(恩惠)를 치사(致謝)커늘
 그 노인(老人)을 작별(作別)하고 십리지경(十里地境) 넘어가니
 반기(盤器)에 밥을 담아 혈(穴)가에 놓았거늘
 나아가 배례(拜禮)하고 진안(鎭安)으로 작로(作路)하니
 진안(鎭安)
 남십리에 쌍룡쟁주(雙龍爭珠) 혈재삼처(穴在三處) 하였구나
 금산구괘(金山姤卦) 해득(解得)하니 수화성(水火姓)이 주인이라
 남(南)으로 내려가니 와룡규주(臥龍圭珠) 수중혈(水中穴)은
 삼석봉(三石峯)이 안(案)이 되니 천인발복(賤人發福) 하리로다
 동고(東高)의 행반형(行盤形)은 무이(武吏) 대장(大將) 나겠구나
 오마탈안(五馬脫鞍) 천기(天基)보니 반응형(盤龍形)과 함께 있다
 반사공유(盤蛇共遊) 할 것이니 부귀겸전(富貴兼全) 하것마는
 수구(水口)가 어석(三魚石)되었으니 삼대(三代) 가기 어렵도다
 복사복호(伏獅伏虎) 이 이혈(二穴)은 삼품재상(三品宰相) 나리로다
 마이산(馬耳山) 올라보니 산은 산칠파신(山七罷身) 하나
 성체(星體) 하나 못 생기니 명혈(名穴)이라 말할소냐
 다소간(多小間)에 있는 혈(穴)이 불빈불부(不貧不富) 뿐이로다
 술와주(茂臥朱)
 운유산(雲裕山)을 바라보고 무와(茂臥)로 돌아가니
 산맥(山脉)은 쓸 만하나 병화불입(兵火不入) 뿐이로다
 양택(陽宅)은 허다(許多)하나 인물(人物)이 번성(繁盛) 하겠구나
 피세(避世之地)를 하려하면 호남(湖南) 제일(第一) 되리로다
 음택(陰宅)인들 없을소냐 대혈(大穴)이 적었도다
 산청수발(山清水波) 하였으니 인심태평(人心太平) 하겠구나
 세월(歲月)이 여류(如流)하여 작로(作路)한지 반년(半年)이라
 어언향(於焉向) 세모(歲暮)하여 객리(客裏)에 과세(過歲)하니
 수회(愁懷)도 중중(重重)하고 마음이 울울(鬱鬱)하다
 의상(衣裳)이 남루(襤褸)하나 고쳐줄 이 뉘 있으리
 비례지물(非禮之物) 친(親)이 하면 천부지성(天賦之性) 그르치리
 선생(先生)이 주신 것이 책서책지구(冊書冊之具) 남았도다
 적루지공(積累之功) 생각(生覺)하니 십배전일(十倍前日) 하도다
 장수(長水)
 묘일(卯日)로 발로(發路)하여 장수(長水)로 들어가니
 남오리(南五里) 금구예미(金龜曳尾) 금산비괘(金山否卦) 분명(分明)하다
 혈재전중(穴在田中) 평탄(平坦)하여 양수(兩水) 합어(合於) 교류(交流)하니

무과(武科) 삼인(三人) 날 것이요 부요(富饒)하기 쉬우리라
 동십리(東十里) 선인죽장(仙人竹掌) 당대발복(當代發福) 어려울까
 괘체(卦體)를 살펴보니 토산(土山)의 대유(大有)로다
 영남(嶺南) 지경(地境) 준령하(峻嶺下)의 갈룡음수(渴龍飲水) 비봉귀소(飛鳳啟巢)
 복호형(伏虎形)과 화심혈(花心穴)은 사대혈(四大穴)에 있겠구나
 십팔인(十八人) 근시(近侍)하고 혈식현인(血食賢人) 나리로다
 그 외(外)에 남은 혈(穴)은 무족가관(無足可觀) 하리로다
 팔룡산(八龍山) 전후좌우(前後左右) 역력(歷歷)히 둘러보니
 산고곡심(山高谷深)하여 병화불입(兵火不入) 하리로다
 운봉(雲峯)
 죽장(竹杖)을 바삐하여 운봉(雲峯)으로 넘어가니
 함양(咸陽) 지경(地境) 천치하(天峙下) 용마입구(龍馬入廐) 다정(多情)하다
 상하(上下)로 대로(大路) 있고 그 가운데에 암정(岩井) 있어
 반석(盤石)이 있어 쓰니 그 곳에 쓰게 되면
 문과칠인(文科七人) 날 것이오 맹자천손(盲子千孫)하리로다
 성명거주(姓名居住) 살펴보니 함양박씨(咸陽朴氏) 물건(物件)이라
 동오리(東五里) 쌍룡농주(雙龍弄珠) 구천(九川)이 동조(同朝)하니
 흠(欠)없이 묻힌 혈(穴)은 화뇌서합괘(火雷噬嗑卦) 분명하다
 간봉(艮峯)이 첨수(尖秀)하고 병정(丙丁)이 특립(特立)하니
 장손(長孫)이 선발(先發)하여 영화(榮華) 무궁(無窮)하리
 연계동(聯界洞) 십오리(十五里)의 영민예미(靈龜曳尾) 너는 어이
 토산석혈(土山石穴) 마다하고 공연(空然)히 돌아서서
 선익사(蟬翼沙)만 옆에 두고 임산삼절(壬山三節) 작지(作支)하여
 명당(明堂)을 좁게 놓고 자미(滋味) 없이 숨었는고
 서령(西嶺)의 자봉귀소(雌鳳啟巢) 정족(鼎足) 수족(水足) 앞에 놓고
 금수성(金水星) 칠팔절(七八節)에 단정(端正)히 숨었으니
 이 산주인(山主人) 찾자하면 토산무망괘(土山無妄卦) 알아보소
 태봉하(台峯下) 수삼절(數三節)에 와우형(臥牛形)이 더욱 좋다
 청초(靑草)를 앞에 놓고 우산(牛山)으로 안(案)을 삼아
 소리 없이 숨었으니 그 뉘라서 알아볼고
 그 아래 반월형(半月形)은 은하안(銀河案)이 되었구나
 명천(明泉)을 앞에 두고 동서(東西)로 통달(通達)하니
 주인봉(主人峯) 생긴 것이 문과(文科) 연출(連出) 오대(五代) 하리
 동(東)으로 바라보니 장군형신(將軍形身) 웅장(雄壯)하다
 삼대정상(三代頂相) 하려니와 환과부절(鰥寡不絕) 하겠구나
 적진(敵陣)을 옆에 두고 무공(武公)으로 활을 당겨
 쏘아 잡아 되었으니 기고병기(旗鼓兵器) 구비(具備) 하다
 서(西)에 유아운모(幼兒運母) 용호(龍虎) 회포(回抱) 하였도다

삼사봉(三四峯)이 벌인 중에 쌍봉(雙峯)이 효순사(孝順思)라
 경(鉗) 속에 미돌혈(微突穴)이 삼계대(三階台)에 있었구나
 사오척(四五尺)을 파면 오색토(五色土) 나리도다
 주인형신(主人形身) 보자하면 수토성(水土姓)이 호유(護遺)하리
 구봉(九峰)에 맹호출림(猛虎出林) 구산(狗山)이 완연(完然)하다
 선빈후부(先貧後富) 다자손(多子孫)은 문과(文科) 칠대(七代) 나리로다
 남원(南原)
 그렇저런 구경하고 남원지경(南原地境) 다다르니
 귀룡천수(啟龍淺水) 좋은 형체(形體) 천기(天基)가 생겼구나
 연대남행(連代南行) 날 것이요 삼대문과(三代文科) 나리로다
 금계동(金溪洞)의 무공단좌(武公端坐) 괘궁안(掛弓案)이 분명하다
 축간맥갑(丑艮脉甲) 입수(入首)에 경후(庚后)가 임신(臨申)하니
 혈재굴중(穴在窟中) 하였으니 알기가 어려워라
 서북(西北)의 용호출지(龍虎出地) 농주안(弄珠案)이 되었구나
 혈(穴)을 찾자 하거들면 중부괘(中孚卦)를 살펴보소
 생사출초(生蛇出草) 금구형(金龜形)은 상하(上下)로 생겼구나
 황룡(黃龍)이 물불서니 토산(土山) 천기(天基) 정녕하다
 남(南)으로 내려가니 비둘기가 우는구나
 가세(家勢)는 지빈(至貧)하나 영상일대(領相一代) 나리로다
 혈재평지(穴在平地)하여 간수귀손(艮水啟巽)하니
 신안(神眼)이 아니면 재작(裁作)하기 어렵도다
 기러기 바람치고 수풀로 안(案)을 삼고
 동정호(桐庭湖) 어디에 두고 홀로 앉았는고
 금반(金盤)에 숨은 혈(穴)은 옥배(玉盃)를 곁에 두고
 수회(水回)249가 횡류(橫流)하여 완완히 가는구나
 증직(贈職)은 자주 나나 대소과행애직(大小科行艾職) 못 하리라
 사자산(獅子山)을 넘어가니 풍취나대(風吹羅帶) 보기 좋다
 그 아래로 내려가니 선인등공(仙人登空) 자봉귀소(雌鳳啟巢)
 하하농주(河鰕弄珠) 금채괘벽(金釵掛壁)250 사대혈(四大穴)이 완연하다
 이 혈(穴)을 불러거든 목산화우괘(木山火遇卦) 살펴보소
 서태산(西泰山)을 내려가니 황앵(黃鶯)이 자는구나
 해룡(亥龍)이 전태(轉兌)251하여 신입수(辛入首)에 정작혈(丁作穴)이
 평강(平崗)의 국(局)을 짓고 역수(逆水)로 앉았으니
 명당(明堂)이 평탄(平坦)하고 수구(水口)가 긴고(緊固)하네
 만석군(萬石君) 될 것이오 명공거경(名公巨卿) 나리로다
 인방(寅方)의 호준석(虎蹲石)은 지손(支孫)이 호사(虎死)하리
 명령(鳴峯)의 동남록(東南麓)에 삼대혈(三大穴)이 묻혔구나
 괴혈(怪穴)이 되었으니 찾기가 어려워라

태산(泰山)이라 비록 하나 용호(龍虎)도 회포(回抱)하고
 혈전(穴前)에 대강수(大江水)가 자서동류(自西東流) 하였으니
 만일에 얻어 쓰면 문과(文科) 부절(不絕) 하리로다
 비웅치(飛熊峙) 올라서니 북록혈(北麓穴)이 기묘(己卯)하다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여 동북으로 흘러가니
 절월지장(節鉞之將) 날 것이고 백화(白花) 이인(二人) 나겠구나
 태봉하(太峯下) 관혈(管穴)은 음양택(陰陽宅)이 구거(俱去)하다
 주인봉(主人峯)도 다섯이라 해(解) 둔(遯) 소축(小畜) 귀매(故妹)로다
 길마치(馬峙) 오리허(五里許)에 약마분적(躍馬奔敵) 더욱 좋다
 손신봉(巽辛峯)은 목성(木星)이요 경태봉(庚兌峯)은 화성(火星)이라
 혈재석간(穴在石間) 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소
 삼대한림(三代翰林) 이대장군(二代將軍)나리라 수성(水姓)이 주인(主人)이라
 삼문지경(三門地境)에 삼대혈(三大穴)은 각재동서(各在東西) 하였으니
 수구(水口)가 일반(一般)이라 자서북류(自西北流) 하는구나
 하나는 진사(進士)나고 하나는 무과(武科)나리
 중류(中流)는 무후(無後)하고 지손(支孫)에서 혈식천지(血食千枝) 하리로다
 마치(馬峙)의 장동(壯洞)에 들어가니 장수지경(長水地境)에 선인독서(仙人讀書)
 문과(文科)도 부절(不絕)하고 남행판서(南行判書) 나겠구나
 천재토성요혈(天裁土星凹穴)은 효순귀(孝順鬼)가 빼었으니
 사장봉(獅丈봉)이 동산(東山)되고 검인성(劍印星)이 안(案)이로다
 미와중(微窩中)252에 요검혈(科鉗穴)로 속안(俗眼)이야 어이 알리
 주인봉(主人峯)이 멀었으니 당대후인(當待後人) 하는구나
 남(南)으로 멀리 가니 칠성형(七星形)에 은하안(銀河案)이라
 금반(金盤)의 옥호형(玉壺形)은 구례지경(求禮地境) 불원(不遠)이라
 그 안에 삼대혈(三大穴)은 두류산(頭流山)에 혈(穴)이 있다
 해룡십이절(亥龍十二節)에 좌우로 회포(回抱)하여
 용호(龍虎)가 중중(重重)하고 쌍락산(雙樂山)이 주인된다
 여검형(女劍形) 제좌안(帝坐案)은 혈재평지(穴在平地) 하였구나
 충천자기금성체(沖天紫氣金星體)를 속안(俗眼)이야 모으리라
 만일에 얻어 쓰면 당대(當代)에 발복(發福)하여
 삼십대(三十代) 재상(宰相) 나고 왕비(王妃)가 병출(竝出)하리
 구례(求禮)
 두루 두루 다 구경하고 구례(求禮)로 넘어가니
 두류산(頭流山) 산하(山下)에 지발식전(地拔食田) 하였구나
 구만장(九万丈) 높은 산이 구만리대천(九萬里大川) 배합(配合)하니
 성곽(城郭)이 견고(堅固)하니 완박지(完朴之)지 되었구나
 그 아래 오봉귀소(五鳳故巢) 음양택(陰陽宅)이 구거(俱去)하다
 문장재자(文章才子) 많이 나고 호남명승지(湖南名勝地)라

장독(瘴毒)이 물이 나니 어느 때나 회운(回運)할고
 탐랑성하(貪狼星下) 전후좌우(前後左右)가 날날이 주옥(珠玉)이라
 산을 따라 올라가니 제좌(帝坐) 하나 놓였구나
 수구(水口)가 장쇄(藏鎖) 긴히 하고 명당(明堂)이 평탄(平坦)하니
 세상의 드문 보배 그 뉘라서 알아볼고
 혈상(穴上)에 올라보니 단정히 앉은 거동
 일점(一點) 진애(塵埃) 없으니 기기묘묘(奇奇妙妙) 하겠구나
 그 밖에 남은 혈(穴)을 어이 다 말할소나
 곡성(谷城)
 갈 길이 바쁘기로 곡성(谷城)으로 건너가니
 남간(南間)에 혈(穴) 하나가 생겼으니 미인단좌(美人端坐) 정녕(丁寧)하다
 병권지위(兵權之威) 모두 있고 산림태도(山林態道) 없었도다
 통명산(通明山)을 올라가니 장군대좌(將軍大坐) 이 한 혈(穴)은
 압록강상(鴨綠江相) 십리허(十里許)에 혈재고봉상상정(穴在高峯上上頂)이라
 왕자맥(王字脉) 삼십절(三十節)은 장상룡(將相龍)이 되었구나
 음래양작(陰來陽作) 하였으니 문무겸점(文武兼全) 만호후(万户侯)를
 만마등공(万馬登空) 하였으니 그 뉘라서 차지할고
 감계방(坎癸方)에 습천수(巒川水) 오고 건해방(乾亥方)에 투구로다
 손신(巽辛)은 병기(兵鬼)되고 병오정(丙午丁)은 제장(諸將)된다
 전후좌우 벌여있고 만산(万山)이 동조(同朝)하며
 입수성봉(入首星峯) 정신봉(精神峰)이 호남대지(湖南大地) 뿐이로다
 천년향화(千年香火) 고사(姑舍)하고 백대장상(百代將相) 나리로다
 운사(雲砂)가 나열하고 간병(艮丙)이 당당(堂堂)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억만세(億萬歲)에 문천무만(文千武萬) 하리로다
 정입수(丁入首)에 경십절(庚十節)에 간수(艮水) 귀손(改巽) 하는구나
 대강(大江)이 폭태(輻濳)하니 산승수승(山勝水勝) 되리로다
 순음국(純陰局)에 태극(太極)되니 알아보기 어려워라
 이후(伊後)에 있어 와서 수호(守護)하기 불쌍(不祥) 하다
 천장지비(天藏地秘) 하였으니 허욕을 내지마라
 주인봉(主人峯) 높았으니 갑과(甲科)도 대대로 나고
 이 혈(穴)을 보자하면 토산간괘(土山艮卦) 해득(解得) 하소
 인물(人物)도 많다만은 최고봉(最高峯)에 묻힌 혈(穴)을
 아무리 알자 한들 날날이 말할소나
 한탄(恨歎)을 불사(不已)하고 서편(西便)으로 돌아보니
 손사맥(巽巳脉) 삼십절(三十節)에 병정(丙丁)으로 기두(起頭)하여
 경계맥(庚癸脉) 사절하(四節下) 경입수(庚入首) 되었구나
 간수(艮水)가 귀을(故乙)하니 양마주적(良馬走敵) 이것이다
 천마(天馬)는 뒤에 있고 이구(耳廐)는 북에 있다

와중(窩中)에 유돌혈(乳突穴)은 무흠대지(無欠大地) 정녕(丁寧)하다
 당대(當代)에 속발(速發)하여 삼십구대(三十九代) 갈것이라
 부귀(富貴) 호화(豪華) 제일(第一)이니 어이 아니 기묘(奇妙)하리
 일품혈(一品穴)이 거중(居中)하니 동북간(東北間)을 하였구나
 해해 세상 사람들아 눈 있거든 혈을 보소
 유림재사(儒林才士) 간간(間間)나고 부귀(富貴) 장원(長遠)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화성(火姓) 밖에 또 있는가
 혈중좌향(穴中坐向) 헤아리니 토산부(土山否)나 슬펐어라
 너를 보고 형체(形體) 보니 떠날 뜻이 전혀 없다
 세상 사람 귀 있거든 이내 노래 들어보소
 제 눈으로는 못 보아도 들어서는 짐작하리
 용혈(龍穴) 사수(砂水) 다 말하니 어느 누가 모를소나
 원출(原出)하여 올 즈음에 일모서산(日暮西山) 하였거늘
 주인(主人)을 찾자하니 혼간지처(訢間之処)가 전혀 없다
 옥과(玉果)
 읍에 들어 유숙(留宿)하고 옥과(玉果)로 작로(作路)하니
 작산형신(雀山形身) 성작(星作)하여 불고불저(不高不低) 하였구나
 산천이 융결(融結)하여 진기(眞氣)를 도집(都集) 한다
 손룡(巽龍) 십삼절(十三節)에 혈재두상(穴在頭上)하였구나
 삼대재상(三代宰相)나온 후에 구대근신(九代近臣)나리로다
 대천(大川)이 동쪽으로 흐르니 천을태을(天乙太乙)분명하다
 혈중(穴中)에 나는 토색(土色)은 반석전사(盤石佃砂) 나리로다
 갑묘회두(甲卯回頭) 간입수(艮入首)에 을수(乙水)가 귀정(故丁)하니
 소로(小路)는 뒤에 있고 작천(鵲川)은 풍남(馮南)이라
 명령재사(名靈才士) 선부귀(先富貴)는 대부지절(代不之絶) 하리로다
 주인을 보자하면 목화산(木火山)이 곤괘(坤卦)253로다
 혈(穴) 하나 있는 것을 몇 사람이 지키리라
 서북(西北)에 옥녀산화(玉女散花) 군선안(群仙案)이 좋을시고
 아름다운 혈(穴) 하나가 양수향(兩水向)에 있었구나
 대소과경(大小科慶) 삼인(三人)이요 위치이품(位至二品) 하리로다
 암수간(岩水間)에 혈(穴)이 있어 각왕동서(各枉東西)하였구나
 수구(水口)는 한가지라 경수(庚水)가 관(筭)에 가니
 어와 이 산(山) 복록(福祿)이여 백대연면(百代連綿) 하리로다
 서쪽으로 가는 맥이 운중상룡(雲中上龍) 여기로다
 공(空) 아래 도검사(刀劍砂)는 거듬거듬 빗겨있다
 운룡중천(雲龍中天)하여 삼양봉(三陽峯) 멀었도다
 혈전수(穴前水)가 셋이 되고 용외(龍外)에 대천(大川)이라
 작산진두(鵲山盡頭) 소로하(小路下)에 갈룡음수(渴龍飲水) 보기 좋다

부호(富豪)는 삼대(三代)하고 칠대승상(七大丞相) 하리로다
 물이 있어 동으로 가니 호단용장(虎短龍長) 하였구나
 남십리(南十里) 노승예불(老僧禮佛)은 불전(佛田)이 완연(完然)하다
 이 혈(穴)을 보려거든 그 밭을 자세히 보소
 설산(雪山)에 노서하전(老鼠下田) 적숙안(積粟案)이 생겼구나
 경유수(庚酉水)가 동쪽으로 흐르니 누대(累代) 남행(南行) 나리로다
 이 산 주인 찾아보니 토산신괘(土山顯卦)가 분명하다
 삼동수(三洞水)가 합류(合流)하니 쌍룡쟁주(雙龍爭珠) 회룡세(回龍勢)는
 역기(逆氣)로 생겼으니 부귀겸전(富貴兼全) 하겠구나
 생사축화(生巳逐蛙) 반석형(盤石形)은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은근 신난 저 선녀(仙女)는 대로변(大路邊) 옆에 있다
 이 혈(穴)을 찾기 어렵거든 목화산(木火山)에 간괘(艮卦) 보소
 동복(同福)

대강 대강 구경하고 동복(同福)으로 작로(作路)하니
 안성(雁城) 민성(鼃城) 사십리(四十里)에 비룡(飛龍)이 더욱 좋다,
 혈재평지(穴在平地)하여 대강안(大江案)이 되었구나
 벽성(碧成) 동쪽 태산하(泰山下) 주록형체(走鹿形体) 기괴(奇怪)하다
 적벽지상(赤壁之上) 연소형(燕巢形)은 공후지지(公侯之地) 완연하다
 방산하(方山下) 선인무수(仙人舞袖)는 횡금안(橫琴案)이 다정하다
 회룡은산(回龍隱山) 무공단립(武公端立)는 불원간(不遠間)에 생겼구나
 그 아래에 팔회(八回) 벌여 천지기운(天地氣運) 모두 오고
 서쪽을 바라보니 반룡형(盤龍形)이 또 있구나
 이 물의 대소혈(大小穴)은 목화성(木火姓)이 주인이로다
 그 밖에 구대혈(九大穴)은 무흠대지(無欠大地) 이것이라
 다소간(多小間)에 있는 혈은 장원무궁(長遠無窮) 하리로다
 이 물에 수다 혈형(穴形) 용혈도(龍穴圖)를 보았구나
 남방(南方)의 저 기러기는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볼고
 팔괘(八卦)를 벌렸으니 산천정기(山川精氣) 숨었도다
 낙안(樂安)

걸음을 재촉하여 낙안(樂安)으로 건너가니
 읍(邑)의 북쪽에 일대혈(一大穴)이 천장지비(天藏地秘)하였구나
 백자천손(百子千孫) 만세영화(萬歲榮華) 유복지인(有福之人)이 쓰리로다
 서쪽에는 옥녀무슬(玉女撫瑟)이 강변(江邊)에 숨었으니
 산수(山水)가 청명(淸明)하니 유덕군자(有德君子) 나리로다
 해술과협(亥戌過峽) 십이절(十二節)에 건해룡(乾亥龍) 해입수(亥入首)라
 용호(龍虎)가 회포(回抱)하여 본신수(本身水)가 손방(巽方)254에 가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비록하나 골육상잔(骨肉相殘) 하겠구나
 읍지(邑地)를 자세히 보니 호남수제(湖南首第)로다

서방(西方)이 명랑(明朗)하니 사대부(士大夫) 많이 나고
 서(西)쪽으로 둘러보니 팔대혈(八大穴)이 있었구나
 동쪽에는 청룡(靑龍)이요, 남쪽에는 백학(白鶴)이로다
 선인독서(仙人讀書)하는구나 유림(儒林)이 흔히 나고
 백운산(白雲山)을 둘러보니 절절(節節)이 기묘하다
 사방(四方)을 둘러보니 편편(片片)이 금(金)이로다
 물마시는 저 백마(白馬)야 삼주안(三珠案)이 되었구나
 용마(龍馬)는 서쪽에 있고 맹호(猛虎)는 동쪽에 있다
 해묘미(亥卯未) 삼합국(三合局)에 장천(長川) 사류(四流)하니
 부귀(富貴)는 비록 하나 환과상잔(鰥寡相殘) 못 면한다
 그 위의 장군형(將軍形)은 수강현무(水僵玄武) 하는구나
 손신(巽辛) 병정(丙丁) 육수사(六秀砂)가 용요(龍腰)로 분합(分合)하니
 대장(大帳)안에 농주(弄珠)있어 대대로 문과(文科)나려니와
 대혈(大穴)은 없으나 작은 혈은 무수하다
 광양(光陽)
 몸의 날개 어디 있는지 광양지경(光陽地境) 들어서니
 삼대감사(三代監司)에 이대판서(二大判書) 십일대한림(十一代翰林)하리
 온수동(溫水洞) 석문(石門) 안에 신인(神人)이 희주(戲珠) 하나로구나
 그 문에 십팔혈(十八穴)은 찾아보기 어려워라
 송천하(松川下) 금구예미(金龜曳尾)는 금옥만당(金玉滿堂) 하리로다
 그 아래에 자웅(雌雄) 이혈(二穴)은 대대로 상공(相公) 나리로다
 순천(順天)
 대강만 구경하고 순천지경(順天地境) 다다르니
 오호와령(五虎臥嶺) 굽어보니 천리행룡(千里行龍)이 기묘하다
 용(龍) 허리에 혈(穴)이 맺어 산천(山川)이 폭주(輻輳)하니
 날날이 진혈(眞穴)이라 오대삼공(五代三公) 하리로다
 북십리(北十里) 격고형(擊鼓形)은 무동안(舞童案)을 하였구나
 그 아래에 반금형(盤金形)은 옥배안(玉杯案)이 더욱 좋다
 량마분적탈안형(良馬奔敵脫鞍形)은 수역(水驛)이 생겼구나
 서십리(西十里)에 적룡희주(赤龍戲珠) 칠주안(七珠案)이 분명하다
 노학전익(老鶴展翼) 와우형(臥牛形)은 계성안(溪城案)에 숨었구나
 자봉타란(雌鳳挖卵) 반단형(半丹形)은 삼태봉하(三台峯下) 간맥(艮脉)이라
 마단우변(馬丹右邊) 지진처(地盡處)에 상운삼혈(祥雲三穴)이 분명하다
 일혈(一穴)은 거두(居頭)하고 이혈(二穴)은 거미(居尾)하니
 칠대장상(七代將相) 오대절도사(五代節度使) 수구견고(水口堅固) 주시로다
 루대몽귀(累代冢貴) 비록 하나 두혈(頭穴)이 제일(第一)이라
 보성(寶城)
 수일(數日)을 두유(頭遊)하여 보성(寶城)으로 작로(作路)하여

산양(山陽) 동오리허(東五里許)에 반월형(半月形)이 있구나
 삼태안(三台案) 창고봉(倉庫峯)은 양택(陽宅)으로 생겼도다
 남(南)으로 내려가니 갈룡(渴龍)이 음수(飲水) 하는구나
 강변대로상(江邊大路上)에 무단(無端)히 엮어 졌는가
 화보룡(花補龍)을 바라보니 난데 없는 사슴 두어 마리
 석각(石角)을 의지하여 언연히 앉았으니
 이 혈(穴)을 찾으려면 금산구괘(金山姤卦) 보소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오성(五姓)이 대발(大發) 하리로다
 역수기국(逆水起局)이 평탄(平坦)하여 문명지혈(文明之穴)이 하도 많다
 주인봉(主人峯)을 바라보니 왕씨산(往氏山) 되리로다
 대천변(大川邊)의 복호형(伏虎形)은 천년향화(千年香火) 하리로다
 수십년(數十年)을 지내면 과모일대(寡母一代) 나겠구나
 장흥(長興)
 서쪽으로 재를 넘어 장흥지경(長興地境) 다다르니
 용산하(龍山下) 상제봉조(上帝奉朝) 배사(拜祀)받이 되었구나
 육경(六卿)은 안(案)이 되고 삼태(三台)는 서쪽에 있다
 쌍귀추성(雙鬼樞星) 세운 곳에 혈재상취(穴在上聚) 하였구나
 그 조신(朝臣)이 옹위(擁衛)하니 군왕지지(君王之地) 되리로다
 이 산주인(山主人)을 찾아보니 연정(延鄭)의 물건(物件)이라
 이후 백년만에 우연(偶然)히 쓸 것이니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 그 뉘라서 막으리오
 거기서 불원(不遠) 옆에 삼태혈(三台穴)이 또 있구나
 위에는 군왕(君王)나고 아래에는 신하(臣下)되니
 전후간(前後間) 그 사이에 군신혈(君臣穴)이 생겼구나
 장고산(長鼓山) 십리허(十里許)에 장군형체(將軍形體) 보기 좋다
 삼운안(三雲案)에 참수석(斬首石)은 혈하(穴下)에 원적(源寂) 있어
 경태룡(庚兌龍) 건해맥(乾亥脉)255에 해좌(亥坐) 을파(乙破)로다256
 동산(東山)에 장군형체(將軍形體)과 옥녀세의(玉女洗衣) 또 있구나
 불소(不小)한 이 두 혈(穴)은 일영간(一嶺間)에 숨었구나
 무과(武科)에 삼공(三公) 날 것이요 백대호부(百代豪富) 하리로다
 남행품서(南行品書) 일도감사(一道監司)는 장류(長流)가 나겠구나
 동십리(東十里) 석봉(石峯) 아래에 무공당좌(武公端坐) 자세히 보소
 경태사(庚兌砂)가 기복(起伏)하여 이봉안(二峯案)이 되었구나
 이석비토(以石非土) 오육척(五六尺)에 백황색토(白黃色土) 날 것이니
 속에 반석(盤石) 있을진대 간간귀(間間貴) 나리로다
 이 혈(穴)을 찾아 쓰게 되면 그 벼슬 잃지 말고
 이 혈(穴) 주인(主人) 성명(姓名)보니 수목산(水木山)에 감괘(坎卦)로다
 그 건너 복호형(伏虎形)은 천기(天基)로 생겼구나

이후(以後)에 성령(聖靈)이면 그 마을이 반조(半朝)로다
 천관산(天關山)의 금체(金體)에 전후좌우 공(空)도 많다
 건해맥(乾亥脉) 자입수(子入首)257에 석중토혈(石中土穴)나리로다
 왕자맥(王字脉) 팔절하(八節下)에 연연히 생겼구나
 마명동(馬鳴洞) 들어가니 토산석혈(土山石穴) 더욱 좋다
 돌을 열고 파고 들면 삼색청토(三色靑土) 나겠구나
 목산곤괘(木山坤卦) 살펴보니 화성(火姓)이 임자로다
 삼년(三年)만에 환과(鰥寡)나서 음란(淫亂) 일대(一代) 비록하나
 이 혈을 파지 않고 지나가면 문무겸전(文武兼全) 하리로다
 변치 못 할 이 물이 목욕수(沐浴水)258 탓이로다
 가니대산(迦尼大山) 장군형(將軍形)은 대와간(大窩間)259에 있었구나
 해수(海水)가 조당처(朝堂處)260라 금수산(金水山)의 기제괘(既濟卦)로다
 수다(數多)한 혈명(穴名)을 어이 다 말할소냐
 능주(綾州)
 그리저리 대강 보고 능주(綾州) 풍경 구경하니
 남산(南山)에 창룡출운형(蒼龍出雲形)은 운연봉(雲煙峯)이 안대(案對)로다
 백운(白雲)은 좌우(左右)하고 거동(車洞)은 불원(不遠)하다
 태혈(兌穴)로 작경(作庚)하여 사룡삼호(四龍三虎) 되었도다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고 수구(水口)는 화표한문(華表捍門) 이것이라
 단운(端雲)은 석문(石門)이 되고 손신(巽辛)은 문필체(門筆體)라
 사병(巳丙)에 중중(重重) 매화요 현무(玄武)는 어병(御屏) 이다
 제관(帝閔)이 불원(不遠)하고 혈재정중(穴在頂中)하였구다
 오척(五尺)을 파고 쓰면 무직(武職) 근신(近臣) 대대(代代) 나리
 주인봉(主人峯)은 목성(木星)이라 목화성(木火姓)이 완연하다
 남으로 이십리에 반룡희주(盤龍戲珠) 보기 좋다
 골룡(骨龍)이 기복(起伏)하여 수백절(數百節) 되었구나
 입수(入首)에 특립(特立) 화개(華蓋) 중중(重重) 회포(回抱)하고
 팔백연화(八百煙花) 분대상(粉黛象) 회룡고조(回龍顧祖)261 안(案)이 되고
 백자천손(百子千孫)하고 문무과(文武科)는 천만년(千萬年)을 부귀(富貴)하리
 손산하(巽山下) 생룡(生龍) 아래262에 복호형(伏虎形)이 생겼구나
 생용안(生龍案) 회두중(回頭中)에 일강파(一江波)263가 있으니
 무림(茂林)에 참룡(斬龍)나고 산림(山林)에 호두(虎頭) 있다
 계방(癸方) 수구(水口) 긴쇄(緊鎖)264하니 무관(武官) 천하(天下) 하리로다
 주인을 보자하니 수도성(水土姓)이 발복(發福)하리
 동(東)으로 돌아보니 금장(錦帳)이 아래 있다
 장내장중(帳內帳中) 수절봉(數節峯)에 홀연히 낙재평지(落在平地)로다
 좌반(左畔)에 머리 싸고 변와격(變窩格)이 되었구나
 혈(穴) 머리 두어 마디 토성(土星)이 호칙(護勅)하여

청산(靑山)이 심이 없어 삼중안(三重案)이 높았으니
 외거석(外巨石)이 기복(起伏)하여 혈재원두고광처(穴在源頭高廣處)라
 주인성명(主人姓名) 알자하면 금산주괘(金山周卦) 자세히 보소
 동쪽의 비금낙지(飛禽落地) 래속안(唼粟案)이 되었구나
 임강룡(壬坎龍) 임곤입수(壬坤入首) 운산(雲山)이 첩첩(疊疊)하여
 혈재광야중(穴在曠野中) 일괴방(一塊方)을 그 뒤라서 알아볼고
 영천(靈泉)이 위에 있어 주야(晝夜)로 흐르니
 만세아손(萬歲兒孫) 족진주(足珍珠)는 축하(丑下)265에 있고 문중(文中)에 문채(文彩) 있다
 죽수동(竹樹洞) 칠리허(七里許)에 오공형(蜈蚣形)이 기묘하다
 서남(西南)에 해하롱주(海蝦弄珠) 삼성천기(三姓天基) 되었구나
 천녀등공(天女登空) 와우형(臥牛形)은 불원간(不遠間)에 있었구나
 그 밖의 육십사혈(六十四穴)은 용혈도(龍穴圖)를 찾아보소
 화순(和順)
 화순(和順)지경(地境) 넘어서니 구십혈(九十穴)이 생겼구나
 읍내전면(邑內前面) 옥녀형(玉女形)은 용혈맥(龍穴脉)이 천기(天基)로다
 무등산(無等山) 서남록(西南麓)에 대장대좌발일형(大將大坐拔釵形)은
 기고병기(旗鼓兵器) 영송(迎送)하니 문천무만(文千武萬) 나리로다
 동십리(東十里) 옥녀무수(玉女舞袖)는 횡금안(橫琴案)이 되었구나
 십구인(十九人) 근시(近侍)하고 오대남행(五代南行) 나리로다
 방응형(放鷹形) 복호형(伏虎形)은 정남자손(丁南子孫)266 발복하리
 서북(西北)의 와우형(臥牛形)은 적초안(積草案)이 되었구나
 조년(早年)에 등과(登科)하여 일대승상(一代丞相) 하리로다
 서남주(西南州)의 반룡형(盤龍珠)은 삼봉안(三峯案)이 다정(多情)하다
 양수(兩水)가 합류(合流)하여 자동류서(自東流西) 하는구나
 칠대문과(七代文科) 삼대남행(三代南行) 수토산(水土山)에 함괘(咸卦)로다
 동남(東南)에 대해(大海)있어 비룡형(飛龍形) 생겼구나
 문장귀인(文章貴人) 날 것이요 은록공훈(隱祿功勳) 무궁(無窮)하리
 동남(東南)에 용사취회(龍蛇聚會) 록후토산(祿后土山)에 감괘(坎卦)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오강성(吳姜姓)의 천기(天基)로다
 동남쪽의 비봉귀소(飛鳳故巢)는 죽전안(竹田案)이 되었구나
 선인승학하전형(仙人乘鶴下田形)은 고슬봉하(鼓瑟峯下) 천기(天基)로다
 산양(山陽)에 주록형(走鹿形)은 목복성(木卜性)이 주인(主人)이라
 서오리(西五里)의 황룡부주(黃龍負舟)는 대강안(大江案)이 정녕(丁寧)하다
 주산(主山) 삼절하(三節下)에 용호삼봉(龍虎三峯) 탁립(卓立)하니
 간봉(艮峯)이 원자(圓字)하여 손신(巽辛)이 상대(相對)하여 쓰니
 혈이 높아 겸(鉗)이 되니 양수합류(兩水合流) 분명하다
 문과재사(文科才士) 많이 나고 혈식(血食) 일인(一人) 나리로다
 서남(西南)의 맹호형(猛虎形)가 사슴을 앞에 두고

저 혼자 지키면서 자체를 자랑한다
 백화남행(白花南行) 삼인(三人) 나고 연대근신(連代近臣) 나리로다
 남흥동(南興洞) 십리허(十里許)에 봉(鳳)하나 있었구나
 갈룡(渴龍)이 물을 보고 대강(大江)으로 내려오니
 금산하(金山下) 십리허(十里許)에 서복주형(西伏舟形)이 또 있구나
 주인봉(主人峰)을 자세히 보니 목성(木星)에 간괘(艮卦) 알아보소
 서남방(西南方) 앵무령(鸚鵡峯)에 앵무봉충(鸚鵡逢虫)267 귀(貴)하도다
 칠대문과(七代文科) 간간(間間)나고 오대공후(五代公侯) 나리로다
 경유좌(庚酉坐)에 간수(艮水)가 귀을(故乙)하여 자동류남(子東流南) 하는구나
 그 건너 을진맥(乙辰脉)에 만세영귀(萬歲榮貴) 하겠구나
 만일에 그르치면 적신형제(賊臣兄弟) 나리로다
 주인형체(主人形體) 짐작(斟酌)하면 화성(火姓)의 땅이로다
 창평(昌平)
 도화동(桃花洞)에서 유숙(留宿)하고 창평(昌平) 지경(地境) 넘어서서
 읍지(邑地)를 살펴보니 터는 비록 작으나
 산천(山川)이 명랑(明朗)하여 다출인재(多出人才) 하리로다
 명양동(鳴陽洞) 오리허(五里許)에 옥녀등공(玉女登空) 줄을시고
 그 아래 풍취나대(風吹羅帶), 중간(中間)에 혈(穴)이 나니
 잠시간(暫時間) 발복(發福)하여 오래 가기 어렵도다
 그 밖에 있는 혈(穴)은 날날이 흠(欠)이 있다
 북십리(北十里)에 상근용(上根龍)은 무흠대지(無欠大地) 되었구나
 정양동(定陽洞)의 장군출동(將軍出洞)은 패검형(佩劍形)이 더욱좋다
 갈룡(渴龍)이 물을 보고 걸음을 재촉하여
 머리를 땅에 박고 대강변(大江邊)에 내려오니
 목성(木姓) 밑에 천기(天基)보소 석자천손(石子千孫) 부귀(富貴)하리
 삼대명장(三代名將) 날 것이요 문과부절(文科不絕) 하리로다
 담양(潭陽)
 흥탄(欽歎)을 불사(不已)하고 담양(潭陽)으로 작로(作路)하여
 구암상(九岩上) 대로변(大路邊)에 혈(穴) 찾기 어려워라
 건해룡(乾亥龍) 수절하(數節下)에 갑묘(甲卯)로 입수(入首)하여 간비혈(艮飛穴)이
 미와사겸(微窩斜鉗) 되었으니 어느 명안(明眼) 알아볼고
 만일에 얻어쓰면 칠대문과(七代文科) 부귀(富貴)로다
 성산하(星山下) 십이봉(十二峯)에 팔대혈(八大穴)이 묻혔구나
 이혈(二穴)는 양택(陽宅)이요 육혈(六穴)는 양택(陽宅)이라
 수구(水口)를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묻힌 혈(穴)을
 알기야 알지마는 재작(裁作)268하기 쉬울소나
 장파산(長坡山)을 나가니 회룡형세(回龍形勢) 웅장(雄壯)하다
 그 맥(脉)에 묻힌 혈이 오혈(五穴)이 있겠구나

금채괘벽(金釵掛壁) 오공형(蜈蚣形) 연소(燕巢) 옥정(玉灯) 갈마형(渴馬形)은
 혈성(穴星)이 단정(端正)하나 불빈불부(不貧不富) 뿐이로다
 남(南)으로 내려가니 운중(雲中)에 미월형(微月形)은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고 광채(光彩)가 찬란하다
 신계룡(辛癸龍) 경일절(庚一節)에 경입수(庚入首) 곤좌간향(坤坐艮向)
 간임수(艮壬水)가 임진(臨辰)하고 성문(城門)은 해(亥)에 있고
 주작(朱雀)은 재전(在前)하고 병오봉(丙午峯)이 고수(高秀)하니
 삼봉하(三峯下) 대로상(大路上)에 완연히 혈(穴)이 누어있다
 백자손천(百子孫千) 하려니와 부귀부상(富貴富相) 불절하리
 동십리(東十里)를 내려가니 금구형(金龜形)이 또 있구나
 전후(前後)에 귀인(貴人) 있고 주안(主案)이 유정(有情)하다
 인산(人山)은 손(巽)에 있고 봉령(蜂峯)은 좌(左)에 있고
 팔자로상(八字路上)269의 칠봉하(七峯下)에 간행삼절(艮行三節)270 임쟁혈(壬爭穴)은
 임병(壬丙)이 상대(相對)하여 갑을(甲乙)이 귀미(故未)271하니
 전산(前山)이 나열(羅列)하고 삼양(三陽)이俱存(구존)하다
 병정룡(丙丁龍) 손좌건향(巽坐乾向)에 곤계수(坤癸水)가 귀갑(故甲)하니
 삼성오현(三聖五賢) 날 것이요 출신삼태(出身三台) 나리로다
 주인(主人)을 보려하니 말하기 어렵도다
 거지성관(居地姓貫) 짐작하니 해도인(海島人)272이 되리로다
 그 밖에 남은 혈(穴)은 어이 다 말할소나
 남평(南平)
 그리저리 구경하고 남평(南平)으로 넘어서니
 내곡남(乃谷南)에 반월형(半月形)은 삼태안(三台案)이 분명하다
 명산(明山)이 내조(來朝)하니 천기(天基)가 되었구나
 서산(西山)에 와우하전(臥牛下田) 청초(靑草)가 없는 곳에
 무엇을 보려하고 밭가에 누웠는고
 그 위의 채금척지(釵金擲地)는 옥녀(玉女)보고 반(半)만 웃네
 이마산(二馬山)의 오공형(蜈蚣形)은 당대 속발(速發) 뿐이로다
 영평동(永平洞) 십오리(十五里)에 황사출초(黃蛇出草) 숨어있다
 서북(西北)의 갈룡출동(渴龍出洞)은 양택(陽宅)으로 내려왔다
 동야(東野)에 장군출동(將軍出洞) 호거암하(虎距岩下) 있었구나
 서북(西北)의 갈룡형(渴龍形)은 물을 찾아 오는구나
 대산하(大山下) 축간맥(丑艮脉)에 아룡농주(兒龍弄珠) 생겼구나
 문무(文武) 칠대(七代) 날 것이요 귀무적세(貴無敵世)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임자로다
 혈재원중두경(穴在圓中斜鉗)이라 그 뉘라서 알아보리
 그 밖에 있는 혈(穴)은 불과 사대(四代) 하리로다
 광주(光州)

죽장망예(竹杖芒屨) 바쁜 걸음 광주(光州)로 올라 보니
 옥녀봉하(玉女峯下)에 노인정혈(老人頂穴) 자좌오향(子坐午向) 암석상(巖石上)에
 세계(細溪)를 앞에 놓고 남 모르게 숨었구나
 서이십리(西二十里)의 금슬산(琴瑟) 아래에 금오지수(金鰲之水) 생겼구나
 뒤에는 석봉(石峯) 있고 앞에는 건천(乾川)이 있다
 용지후(用之後) 십팔년(十八年)에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서남(西南)에 옥녀산화(玉女散花) 군선(群仙)으로 안(案)을 삼고
 금채(金釵)를 손에 쥐고 공연히 춤을 춘다
 이 주인 보려하니 목산(木山)에 이괘(離卦)273로다
 동오리(東五里)의 비봉형(飛鳳形)은 삼지안(三池案)이 다정하다
 동방(東方)에는 용(龍)이 있고 북에는 말이 있다
 이 혈을 찾았으면 무가지보(武價之寶) 되리로다
 남삼리(南三里)에 군신봉조(君臣峯朝) 명현군자(名賢君子) 나겠구나
 전후좌우 둘러보니 편편(片片)이 금(金)이로다
 문과(文科) 팔대(八代) 나온 후에 혈식지인(血食之人) 나겠구나
 남삼리(南三里)에 회룡은산(回龍隱山) 토산정괘(土山鼎卦)274 보았어라
 사척하(四尺下) 백토색(白土色)에 새 알이 있을터니
 돌을 놓고 쓰게 되면 칠대문과(七代文科) 백자천손(百子千孫)
 구대진사(九代進士) 남행증직(南行贈職) 말로는 못 다하리
 용호(龍虎)가 중첩하고 묘수(卯水)가 귀정(故丁)이라
 동(東)에 있는 선녀무수(仙女舞袖)라 조천횡당(朝天橫當)275 안(案)을 삼아
 중중입석(重重立石)이 혈순(穴脣) 되니 대소과경(大小科慶) 흔히 나리
 이 산주인 그 누구인고 목산(木山)에 소축괘(小畜卦)라
 동십리(東十里)의 행주형(行舟形)은 쌍증(雙檣)로 안(案)을 하리
 별로 좋을 것이 없으나 불빈불부(不貧不富) 하리로다
 서북(西北)에 사룡취회(巳龍聚會)는 혈재요당(穴在凹膛) 하였구나
 대강(大江)으로 파(破)를 하니 판서(判書) 이대(二代) 나겠도다
 그 안의 회룡고조(回龍顧祖)는 대야중(大野中) 독산(狺山)이로다
 용호(龍虎)도 회포(回抱)하고 좌우에 선익(蟬翼)이 생겼으니
 문무(文武) 삼대(三代) 하려니와 부귀겸전(富貴兼全) 하리로다
 경양(景陽) 팔리(八里) 원봉하(圓峯下)에 암봉(鳳)이 알을 품고
 대수품을 의지하고 말없이 숨었으니
 이것을 자세히 보니 양택(陽宅)으로 생겼구나
 서대강변(西大江邊)의 증산(增山) 북(北)에 금룡하수(金龍下水) 불작시면
 문과일인(文科一人) 증직삼대(贈職三代) 흰령계사(蝻蛉繼祀) 한 후에
 백자천손(百子千孫)에 부(富)하고 문인재사(文人才士) 나리로다
 이 산 주인 성명 보니 수토산(水土山)에 수(隨)276리로다
 북쪽으로 올라가니 갈(渴)한 말이 물을 마시고

큰 절을 앞에 놓고 안장(鞍裝)으로 몸을 싸고
 언연히 누웠으니 알아볼 이 누 있으라
 용두(龍頭)에 큰 길 있고 호두(虎頭)에 샘(泉)이 있다
 삼대(三代) 후(後) 절도사(節度使)와 자손천억(子孫千億) 되리로다
 주인을 알자하면 화산여괘(火山旅卦) 되오리라
 혈재정중(穴在正中)은 자당처(自當處)에 불편불의(不偏不倚) 하였도다
 축입수(丑入首) 간좌원(艮坐源)에 경유수(庚酉水)가 귀정(故丁)하니
 서쪽으로 돌아보니 노옹(老翁)이 낙대 놓고277
 동남쪽 대야중(大野中)에 삼어품자(三魚品子) 찬란하구나
 용지구년(用之九年) 속발(速發)하여 전지무궁(傳之無窮) 하리로다
 서산(西山)에 앉은 옥녀(玉女) 머리 풀어 몸에 감고
 치마 벗어 산(山)에 걸고 금채(金釵)를 가로잡고
 계수(溪水)를 의지하여 하염없이 서있노라
 남산(南山)에 있는 선인(仙人) 옥녀(玉女) 보고 춤을 춘다
 혈심(穴深) 오척(五尺) 파면 석불(石佛) 일쌍(一双) 있겠구나
 상(傷)치 말고 쓰게 되면 간간(間間)이 용사(勇士) 나리로다
 삼각산(三角山) 서북록(西北麓)에 양대혈(兩大穴) 또 있구나
 하나는 회룡고조(回龍顧祖) 또 하나는 아득실모(兒犢失母)
 죽어가는 사람을 어렵게 살려 내면
 이 혈(穴)을 찾아 줄 것이니 적덕수선(積德修善) 하소서
 삼대증직(三代贈職) 먼저 하고 문무겸전(文武兼全) 하리로다
 남악(南岳) 약마희근(躍馬戲勤) 선빈안(仙賓案)이 생겼구나
 중중(重重) 용호(龍虎) 회포(回抱)하니 불득술파(不得戍破) 분명하다
 일품부귀(一品富貴)하고 누대진사(累代進士) 백자천손(百子千孫) 나겠구나
 거주성관(居住姓貫) 알자하면 화산겸괘(火山謙卦)278 해득하소
 동십리(東十里)의 문장휘필(文章揮筆)은 옥연안(玉硯案) 대천변(大川邊)에
 천기(天基)하나 생겼구나 부귀겸전(富貴兼全) 하리로다
 보대산(山) 대치남록(大峙南麓) 양택(陽宅)이 또 있구나
 내외사각(內外砂角)279이 회포(回抱)한대 혈하(穴下) 원천수(源泉水)가
 곤간(坤艮)으로 들어가서 수구(水口)가 장쇄긴밀(藏鎖緊密)하니
 중국승상(中國丞相)한 후에 자자억손(子子億孫) 부절(不絕)하리
 천금사(千金砂)에 길이 나면 허명(虛名)만 전(傳)하리라
 금채괘벽(金釵掛壁)은 옥소형(玉梳形)로 북유곡(北榆谷)에 있느니라
 독시삼대(狷侍三代) 하온 후에 내외손(內外孫) 번성(繁盛)하리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려니와 도집(都執)을 잡으리라
 이 산 주인을 살펴보니 대성(大姓)이 완연하다
 무등산(無等山) 올라서서 전후좌우 살펴보니
 동(東)으로 내려와서 금당산(金堂山)이 생겼구나

목성하(木星下) 대장형(大將形)은 혈재검중(穴在鉗中) 하였도다
 혈상(穴上)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기고병장(旗鼓兵帳) 벌었는데 복두모홀(幞頭帽笏)이 분명하다
 병정손신(丙丁巽辛)이 나열(羅列)하여 임기(壬氣)가 해(亥)로 오니
 삼월내(三月內)에 발복(發福)하여 천하명장(天下名將) 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수목산(水木山)에 감괘(坎卦)로다
 임강건해(壬坎乾亥) 십절하(十節下) 음양택(陰陽宅)이 무수(無數)하다
 수화성(水火姓) 대발(大發) 후에 토성(土姓)이 주인이라
 갑묘맥(甲卯脉) 팔절하(八節下)에 구두산(狗頭山) 뒤에 놓고
 호석(虎石)이 옆에 서며 어연(於然)히 앉았으니
 평탄(平坦)에 묻힌 혈(穴)은 금수성(金水姓)이 주인되리
 그 위로 올라가니 대소혈(大小穴)이 허다(許多)하도다
 백마산(白馬山)을 넘어가니 양택(陽宅)이 또 있구나
 대야(大野)를 앞에 놓고 태극(太極)280이 단좌하니
 명현재사(名賢才士) 간간(間間)하고 부귀누대(富貴累代) 하오리다
 걸음을 재촉하여 어형산(魚形山) 올라보니
 인간(寅艮)으로 과협(過狹)하고 축간(丑艮)으로 기두(起頭)하니
 평지음사(平地陰砂) 결인처(結咽處)는 절절(節節)이 기묘(奇妙)하다
 용래기처(龍來起處)에 선락(先落)하여 무요단좌(巫么端坐) 생겼구나
 병오(丙午)로 장맥(莊脉)하여 정일절(丁一節) 경이절(庚二節)에
 토성태극(土星太極)이 원후(圓厚)하여 비습처(卑濕處)에 혈(穴)이 나니
 구침(毬簷)이 분명하고 합금(合襟)이 단묘(端妙)하다
 일대수(一隊水)가 조당(朝堂)281하니 속발장원(速發長遠) 하겠구나
 이 산 주인을 보려하니 목화산(木火山)에 이괘(離卦)로다
 산정(山頂)에 올라 보니 현침혈(縣針穴)이 되었구나
 혈후석(穴後石)에 각(角)있어 위급척박(危急脊薄) 하였으니
 속발(速發)은 비록 하나 불과 삼대(三代) 하리로다
 용혈좌(龍穴坐)를 살펴보니 해좌(亥坐)에 손파(巽破)로다
 주인형세(主人形勢) 자세히 보니 수금산(水金山)에 정괘(鼎卦)로다
 을진맥(乙辰脉)이 회두처(回頭處)에 혈(穴)이 하나 생겼구나
 자손은 많지 않으나 향화부절(香火不絕) 하리로다
 와굴(窩窟) 속에 있는 혈(穴)을 그 뒤라서 알아볼고
 남록(南麓)을 굽어보니 삼사혈(三四穴)이 또 있구나
 자손은 비록 많으나 귀(貴)는 못 하리로다
 초절(初節)이 미진(未盡)하여 다시 일록(一麓)에 올라가니
 쓰기는 쓰지마는 성패(成敗)가 다단(多端) 하리로다
 귀봉형(故鳳形)과 옥녀형(玉女形) 불원지(不遠地)에 숨었구나
 북(北)으로 올라서니 음양택(陰陽宅) 무수하다

대치상(大峙上) 장군형(將軍形)은 흠(欠) 없이 대지로다
 산세(山勢)는 중중(重重)하고 군사(軍士)는 대대(隊隊)로 사니
 태극(太極)에 돌(突)이 있어 그 아래 굴(窟)이 되니
 좌향(坐向)을 보려하니 을진손사(乙辰巽巳) 동궁(同宮)282이라
 문무대장(文武大將) 수백인을 말하여 무엇하리
 장성(長城)
 그리저리 경유(逕遛)하고 장성(長城)으로 작로하니
 해수오산(海水鰲山)이 여기서라 산천(山川)이 회조(回朝)하여
 명랑(明朗)한 음양택(陰陽宅)이 촌보간(寸步間)에 하도 많다
 반등산(半登山) 대간맥(大幹脉)이 산수배합(山水配合) 하였구나
 남(南)으로 이십리(二十里)에 사룡취회(巳龍聚會) 천기(天基)로다
 동(東)으로 바라보니 보검출감(寶劍出匣) 생겼도다
 봉산(鳳山) 아래에 일대맥(一大脉)이 역수(逆水)로 돌아서니
 자손(子孫)에 문무과(文武科)는 대대(代代)로 끊어질까
 이 혈(穴) 주인 알려거든 토산간괘(土山艮卦) 자세히 보소
 남십리(南十里) 금채괘벽(金釵掛壁)은 용호(龍虎)가 회포(回抱)하고
 입수(入首) 위에 누운 돌은 어연이 웅장(雄壯)하다
 문과일인(文科一人) 백화삼인(白花三人)이요 부귀(富貴)도 장원(長遠)하다
 현무(玄武)가 특립(特立)하고 삼수(三水)가 합류(合流)하니
 서남(西南)으로 흘러가니 알아보기 쉬우리라
 사박(沙泊) 위로 올라가니 비룡(飛龍)이 구름타고
 행맥십절(行脉十節) 병정룡천(丙丁龍川) 용호(龍虎)없이 독행(狺行)하여
 끝나다가 다시 나서 와겸(窩鉗)으로 개구(開口)하니
 안산(案山)이 창고봉(倉庫峯)이라 큰 길 밖에 명당(明堂)보소
 혈심(穴深)이 오척(五尺) 파게 되면 적백황토(赤白黃土) 날것이요
 삼대(三代)를 경과 후에 부귀겸전(富貴兼全) 하오리라
 이 산 주인 찾아보니 화목산(火木山)에 이괘(離卦)로다
 그 아래 와룡(臥龍)이 청운(靑雲)을 잡아타고
 갈 곳이 없는 모양이 구름 속에 혈(穴)이 있다
 옥녀봉하(玉女峯下) 굽어보니 선인(仙人)이 춤을 춘다
 오대진사(五代進士) 날 것이오 일대상서(一代尙書)나리로다
 주인 성명 알자하면 목산진괘(木山晉卦) 자세히 보소
 태봉(胎峯) 아래의 복호형(伏虎形)은 면구안(眠狗案)을 하고 있다
 명당(明堂) 앞에 물이 나니 천기(天基)가 또 있구나
 손맥하(巽脉下)에 용(龍)이 나서 여의주(如意珠)를 다투는데
 문무겸전(文武兼全)하는 중에 위지삼품(位至三品) 되리로다
 기암하(崎岩下)에 칼이 있어 장군(將軍)을 찾아가는구나
 초년(初年)은 빈한(貧寒)하나 용사(勇士) 일인(一人) 날 것이니

칼을 찾으려고 하면 장군밭(將軍田)을 찾아가소
 백암(白岩)은 수구(水口) 되고 저 고치(鼓峙)는 안(案)이로다
 그 아래 천기(天基) 나면 진위(振威)는 무쌍(無雙)이라
 호령(芦嶺) 아래 광대암(廣大岩)에 직포(織布)하는 저 옥녀(玉女)야
 베는 아니 짜고 배필(配匹) 먼저 찾는구나
 이 혈(穴)을 얻어 쓰면 미색(美色)이 만조(滿朝) 하리로다
 남천하(南川下) 오정맥(午丁脉)에 집 짓는 저 봉황(鳳凰)은
 죽실(竹實)을 입에 물고 오동지(梧桐枝)를 찾는구나
 수구(水口) 득파(得破) 헤아리니 간방수(良方水)가 귀을(故乙)하니
 문과삼대(文科三代) 연출(連出)하고 한림청직(翰林淸職) 나리로다
 이 혈(穴)을 보려거든 당동(堂洞)을 물어보소
 진원(珍原) 남쪽 십오리(十五里)에 구름 속에 숨은 달이
 양택(陽宅)으로 생겼구나 수금성(水金星)이 발흥(發興)하리
 간계금성(艮癸金星) 수삼절(數三節)에 양택(陽宅)이 또 있구나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여 대강(大江)이 돌렸으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대부귀(大富貴)는 말 할 수가 다 없도다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삼성(三姓)이 대발(大發)하리로다
 대대(代代)로 진사(進士) 나거니와 남행관직(南行官職) 흔히 난다
 수성(水姓)과 화성인(火姓人)은 초발자손(初發子孫) 비록 하나
 이백년 내외간(內外間)에 무후(無后)가 흔히 되리
 진기(辰氣)를 많이 타면 서손(庶孫)이 번성(繁盛)하리
 그러나 이 터 기운(氣運) 여천지동노(與天地同老)하리
 물신치(物腎峙) 과협(過峽)하고 쌍귀주성(雙鬼樞星) 놓은 후에
 사장봉(師丈峯) 뒤에 두구 독서(讀書)하는 저 선인(仙人)은
 대학리(大學里) 옆에 놓고 안상(案床)을 높이 놓고
 엄슬단좌(掩膝端坐) 하였으니 혈재유중(穴在乳中) 분명하다
 대소과거(大小科擧) 흔히 나고 문장재사(文章才士) 나리로다
 갑묘(甲卯) 삼사절(三四節)에 을진(乙辰)으로 개장(開帳)하니
 병오곤(丙午坤) 칠봉하(七峯下) 십이절(十二節)이 손쟁기(巽爭氣)로다
 옥녀봉(玉女峯)에 일간맥(一幹脉)이 나니 우두암(牛頭岩)이 거기로다
 갑묘(甲卯) 삼사절(三四節)에 을진(乙辰)으로 개장(開帳)하니
 장중귀인(帳中貴人) 이것이니 어이 다 말할소나
 거기서 결인(結咽)하고 갑을(甲乙)로 내려온다
 토산맥(土山脉)에 삼암(三岩) 놓고 태극형체(太極形體) 더욱 좋다
 와중(窩中)의 한 기혈(氣穴)이 석곽(石槨)이 나겠구나
 차신(車身)에 청룡(靑龍)이 생겨 벽수(水)를 하고 있다
 안산(案山)의 천문(天門)283은 질마(馬)재 넘어 있다
 명당(明堂)은 긴속(緊束)하고 수구한문(水口捍門) 삼접(三接)이라,

회산(回山)이 공조(拱朝)하고 대천(大川)이 돌렸으니
 석토(石土)이 상잡(相雜)284 하였으니 옥녀(玉女)가 적안(的案)하다
 천장지비(天藏地秘) 하는 중에 귀신(鬼神)이 수직(守直)한다
 칠대한림(七代翰林)에 일대영상(一代領相) 오대왕비(五代王妃) 나리로다
 백자천손(百子千孫) 억만년(億萬年)을 우주배향(宇宙配享)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이 목성(木星)이니 수화성(水火姓)이 얻으리라
 중손용(中巽龍)이 석중혈(石中穴)은 재화(才華)는 없겠으나
 혈성(穴星)이 견고(堅固)하고 주안(主案)이 단정하니
 부귀(富貴)는 없겠으나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이 산 주인을 알자하면 화성(火姓)이 완전(完全)하다
 소손용(小巽龍)으로 건너가니 기기묘묘(奇奇妙妙) 더욱 좋다
 내팔거팔(來八去八) 기룡(騎龍)285 위에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고
 금수병장(錦繡屏帳) 돌렸으니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만일 얻었으면 만세영화(萬世榮華) 하오리라
 이 산 주인을 살펴보니 구월산(九月山)의 자손이라
 초발(初發)에 팔형제(八兄弟)가 동방급제(同榜及第) 하리로다
 수구(水口)로 내려오니 용두상(龍頭上)에 혈(穴)이 있다
 대와중(大窩中)에 혈(穴)이 있어 남모르게 숨었으니
 부귀(富貴)도 많거니와 수백대(數百代) 장구(長久) 하리
 그 위에 올라가니 백학(白鶴)이 날게 펴고
 청전(靑田)에 홀로 앉아 신선(神仙)자취 찾는 구나
 만산준고(萬山峻高)하니 석중토혈(石中土穴) 분명하다
 반석동(盤石洞)에 들어가니 숙호(宿虎)가 또 있구나
 반석(盤石)으로 몸을 싸고 이대후인(以待後人) 하리로다
 내외손(內外孫)이 구발(俱發)하여 천년향화(千年香火) 하리로다
 압식동(鴨食洞) 들어가니 상하혈(上下穴)이 다정하다
 길마(馬)재 올라서니 풍취나대(風吹羅帶)은 와우형(臥牛形)은
 절절(節節)이 굴곡(屈曲)하여 일령지간(一嶺之間)은
 그러나 누은 소는 목복성(木卜姓)이 차지하리
 백암(白岩)으로 올라가니 건해(乾亥) 입수(入首)로 가린 바위
 삼봉(三峯)으로 함께 서서 나를 보고 반기는 듯
 날날이 말하자면 팔대혈(八大穴)이 거기 있다
 조양리(朝陽里)로 넘어가니 오동지(梧桐枝)에서 우는 봉(鳳)이
 역수(逆水)로 안(案)을 삼아 삼개암(三個岩)을 앞에 두고
 단전(丹田)을 의지하여 벗을 찾는구나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대성지물(大姓之物) 분명하다
 그리저리 내려오니 다소혈(多小穴)이 무수(無數)하다
 산수(山水)가 배합처(配合處)에 음양택(陰陽宅)이 없을소나

속조투림(宿鳥投林) 하는 곳에 맹호출림(猛虎出林) 하는구나
 작동(鵲洞)은 앞에 있고 구암석(狗岩石)은 수구(水口)로다
 이 혈을 찾아 쓰게 되면 대부문과(大富文科) 누대(累代)하리
 거주성관(居住姓貫) 자세히 보니 황주인(黃州人)의 땅이로다
 백암산(白岩山) 아래 전후좌우 편편금(片片金)이 되었구나
 혈성(穴星)을 바라보고 오복동(五卜洞)으로 들어가니
 정미(丁未)로 역두(逆頭)하여 천인위귀(賤人爲貴)286 하리로다
 진연산(真燕山) 전후좌우에 십육혈(十六穴)이 숨었구나
 허다(許多)한 맥정기혈(脉靜氣穴)을 날날이 다 말할소냐
 서(西)으로 내려오니 옥녀단좌(玉女端坐) 보기 좋다
 음양택(陰陽宅)이 함께 나니 누대 근신(近臣) 하리로다
 천봉대강(千峯大江) 돌렸으니 혈식군자(穴食君子) 나리로다
 그 위에 선인무수(仙人舞袖)는 이대상서(二代尙書) 나겠구나
 창룡출운(蒼龍出雲) 쌍봉형(雙鳳形)은 위치삼품(位至三品)하리
 오산(鰲山) 사면(四面) 다가보니 우리나라 낙양(落陽)287이라
 산천(山川)이 수려(秀麗)하니 명승지지(名勝之地) 되었어라
 혈(穴) 하나 얻어 쓰면 그 외의 십이혈(十二穴)은
 머지 않은 곳에 있으니 절로 다 차지하리라
 오육년(五六年)을 산에 올라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땅 산수 구경하니 마음이 울울하다
 음택(陰宅)이야 많건만은 양택(陽宅)이 흔할소냐
 백산반등(栢山半登) 양대맥(兩大脉)이 음택(陽宅)이 더욱 많다
 내 나이 반백(半百)이라 보던 중 제일이라
 운수(運數)가 멀었으니 이런 산수(山水) 바랄소냐
 어와 내 신세 다 못될 일이로다
 고창(高敞)
 솔우치(峙)를 구경하고 고창(高敞)으로 넘어가니
 다소간의 있는 혈이 역기(逆氣)라 기묘하도다
 용취팔각(龍聚八角) 방마형(放馬形)288은 흠(欠)없이 생겼구나
 마형(馬形)은 보기 쉬우나 용형(龍形)으로는 어려우니
 반월형(半月形)과 복호형(伏虎形)은 장성지경(長城地境)이 불원(不遠)하다
 읍지도 편소(偏小)하거니와 산수도 적다
 무장(茂長)
 그 길로 바로 내려와서 무장(茂長)으로 넘어서니
 장사산(長砂山) 일지맥(一枝脉)은 가관지물(可觀之物)289 많도다
 五姓主人峰論
 土姓 孫亥沈琴嚴元任晉閔鳳奉都陶景太豈貢鞠葛鮑河明壯
 金姓 王龍張方柳元裴康黃成徐房溫文白申慶南俞盧楊安全韓

水姓 吳許蘇馬曾孟金西門表下余呂禹也貝睦杖槐囊魚單南宮門路

木姓 趙奇朱周孔洪曹高崔梁黃車夏劉陸權諸廉池朴卓范林郭

火姓 李施陣邊鄭薛尹千宋姜羅葵田咸邪石殿錢傳馬庾

乾甲丁 亥卯未 木局 甲祿在寅 乙祿在卯

巽庚癸 巳酉丑 金局 庚祿在甲 辛祿在酉

艮丙辛 寅午戌 火局 丙戌祿在己 丁巳祿在午

坤乙壬 申子辰 水局 壬祿在亥 癸祿在弓

木局以木爲分金餘皆放한要覽

壬丁坐 子未坐坤得乙破天地亥泰格坤申得午破卦母格凶丁得巽破合生得格巽得壬破矢地定位交泰同

子未坐坤乙得午破十五數配合格水火不相射格未得巳破山澤相通氣格巳得未破

孫勺有發福簪纓傳世格甲卯得坤破六呂相生格長方取絕

癸坤坐坤得丙破偉呂相生格甲卯得庚破消坐山格凶甲得酉破天地交泰格

丑申坐酉得己破取妻生格戊得巽破先天格申得午破文曲見水格

艮庚坐丙得酉破山澤乙相通格辛得丙庚破卦子破酉得亥庚破丁破坤破丁破六律相生格

甲申坐乾辛得巽破天地交泰格丁得亥破子母相害格乾得丁破息坐山格寅亥得辛破

消坐山郎滅坤得巽破天地交泰格

寅酉坐戌得午破午破戌破取妻生子格己得申破形刊戮歎格

卯戌坐戌得坤破六律桐生格丙丁得坤破害犯子消凶郎滅亥丁得巽破十五數合格亥得丁破

雷風相待格

乙乾坐坤得壬乾破十五數配合格亥得庚坤破犯害母格乾得庚破六律相生格

辰亥坐申得丑破九數生子格乾亥得丙破六害破寅申得戌破陰陽相濟格飛龍俠水格

巽壬坐艮得乾破十五數配合格辛得壬破六律相生格癸得辛破掛子破艮得庚破雷風相搏格

巳子坐艮得酉破先後天相格山澤通泰格申得寅破刑戮敗凶酉申得丑破陰陽相濟格

天柱滅乾甲坐離壬寅戌破離坐震破震坐艮破

門破艮坐乾破坤乙坐坎癸申辰破坎坐兌破兌坐巽破巽坐坤破

大白杀 壬坎癸甲乙卯 壬坎癸 辰巽巳庚酉申 辰巽巳

丙午丁未坤申 丙午丁 戌乾亥丑寅艮 戌乾亥

窺山論

辛酉窺山定出聖人 乙辰窺山定出盜賊 卯酉窺山子孫貧寒 戌亥窺山百日內大凶 坤申窺山子孫早死

丁酉窺山子孫龍朔 癸丑窺山女出淫亂 子丑子丑家內賊出第富 寅卯寅卯子孫敗惡 子午子午賊乱大刑

艮方艮方乱賊子 乾方窺山諸頭石大風瘡 癸丑三峯辛方一峯火突九見 丁方三峯狂風病

火山

長生寅 長男亥 長女巳

大庙辰 包絕亥 中男子 小男未 中女午 小女丑

大杀子 小杀丑 婚戌婦 辰男敗

水土山

長在辛 長男亥 長女巳

大庙辰 包絕巳 中男子 小男丑 中女午 小女未

大杀午 寅女申 小杀末 材中女

金山

長在巳 長男申 長女寅

大庙丑 包絶申 中男酉 婿丑婦卯 中女卯 男財己女財亥

辰婦戌男 才寅

大杀酉小杀卯

包絶申大杀酉小杀戌

小女戌

木山

長生亥 長男寅 長女申

大庙未 小男辰 中男卯 婦未婦丑 中女酉 男財亥女財己

包絶申大杀酉小杀戌 小女戌

偷尸 甲卯龍辰戌丑庚風踏吹回穴上不出去則爲偷尸左右在墓之四五步長在方四五尺下有之
養尸 坤兌坎乾方窺峯手足出外矣

疑龍經 忠肝集

山有變化之元妙水有曲直之吉凶欲明其術須察其奧無知之业車不以山川性情氣脉

爲本全以天星理氣生旺之說作書感人真以爲維經爲上指龍指向利口禩人可愛

莫甚豈知山川自有山川之生貴賤自貴賤之形体以要龍脉爲本巒頭

爲体砂水爲用神察其搏擾俯仰順逆生死陰陽緩急動靜向背之

性情庶哉復得郭陽諸先生之定宋耳谷中閔鎖爲上平洋水聚爲佳所貴

者平中之陰所愛者谷中之陽動中觀其脉靜中觀其氣勢求抗動中靜穴求

於靜中動良龍須乎脉之定穴當註氣現明緩急纔加吞吐以陰陽而不浮

況立而須憑唇口愛親當註界明山有枝龍之別地有厚薄之宜壠之脉

陰陽取陽枝龍之地陽陽取陰支有陽猛成陰壠有陰極成陰陽成可權須陽

莫湊地厚處當註薄取地薄處須尋厚裁取薄者亦須唇口取厚者須取

其瘠平洋無氣脉之可規定穴有水神之徵佐觀生死直曲之間尋行止於

雌雄之內形体臥平田氣脉從乎水現体小者當乎中体大者須察乎傍傍

生則動死則靜不現於前須示其側方則取動圓則取靜來須脉現止須氣

納矣據催官理氣之說六秀爲貴玄龍爲尊四墓寅脉更劣然有亥

艮六秀之龍終故絶敗者有寅甲庫行龍出大富貴者何也皆以因星体貴

以貴星体賤以賤古之名墓鑿鑿可據不誣矣

陰至則生在於陽陽至則生在於陰下生上者上生下者爲陰峻爲陰平爲陽

乳爲陰窩爲陽取乳者葬其平取窩者葬其急山壠之脉其氣屬陰

多乘其枝故日葬麓平洋之地其氣屬陽多取其頂故葬其山顛有

半陽半陰之脉或平乳金面有二分陰八分陽八分陰二分陽陰多則取陽

多則取陰見其龍勢之有來是亦不來見龍勢之不來是亦有來見其

來而不來者脉不至也見其不來而來者氣之至也靜則觀其脉隱則

觀其氣花穴及生龍虎分合都是孤陰真脉瀕分合真龍藏於砂水

初玩無情細察自妙龍以剝擾爲先奇特爲尊剝擾者祖中出細
細中出祖奇特者大中特者小小中特大異者閃藏頓跣向別象像變化
莫測故日龍也與象山同流不斷不異雖能起伏皮毛不擾摠有星峯
疲削手脚尖射此非龍也行龍不斷則不伏則不起卸須到低起
要成星

장상맥(將相脉)이 전무하니 파벽(破僻)290하기 어려우리
다소간에 있는 것이 보자손(保子孫) 뿐이로다
선운산(禪雲山) 상상정(上上頂)에 혈(穴)이 하나 생겼구나
부귀문과(富貴文科) 하려니와 삼대(三代)가기 어려우리
동호변(東湖邊) 축간맥(丑艮脉)에 고기 잡는 어부(漁夫)들아
선동(仙童)의 노래 듣고 고기 잡기 잊었도다
이 혈을 찾아 쓰면 만세영화(萬歲榮華) 하련마는
모랫가에 묻혔으니 속안(俗眼)으로 어이 알리
바로 내려올 즈음에 길가에 있는 것이
용도 아니고 범도 아니니 겨우 쓸만하다
해상절 건입수(亥三節 乾入首)에 죽사동(竹師洞) 촌후(村後)이라
자세히 가려 쓰면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영광(靈光)
허허 탄식(歎息)하고 영광(靈光) 지경에 넘어서니
북七里(北七里) 양수간(兩水間)에 육룡쟁주(六龍爭珠) 하는구나
여의주(如意珠)가 셋이 되니 혈(穴) 찾기 어려워라
용장혈졸(龍長穴拙)하여 합금처(合襟處)291에 겸(鉗)이 나니
평지음사(平地陰砂)가 회포(回抱) 하니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보리
이 산 주인 그 누구인고 수화성(水火姓)이 대발(大發)하리
문내(門內)로 들어와서 좌우로 살펴보니
동서남북 사방중(四方中)에 서남산수(西南山水) 더욱 좋다
서오리(西五里) 화접심향(花蝶尋香)292은 당대에 속발하여
문무과(文武科)도 많이 낳고 대대로 부귀하리라
간태목성(艮兌木星) 정토혈(正土穴)에 경유수(庚酉水)가 동으로 가니
찾기도 어렵거니와 알아볼 이 뉘 있을고
북이십리(北二十里) 대과협(大過峽)에 자웅삼혈(雌雄三穴) 더욱 좋다
자기목성(紫氣木星) 수삼절(數三節)에 평지결인(平地結咽) 자조하니
일간(一幹)은 서(西)로 가서 용사취회(龍已聚會) 되었구나
혈후(穴後)에 천재토성(天載土星) 태산(泰山)이 생겼구나
사대승상(四代丞相) 칠대왕비(七代王妃) 백자천손(百子千孫) 문무과(文武科)는
대대로 날 것이니 저마다 얻을소냐
주인봉(主人峯)을 찾아보니 목토산(木土山)에 혁괘(革卦)293로다

동령치(東嶺峙)를 넘어서니 와우형(臥牛形)은 천기(天機)로다
 일대해수(一隊海水)가 조당처(朝堂處)294하니 인재부고(人才府庫) 되리로다
 오백년이 지나가면 명현군자(名賢君子) 나리로다
 병정방(丙丁方)이 통고(通高)295하니 대대로 인물 끊어질까
 화개금성(華蓋金星) 주인 되니 오성(五姓)이 구발(俱發)하리라
 장상치(將相峙)에서 결인(結姻)하고 은선봉(隱仙峯)이 돌아드니
 용호(龍虎)없이 생긴 혈이 귀룡도강(鬼龍渡江)이 정녕하다
 운사(雲砂)가 나열(羅烈)하고 병정(丙丁)이 중중(重重)하니296
 만종록(萬種祿)을 먹을 부귀(富貴) 입으로 난다 못하리로다
 아름다운 저 혈성(穴星)이야 눈으로는 못 보겠다
 더욱 귀하다 양평지재(良平之才)297 대부핍절(代不乏絕) 하리로다
 이러함으로 삼기중(三奇中)에 제일(第一)이 되었구나
 혈전(穴前)에 묘방수(卯方水)는 대해(大海)로 들어가니
 제 임자 못 만나면 열번 써도 다 파겠다
 그리저리 구경하고 선진(仙津) 나루 건너서니
 해변(海邊)에 높은 산이 구수산(九岵山)이 가깝구나
 그 산을 올라가니 고기 잡는 저 어옹(漁翁)들은
 낚시대를 드리우고298 구덕을 자주 본다
 당대발복 장원(長遠)하니 수대부절(秀大不絕) 하겠구나
 주인 성명 찾아보니 금수산(金水山)에 손괘(損卦)로다
 전후(前後)에 있는 혈(穴)은 불빈불부(不貧不富) 하리로다
 장두산(長頭山)을 돌아서니 해변(海邊)에 대와(大窩)299 있어
 상하혈(上下穴)이 생겼구나 화성(火姓)이 주인되리
 봉산(鳳山)에 봉(鳳)보소 염소(掩所)에 괴혈(怪穴)보소300
 보자손(保子孫)은 비록 하겠으나 대소과기(大小科氣)는 없었구나
 그 밖에 승지(勝地) 없어 시목도(柿木島)에 돌아드니
 원(猿)성이301가 하나 있어 과실(果實)을 품에 품고
 추풍(秋風)을 의지하여 뚜렷이 앉았구나
 곤신맥(坤申脉)에 경입수(庚入首)에 간수(艮水)가 귀을(啟乙)하니
 명당(明堂)이 광활(廣闊)하여 재작(裁作)하기 어려워라302
 부귀도 많거니와 자손이 천억(千億)이라
 태금성(兌金星)이 주인되니 대대로 영화(榮華)하리로다
 성명 원근(遠近) 이 두가지 수화산(水火山)에 겸괘(謙卦)303로다
 다 말하기 어렵도다 기간맥(其幹脉)에 허다(許多)한 혈(穴)은
 거문고 타는 저 옥녀(玉女)는 무슬안(撫瑟案)이 완연하다
 북머리가 멀었으니304 혈락평지(穴落平地) 호습처(湖濕處)라
 월명수청(月明水淸) 한 곳에 북소리 나는구나
 아마도 이 한 혈은 화성(火姓)이 주인이라

죽장(竹杖)으로 산을 치니 삼각산(三角山)이 여기 있다
 산정(山頂)에 올라보니 경계건해맥(庚癸乾亥脉)이 모두
 사절하(四節下)에 원후성체(圓厚星體) 혈재와중(穴在窩中) 하였구나
 비문(碑文)을 상고(詳考)하니 권씨묘(權氏墓)가 지켰구나
 말 물을 곳이 전혀 없어 그저 가기 섭섭하여
 필속(筆束)에 붓을 내어 이 산 운로(運路)를 기록하여
 혈중(穴中)에 묻어놓고 흔연히 돌아서니
 일후(日後)에 유식군자(有識君子)는 과히 심책(深責) 마옵소서
 한탄불사(恨歎不已)하고 생실로 내려오니
 그 가운데 묻힌 혈(穴)이 작지 아니 하겠구나
 수구원봉(水口圓峯) 볼작시면 명철지인(明哲之人) 나리로다
 그 길로 구경하고 배례치(拜禮峙)를 올라서니
 산진처수진처(山盡處水盡處)에 배기상영(拜起相迎) 더욱 좋다
 용장혈줄(龍長穴拙)하여 검(鉗) 속에 굴(窟)이 되니
 연대장원(連代長遠)하리라 이 큰 혈(穴)을 뉘라서 알아볼고
 인간맥(寅艮脉)에 신술파(辛戌破)를 세속인(世俗人)이 알아볼가
 천마(天馬)는 앞에 있고 기고(旗鼓)는 우(右)에 있다
 오로봉(五老峯)에 오는 기운(氣運)이 밖에 다시없네
 자손복록(子孫福祿) 많겠으니 차읍(此邑)에서 두 자리라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보니 화산려괘(火山旅卦) 해득(解得)하소
 그 산을 넘어서니 임자 없는 저 망아지
 마구(馬廐)를 곁에 두고 갈 바를 전혀 몰라
 말뚝바위 바라보고 누습처(漏濕處)에 누었구나
 이 혈을 찾자하니 주인 없어 어려워라
 만일 얻어 쓰면 문천무만(文千武萬) 나겠구나
 명당(名堂)에는 자손(子孫) 있어 백대유시(百代遺侍) 하리로다
 그길로 내려오니 창룡출운(蒼龍出雲)이 기묘하다
 갑묘을진(甲卯乙辰) 손사입수(巽巳入首)하여 경수(庚水)가 귀계(故癸)하니
 사산(四山)이 공조(拱朝)하여 주산(珠山)이 수구(水口)로다
 대소과경(大小科慶)에 대부귀(大富貴)는 대불핍절(代不乏絕) 하겠구나
 당산동(堂山洞) 들어가니 다소혈(多小穴)이 많도다
 금채괘벽(金釵卦壁) 오공형(蜈蚣形)과 선인무수(仙人舞袖) 쌍룡출운(雙龍出雲)
 십리내(十里內)에 생겼으나 목화성(木火姓)이 지키리라
 갑산(甲山) 동남(東南) 둘러보니 혈(穴)이야 많건마는
 주인봉(主人峯)이 독립(狺立)하니 알아볼 이 뉘 있을고
 기중(其中)에 귀한 혈(穴)은 자학귀소(紫鶴故巢)305 뿐이로다
 학동(鶴洞)은 앞에 있고 삼산(三山)이 뒤에 있다
 혈(穴)이 있어 검와(鉗窩) 중(中)에 평지음사(平地陰砂) 아니런가

만일에 얻어쓰면 칠대한림(七代翰林) 삼대문과(三代文科)
 대대로 날 것이요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그리저리 구경하고 마복산(馬福山)을 넘어가니
 전후좌우 회포(回抱)한데 봉(鳳) 하나 생겼구나
 건해삼절(乾亥三節) 결인(結咽)하고 해좌(亥坐)에 손파(巽破)로다
 대소과(大小科)도 많거니와 사대승상(四代丞相) 이대왕비(二代王妃)
 만세(萬歲)를 장원(長遠)하려니와 명만일국(名萬一國) 하리로다
 이 주인을 알려거든 금산돈괘(金山豚卦)306 해득하소
 그 길로 내려오니 삼계현(森溪懸)이 여기로다
 당국(堂局)이 광활(廣闊)하니 인물(人物)이 번성하리
 발옥산(鉢玉山) 일기맥(一氣脉)이 자기목성(紫氣木星) 놓았구나
 분향(焚香)하고 사배(四排)하면 그곳에 들어가니
 서남(西南)에 발우(鉢盂)307 놓고 노상에 예불(禮佛)하니
 혈성(穴星)이 방정(方正)하니 임해맥(壬亥脉)에 손수(巽水)로다
 문무칠인(文武七人) 날 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수양산(首陽山) 대과협(大過峽)에 남은 기운 찾아가니
 대독치(大讀峙)308 오과협(五過峽)에 무쌍지혈(無雙之穴) 많겠구나
 나주(羅州)
 그 산에 올라서서 나주(羅州)로 내려오니
 역기(逆氣)309로 가는 용(龍)이 군오(群鳥)가 분명하다
 용혈(龍穴)을 취택(取擇)하니 보기자손(保其子孫) 뿐이로다
 신술(辛戌)로 결인기두(結咽起頭)하고 용진산(勇珍山)이 특립하여
 축간(丑艮)으로 기복(起伏)하니 진룡정혈(眞龍正穴)310 이것이라
 쌍귀추성(雙鬼樞星)311 세운 곳에 곡척기괴(曲尺氣怪)가 정녕하다
 유두(乳頭)에 혈(穴)이 나니 횡량안(橫樑案)이 다정하다
 자손복록(子孫福祿) 많건마는 부호(富豪)는 전혀 없다
 노서하전(老鼠下田)과 수다혈(數多穴)은 수토산(水土山) 면제(免濟)로다
 낙월치(落月峙)의 과협처(過峽處)에 반월형(半月形)이 기묘하다
 혈후(穴後)에 천재목성(天載木星)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보리
 용지팔년(用之八年) 초발(初發)하여 부귀경전 하리로다
 해입수(亥入首) 건좌혈(乾坐穴)에 당문수(堂門水)가 원조(遠朝)하니
 장손은 무흠(無欠)하나 중말(中末)이 초패(初敗)보리
 간행팔절하(艮行八節下) 선인형체(仙人形體) 특립(特立)하니
 이것이 주인(主人)인가 남(南)의 처사 하는고
 경계맥(庚癸脉)에 장군형(將軍形)은 간수귀을(艮水故乙) 하였도다
 문과(文科) 칠인(七人) 날 것이요 부귀무쌍(富貴無雙) 하리로다
 수월동(水月洞) 넘어가니 상하혈(上下穴)이 또 있구나
 자손(子孫)은 많이 나고 백세향화(百世香火) 불절하리

주인형체(主人形體) 살펴보니 목화성(木火星)이 되리로다
 그 중에 대간(大幹)이 이십육절(二十六節) 옹위하니
 대혈(大穴) 나는 근본이라 그 뉘라서 분별하리
 걸음을 바빠하여 수리를 내려가니
 화개금성(華蓋金星) 차린 후에 만월괘서(滿月卦西) 하였구나
 혈전(穴前)에 올라서서 전후좌우 살펴보니
 칠성봉(七星峯) 삼태안(三台案)은 금수병장(錦繡屏帳) 돌렸으니
 문천무만(文千武萬) 십대상(十代相)과 칠대왕비(七代王妃) 만종록(萬鍾錄)을
 적덕적선(積德積善) 아니하고 저마다 얻을소냐
 성명좌파(姓名坐破) 일어나니 수목산(水木山)이 감괘(坎卦)로다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상하분별(上下分別) 어려워라
 유중(乳中)에 미와(微窩)312 보소 용지오년(用之五年) 속발(速發)하여
 이십구대(二十九代) 갈 것이니 종사천고(蟲斯千古) 부러워하리
 현연히 일어나서 용진혈(勇珍穴)을 헤아리니
 건해남록(乾亥南麓) 신대협(辛代峽)에 단봉형세(丹鳳形勢)가 제일이라
 혈릉(穴陵)에 천륜토성(天輪土星) 알아보기 어려워라
 자기관성안(自己官星案)이 되니313 만대영화(萬代榮華) 하리로다
 겸(鉗)속에 와(窩)가 되니 청사황토(靑沙黃土) 나리로다
 이 산 주인 그 뉘런고 수화성(水火姓)의 땅이로다
 장삼(長衫)을 펼쳐입고 복룡상정(伏龍上頂) 올라서니
 어병소막(御屏所幕) 두른 밑에 혈(穴)하나 묻혔구나
 전안(前案)이 광활(廣闊)하여 수백리(數百里)를 열었으니
 화성(火姓)이 주인이라 그 외 사람은 쓸데없네
 좌(坐) 하나만 그르치면 삼대(三代)가기 어려워라
 죽장(竹杖)으로 가리키며 남록(南麓)을 굽어보니
 주인 없이 묻힌 혈(穴)이 허다(許多)이 또 있구나
 세속(世俗) 사람 눈 있거든 이 혈 찾아 쓰게 되면
 백자천손(百子千孫)하고 대소과(大小科)는 대불핍절(代不乏絕) 하리로다
 북쪽으로 돌아보니 다소간에 있는 혈(穴)이
 장중(帳中)에 돌렸으니 수성(水姓)이 지키리라
 용(龍)과 맥(脉)이 옹위하여 평지로 내려가니
 별스런 기상(氣像) 있기로서니 그 아래로 내려가니
 황룡(黃龍)이 배를 지고314 자취 없이 숨었으니
 아마도 이 한 혈(穴)이 기기묘묘 하겠구나
 대강(大江)은 앞에 있고 대로(大路)는 뒤에 있다
 간행이절(艮行二節) 해이절(亥二節) 을수귀미(乙水啟未) 임좌(壬坐)로다
 손량간병(巽輓艮丙)이 상봉(相逢)하고 건곤자오(乾坤子午) 상봉(相逢)하니
 용두봉(龍頭峯) 수구(水口) 막이는315 주산(珠山)이 완연하다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천륜(天輪) 전대(轉圜) 돌렸으니
 삼성오현(三聖五賢)에 오대한림(五代翰林) 장상(將相)이 연출(連出)하리
 칠대(七代)를 지나가면 우주배향(宇宙配享) 하겠구나
 오척칠촌(五尺七寸) 파게 되면 석극중(石壺中)에 쌍리(雙鯉)로다
 상치 말고 쓰게 되면 육십팔대(六十八代) 장원(長遠)하리
 혈(穴)을 보고 주인 보니 금토성(金土姓)이 아니던가
 금성하(錦城下) 행주형(行舟形)은 사백여년의 왕도(王都)로다
 남쪽으로 내려가니 쌍룡합금형체(雙龍合襟形體) 좋다
 태봉(台峯)은 왼쪽에 있고 반월(半月)은 오른쪽에 있다
 감계행룡(坎癸行龍) 임강맥(壬坎脉) 해좌사향(亥坐巳向)에 손파(巽破)로다
 주인형체 살펴보니 목복성(木卜姓)이 대발(大發)하다
 그 위에 올라서니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다
 그 옆에 늙은 용(龍)이 여의주(如意珠)를 다투는구나
 중태(重兌)로 발족(發足)하여 임해(壬亥)로 작수(作首)하여
 경신(庚辛)에 어대(魚袋)놓고 경방수(庚方水)가 귀갑(啟甲)하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영화 영세무궁 하리로다
 오척삼촌(五尺三寸) 파거든 오색보검(五色寶劍) 있겠구나
 부디부디 조심하여 손상치 말고 써라
 모산봉하(母山峯下) 십육절(十六節)에 음양택(陰陽宅)이 또 있구나
 대소과(大小科)는 비록 나나 연패(年敗)가 다단(多端) 보기 싫다
 그렇저런 구경하고 서북산수(西北山水)가 절승(絶勝)하다
 행주(行舟)는 천기(天基) 되고 앞드린 사자(獅子) 있겠구나
 비룡(飛龍)은 잠을 자고 호마(胡馬)는 춤을 춘다
 진손토체(辰巽土體)에 미와혈(微窩穴)이 이불산이 생겼구나
 대소과기(大小科氣) 흔히 나고 자손천억(子孫千億)에 부귀하니
 안산(案山)이 중첩(重疊)하니 수구(水口)가 원쇄(圓鎖) 하였으니
 종사천고(蟲斯千古) 하려니와 식록만종(食祿萬鐘) 어려울가
 오척오촌(五尺五寸) 파게되면 흥분사금(紅粉砂金)에 청기(靑器)로다
 주인봉 자세히 보니 수토성(水土姓)이 지키리라
 산맥(山脉)이 청수(淸秀)하여 북룡(北龍)재 넘어서니
 주룡임강(主龍壬坎) 경兌회두(庚兌回頭) 칠사기(七四器)는 천기(天基)로다
 화성(火姓)은 음행(淫行)하고 목성(木姓)이 대발(大發)하리
 용사취회(龍巳聚會) 부귀혈(富貴穴)은 영포(榮浦)가 생겼구나
 주인형체(主人形體) 건괘(乾卦)되니 서백성(徐白姓)이 대발(大發)하리
 금성산(錦城山) 전후좌우 음양택(陰陽宅)이 무수하다
 이 산 주인 살펴보니 수토산(水土山)에 임괘(臨卦)316로다
 그 위에 올라가니 칠봉하(七峯下) 연주맥(連珠脉)이
 와우형(臥牛形)이 생겼으니 청초(靑草)가 멀었구나

갑묘맥(甲卯脉)에 경극좌(庚亟坐)에 간수귀을(艮水故乙) 정녕하다
 먼저는 우시(牛時) 차고 뒤에는 축령(丑嶺)보소
 손신(巽辛)이 상대하고 간병(艮丙)은 상망(相望)이라,
 복호(伏虎)는 재축(在丑)하고 청룡(靑龍)은 재정(在丁)317하다
 사척(四尺) 아래에서 삼색토(三色土)와 생물(生物) 거북이가 날것이니
 손상치 말고 쓰게 되면 삼공도백(三公道伯) 나리로다
 사십자(四十字) 결록(訣錄)318 가운데 금토성(金土星)이 주인이라
 사욕(私慾)을 멀리하면319 보기도 쉬우리라
 그 재를 넘어서니 노봉귀소(老鳳故巢) 더욱 좋다
 혈재상취(穴在上聚)하니 미와(微窩) 중에 간좌(艮坐)에 술파(戌破)로다
 을진방(乙辰方)이 공허(空虛)하니 초년패(初年敗)는 더욱 좋다
 삼십팔년(三十八年) 지난 후에 자손복록(子孫福祿) 연화(連化)하리
 서북간에 허다혈(許多數)을 날날이 말할소나
 나의 말이 허사될까 세상 입이 가외(可畏)로다
 기외(其外)에 무흠대혈(無欠大穴)은 용혈도(龍穴圖)에 있나이다
 함평(咸平)
 죽장(竹杖)을 재촉하여 함평(咸平)으로 작로하니
 달리는 사슴 너는 어이 용천(龍泉)을 옆에 두고
 걸음을 바삐하여 산애(山涯)로 향하는고
 간맥(艮脉) 십이절(十二節)에 혈성(穴星)이 원후(圓厚)하여
 잔와(殘窩)로 생겼으니 음사합금(陰砂合襟) 분명하다
 혈전(穴前)이 비습(卑濕)하니 알기 어려워라
 천문(天門)에 금성형체(金星形體) 당국수(堂局水)가 귀정(故丁) 하니
 만일 찾아 쓰면 백자천손(百子千孫) 장구(長久) 하리
 반로(半路)로 수리(數里)를 가니 산형(山形)이 승부(勝復)하여
 좌우 만포(滿布)320하니 양택(陽宅)이 기묘하다
 목성(木姓) 백년 후에 화성(火姓)이 주장(主張)하리
 옥녀봉(玉女峯) 바라보고 완완히 건너가니
 산비수주(山飛水走) 하는 곳에 수성정신(水星精神) 수려하다
 삼강령(三綱領)321과 팔조목(八條目)322은 여자에게 부당(不當)하다
 여필종부(女必從夫)의 뜻을 알고 운선(雲仙)을 찾으려고
 금채(金釵)를 빼어들고 어연이 내려오니
 아름다운 저 옥녀는 장부의 마음 호탕(浩蕩)한다
 거문고 놓인 곳에 노랫소리 나는구나
 걸음을 바삐하여 혈전(穴前)으로 들어서서
 옥소안(玉梳案)을 찾으려고 좌우를 둘러보니
 고머리와 대학평(大鶴坪)323은 상하로 벌려있다
 좌(坐) 하나만 그르치면 대대로 음행(陰行) 나겠구나

주인봉을 자세히 보니 수화산(水火山)에 태괘(太卦)324로다
 문과(文科) 삼인(三人) 날 것이요 대부자손(大富子孫) 나리로다
 갑산(甲山) 아래 십오리(十五里)에 팔대혈(八大穴)이 또 있구나
 주인봉(主人峯)을 살펴보니 수화성(水火姓)이 지키리라
 구수봉하(九秀峯下) 복토망월(伏兔望月) 석자천손(石子千孫) 부귀(富貴)하니
 그 아래의 어옹전수조(漁翁前垂釣)는 혈(穴)이 구중(鉤中)에 하였구나
 이 혈(穴)을 찾아 쓰게 되면 속발 부귀하리로다
 쌍백동(雙栢洞)엘 찾아갈제 노상(路上)에서 배례(拜禮)하고
 십여리를 들어가니 예설강(禮說講)을 하는구나
 중들이 모여서 스승을 위로하니
 나이 많은 노승(老僧)이 가사(袈裟)를 다 버리고
 염주(念珠)만 손에 쥐고 이리저리 배회하니
 도량(道場)이 흰칠하고 적신(積神)이 씩씩하다
 만일 찾아 쓰면 문천무만(文千武万) 대대(代代)하리
 주인성명(主人姓名) 보려거든 토산진괘(土山進卦) 해득(解得)하소
 수다(數多)한 대소혈(大小穴)을 날날이 말할소냐
 무안(務安)
 그날로 길을 떠나 무안(務安)으로 작로(作路)하니
 산진수회(山盡水回)하는 곳에 다소명혈(多小名穴) 없을소냐
 태봉하(台峯下) 복호형(伏虎形)은 먼구안(眠狗案)이 유정하다
 용호회포(龍虎回抱) 수구상(水口上)에 혈재전중사암간(穴在田中四岩間)이라
 공부(工夫)하는 저 지사(地師)야 재작(裁作)하기 어려워라
 그 외에 십이혈(十二穴)은 제 뉘라서 알아보고
 삼수동하(三水洞下) 초과협(初過峽)에 구빈(九賓)재가 생겼구나
 그 아래 장군형(將軍形)은 문천무만(文千武万) 하리로다
 이 혈(穴)을 찾자하면 투구바위 물어보소
 사십삼절(四十三節) 건해맥(乾亥脉)에 승달산(僧達山)이 특립(特立)하니
 금수병장(錦繡屏帳) 두른 곳에 우리 스승 계시도다
 당국(當局)이 평순(平順)하고 규모가 광대하니
 제좌기상(帝坐氣象)은 높았으니 산수회원(山水會圓) 하였구나
 천장지비(天藏地秘)한 혈(穴)을 저마다 구경하리
 석천(石川)이 회조(回朝)하고 만산(万山)이 폭주(輻輳)하니
 갑산정기(甲山精氣) 모은 곳에 설법가사(說法袈裟) 버렸으니
 아름다운 저 안상(岸上)에 십이상좌(十二上佐) 분명하다
 발우(鉢盂)는 동쪽에 있고 운암(雲岩)은 남쪽에 있다
 저 노승(老僧)의 거동 보소 백팔염주(百八念珠) 손에 쥐고
 칠십가삼(七十袈衫) 떨쳐입고 모든 제자 강(講) 받을제
 그 중에 늙은 중이 스승에게 문안(問安)하니

염주(念珠) 하나 떨어져서 수구원봉(水口圓峯) 되었구나
 간태금성(艮兌金星)이 충천(沖天)하니 혈재방원개점처(穴在方圓蓋粘處)라
 사륜상석(四輪商石) 뒤에 있고 금어옥기(金魚玉機)는 아래에 있다
 팔백연화(八百煙花) 되어 있고 삼천분대(三千粉黛) 모였도다
 건곤간손(乾坤艮巽)이 특립(特立)하니 왕자사부(王子師傅) 흔히 나고
 병정손신(丙丁巽辛) 높았으니 장원급제(壯元及第) 대대로 나리
 호호산(葫蘆山) 나타나니 여작왕비(女作王妃) 하리로다
 운증귀심(雲蒸貴心) 하였으니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325이라
 회자토이작금(回字土而作金)하니 현목혹(眩目惑) 되오리라
 북신천주(北辰天柱)326 높았으니 빈우주지무궁(賓宇宙之無窮)327이라
 태귀한문(兌貴捍門)328 열었으니 명진타방(名振他邦) 하리로다
 교쇄직결(交鎖織結) 하는 모양은 사자(四字)329가 분명하다
 회천명가조화(回天命段造化)는 귀신도 모르리라
 금강(錦江)이 백리(百里)를 두룬 물이 어관대진(漁貫隊陳) 되었구나
 성현(聖賢)은 여덟이요 장상(將相)은 대대(代代)로 나리
 이후 자손은 천억(千億) 되어 만세만세(万世万世) 장구(長久)하리
 이 산 운로(運路) 살펴보니 구십팔대(九十八代代) 향화(香火)하리
 주인 나서 찾게 되면 일야지간(一夜之間)에 영장(永葬)하리
 칠척하(七尺下) 금단석(金端石)은 귀신(鬼神)도 모르리라
 걸음을 바빠하여 죽전(竹田)으로 내려오니
 단구(丹邱)아래 나는 봉(鳳)이 집을 찾아 돌아든다
 오동지(梧桐枝) 있는 곳에 부흥봉(富興峯)이 다정하다
 절절(節節)이 기복(起伏)하여 북간(北艮)으로 맥(脉)이 나니
 혈후(穴後)의 연단석(鍊端石)은 태극형체(太極形體)가 분명하다
 구침장구(毬簷葬口)330가 분합(分合) 싸고 평지음사(平地陰砂) 회포(回抱)하니
 건입수(乾入首)에 당문수(堂門水)는 삼공도백(三公道伯)이 대대로 나리
 육척이촌(六尺二寸) 파게 되면 오색황토(五色黃土) 나겠구나
 용지팔년(用之八年) 초패(初敗)하나 그것이 더욱 좋다
 산맥(山脉)이 화려(華麗)하고 수세(水勢)가 명랑(明朗)하니
 기기묘묘 생겼으니 호남대지(湖南大地) 되오리라
 안산(案山)의 상서구리(尙書九里) 조양(朝陽)이 정녕하다
 문천무만(文千武万)에 십대한림(十代翰林) 허언(虛言)이 아니로다
 주인봉(主人峯)이 자세히 보니 수화성(水火姓)아 지키리라
 축간봉(丑艮峯)이 특립하였으니 축생발음(丑生發蔭)하기 쉬우리라331
 주인형체(主人形體) 문필(文筆)이라 구인산(九仞山)이 안(案)이 되리로다
 전천륜전전대(轉天輪轉全垓) 모르거든 이런 혈(穴)을 어이 알리
 혈전(穴前)에 퍼인 돌이 사금대(四金帶)332인줄 모르리라
 어찌하여 이 큰 혈(穴)이 불원간에 생겼는고

성명거지(姓名居地) 운로(運路)보니 목화산가인괘(木火山家人卦)라
 신세타령을 잠깐하고 수월동(囚月洞) 넘어가니
 구름 속에 묻힌 혈을 세속(世俗)사람 알아보리
 이 산 운기(運氣) 헤아리니 백자천손(百子千孫) 누대부귀(累代富貴)
 집집마다 할것이요 사람마다 받으리라
 간팔절(艮八節) 계입수(癸入首)에 을수귀미(乙水故未) 임좌(壬坐)로다
 그 아래로 내려오니 팔십노옹(八十老翁)이 발을 가는데
 어떤 계집아이 점심(點心)을 이고 돌아오니
 행력(行力)도 피곤한 중에 기갈한심(飢渴恨心) 절로 난다
 할 수가 전혀 없어 노옹(老翁)에게 사례하니
 나를 만 상좌(相座)한 후 음식을 권(勸)하거늘
 그 노인을 인도(引道)하여 주린饥腸 포식(飽食)하고
 물가에 내려가서 노서하전(老鼠下田) 가르치니
 당년발박(當年發朴)하여 삼대부귀(三代富貴) 하오리다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소명혈(多小名穴) 다 본 후에
 구산봉(狗山峯) 넘어서니 맹호도강(猛虎渡江) 하는구나
 태산(泰山)이 준향(峻香)한대 대수(大水)가 충살(沖殺)333하니
 이것이 귀격(貴格)이라 연대장원(連代長遠) 하겠구나
 만일 얻어 쓰면 당대 폭망(暴亡) 하리로다
 자세히 이르노니 혈(穴)은 평지무인처(平地無人處)에 있도다
 그리로 돌아서니 어옹수조(漁翁垂釣) 있겠구나
 혈재구중(穴在鉤中) 하였으니 알아보기 없으리라
 두루 다 구경하고 동령(東嶺)으로 내려오니
 칠십칠년(七十七年) 우리 모친(母親) 괘(卦)를 얻어 해득하니
 그 날로 내려가서 불효(不孝)를 못 면하고
 천붕지통(天崩地痛)334 만난 후에 비봉포란(飛鳳抱卵) 재혈(裁穴)하니
 전지무궁(傳之無窮) 바랐더니 비통하고 절통하다
 귀신(鬼神)이 작해(作害)하여 어와 벗님네야
 삼년(三年)을 못 지나서 파상지물(破傷之物) 되단 말인가
 운수라 어이 할고 그 후 하는 수 없어
 길지(吉地)를 얻어서 삼년을 못 지내니
 아는 것도 쓸데없고 순천적덕(順天積德) 하였어라
 기후(其後) 할 수 없어 촌후(村後)에 안장(安葬)하고
 삼년(三年)을 지낸 후에 광양(光陽) 운산(雲山) 들어가서
 수간암자(數間庵子)를 지어내서 사명(寺名)을 옥룡사(玉龍寺)라 하니라
 연장칠십(年長七十) 늙은 몸이 초거산문(貂居山門) 심심하여
 죽장으로 벗을 삼아 남은 산천 구경하니
 해남(海南)

산진수회(山盡水回) 하는 곳에 해남(海南)이 여기로다
 대호변(大湖邊) 해하농주(海鰕弄珠) 공경안(公卿案)이 완연하다
 오석(烏石)은 곤(坤)에 있고 명천(名泉)이 서에 있다
 병오방(丙午方)에 잠긴 구슬은 강 위에 벌려 있고
 함곡(含谷)에 나는 상서(祥瑞) 백대향화(百代香火) 하리로다
 건해룡경입수(乾亥龍庚入首)에 묘수귀을(卯水故乙)이 분명하다
 이 혈(穴)을 찾았거든 분동(粉洞)을 물어보소
 이 산(山) 운로(運路) 살펴보니 화성(火姓)이 주인이라
 당악(堂岳) 북십리허(北十里許)에 일대병사(一隊兵士) 모았구나
 사방이 평평한데 와중돌기(窩中突起) 생겼구나
 천금사(千金砂)335가 한자리에 알아보기 쉬우리라
 이 산(山) 주인 보려하니 금수산(金水山)에 손괘(巽卦)로다
 서태산하(西泰山下) 호승예불(胡僧禮佛) 발우안(鉢盂案)이 천기(天基)로다
 주인봉(主人峯)이 목성(木姓)이라 이씨(李氏)가 주장(主張)하리
 동쪽으로 굽어보니 복호(伏虎)가 내려온다
 면구안(眠狗案) 대구변(大狗邊)에 혈재평탄(穴在平坦) 원석하(原石下)라
 감관(坎兌)으로 입수(入首)하여 자좌(子坐)에 발문(發門)이라
 전후좌우에 돌이 있어 가운데에 혈(穴)이 있나니
 만일에 얻어 쓰면 부귀겸전(富貴兼全) 하오리라
 그 밖에 다수혈(多數穴)은 용혈도(龍穴圖)를 있느니라
 강진(康津)
 강진(康津)으로 넘어서니 전후에 명천(名泉)이 있고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다 이 산 형체 자세히 보니
 목복성(木卜姓)이 못 얻으면
 두루두루 구경하고 강진(康津)으로 넘어서니
 바닷가에 달는 용(龍)이 오운(五雲)이 영롱(玲瓏)하다
 용지십리(龍池十里)의 넓은 물이 북대완도(北帶莞島) 하였구나
 혈전(穴前)에 명천(名泉) 있고 백호(白虎) 밖에 인가(人家) 있다
 이 산(山) 형세를 자세히 보니 해좌(亥坐)에 손파(巽破)로다
 목복성(木卜姓)이 못 얻으면 산작인(山雀人)의 땅이로다
 용지삼년(用之三年)에 대발(大發)하여 삼국재상(三國宰相) 나리로다
 동이십리(東二十里) 을자맥(乙字脉)에 반월형(半月形)이 더욱 좋다
 정성하혈(正星下穴) 맺어 은연(隱然)히 숨어있다
 무흠대지(無欠大地) 이것이라 사람마다 얻을소나
 이 산 주인 살펴보니 당대후인(當待後人) 하는구나
 한림(翰林)이 칠인(七人)이요 상사(尙士)가 일인(一人)이라
 이 혈(穴)이 기묘하여 도식(圖式)을 그려 놓으니
 일후(日後)에 유식군자(有識君子) 자세히 살펴보소

서오리(西五里) 생사축와(生蛇逐蛙)가 벽계(碧溪)를 의지하여
말없이 숨었으니 어느 명안(明眼)이 알아볼고
좌득파(坐得破)를 짐작하니 수도산(水土山)에 추괘(渙卦)로다
유이양성(柳李兩姓)이 얻어 쓰면 연대문과(連代文科) 부귀(富貴)하리
그 곁에 복호형은 먹을 것이 많구나
을산래맥(乙山來脈) 십리허(十里許)에 오정(午丁)으로 내려와서
손입수(巽入首) 경인득관좌파(庚寅得管坐破) 대천이 되었구나
만일에 찾게 되면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동으로 건너가니 춤을 추는 저 선인(仙人)은
봉령상(鳳嶺上) 사인봉하(舍人峰下) 건해십절(乾亥十節) 곤좌(坤坐)로다
이 산 주인 보려하니 금성이 완연하다
삼대 후에 발음(發蔭)하여 구경팔상(九卿八相) 나리로다
동자토성(童子土星) 내었거든 혈인줄 짐작하소
그 아래에 내려오니 용마음수(龍馬飲水) 또 있다
금동일맥(金銅一脈) 수남(水南) 위에 월출산(月出山)이 생겼구나
좌각령(左脚峯) 우성산(右星山)에 자좌오향(子坐午向) 당문(堂門)이라336
주인이 다정하고 기복이 분명하도다
혈락평지(穴落平地) 유두(乳頭)하여 미미음사(微微陰砂) 물었으니
만일에 얻었으면 문과칠대(文科七代) 나리로다
백자천손(百子千孫) 부귀(富貴)하여 만대영화(萬代榮華) 하리로다
이 산 주인 자세히 보니 목화산(木火山)에 이괘(離卦)로다
노서하전(老鼠下田) 선인독서(仙人讀書) 머지않은 곳에 생겼구나
흥양(興陽) 동두(東頭)에 상제봉조(上帝奉朝)는 이것이 기묘하다
혈(穴)이 구중(鉤中)하여 좌수류동(左水流東) 하였구나
주인봉(主人峯)은 금성(金星)이라 수도산(水土山)에 항괘(恒卦)로다
그 아래로 내려오니 비룡(飛龍)이 바다를 바라보고
여맥(餘脈)을 의지하여 흠 없이 생겼구나
대로(大路)는 앞에 있고 삼용호(三龍虎)는 중첩하여
정칠절(丁七節) 병삼절(丙三節)에 오좌(午坐)에 자파(子破)로다
이 산 주인 굽어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지키리라
북으로 오십리(五十里)에 운중미월(雲中微月) 또 있구나
좌장우단(左長右短) 석맥중(石脈中)에 혈재봉상(穴在峯上) 분개처(分介處)라
좌우에 벌린 봉만(峯巒)이 명당(明堂)을 둘렀으니
누대문과(累代文科) 날 것이요 백자천손(百子千孫) 하리로다
주인봉(主人峯)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씨산(李氏山)이 되오리라
쌍룡쟁주(雙龍爭珠) 복호형(伏虎形)은 봉황대(鳳凰台) 상용(上龍)이로다
구강이분(九江一分) 세사맥(細絲脈)이 동주죽도(東珠竹島) 하였도다
남쪽으로 내려오니 황룡출화(黃龍出岵) 생겼구나

북산지하(北山之下) 삼절상(三節上)에 백저파(白抵破)를 의지하여
 미미(微微)하게 숨었으니 알아보기 어려워라
 그 아래 내려오니 예불하는 저 노승은
 화개관령(華蓋冠領) 그 사이에 신태(申兌)로 혈(穴)을 맺어
 해수중분(海水中分) 하는 곳에 영예(瀛刈) 수봉(數峯)이 안(案)이 되니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여 만세영화(萬歲榮華) 하리로다
 이 산 주인 찾자하니 목산(木山)에 돈괘(豚卦) 분명하다
 북쪽으로 넘어가니 미인(美人) 귀성(貴星) 되었구나
 축간(丑艮)으로 굴곡(屈曲)하여 삼태(三台)를 벌였으니
 손묘입수(巽卯入首) 갑좌(甲坐)에 해수(亥水)가 을(乙)로 가니
 부용대장(芙蓉大帳) 벌인 곳에 인산(人山)이 수구(水口)로다
 이 혈(穴)을 얻어 쓰면 위고일품(位高一品) 부귀(富貴)하리
 주인봉(主人峯)이 토성(土星)이라 금산대망괘(金山大忙卦)가 되었구나
 서쪽 이십리(二十里)에 비봉귀소(飛峯故巢) 또 있구나
 경태행룡(庚兌行龍) 임해입수(壬亥入首)에 해경수(亥庚水)가 귀래(故來)하니
 오척이촌(五尺二寸) 파게 되면 주옥(珠玉) 일쌍(一双) 있을터니
 상치말고 쓰게 되면 대대로 영화(榮華) 할 것이오
 누대한림(累代翰林) 백자천손(百子千孫)하여 천고부절(千高不絕) 하겠구나
 이 산(山) 주인 살펴보니 당대후인 하리로다
 그 옆에 자봉포란(雌鳳抱卵)있도다 태산(泰山) 아래 소수상(小水上)에
 해삼절간작기(亥三節 艮作氣)에 손방수(巽方水)가 귀래(歸來)하니
 백석(白石)은 뒤에 있고 흑석(黑石)은 뒤에 있다
 혈(穴)은 미와비습처(微窩卑濕處)의 자손천만(子孫千萬) 되리라
 해산(海山) 동남쪽의 연소형(燕巢形)은 갑묘행룡(甲卯行龍) 간주봉(艮主峯)에
 천왕봉(天王峯)은 경(庚)에 있고 귀인성(貴人星)은 곤(坤)에 있다
 간입수(艮入首)에 정수파(丁水破)라 인산수구(人山水口)를 호종(護從)한다
 안전창고(案前倉庫) 버렸으니 혈재거석(穴在巨石) 석린하(石鱗下)라337
 오척칠촌(五尺七寸)를 파게 되면 삼색토(三色土) 중에 석함(石函)난다
 손상치 말고 쓰게 되면 문무겸발(文武兼發) 하려니와
 팔대남토(八代南土) 오대각로(五代閣老) 삼대대장(三代大將) 왕비(王妃)나리
 머지않은 곳에 있는 이 양대혈(兩大穴)이 화성주인(火姓主人) 분명하다
 연일인(延日人)이 못 얻으면 화지산(華脂山)338의 자손이라
 영암(靈巖)
 흥탄(欽歎)을 불사(不已)339할 수 없어 영암(靈巖)으로 내려오니
 동북십리(東北十里)에 무공단좌(武公端坐) 괘국안(卦局案)이 되었구나
 문무칠인(文武七人) 날것이오 위치삼품(位至三品) 하리로다
 주인봉을 알자거든 목산(木山) 성괘(性卦) 자세히 보소
 월출산하(月出山下) 화함형(花檻形)은 천기(天基)로 생겼구나

동편에 악마분산(躍馬奔散) 비래비거(飛來飛去) 낙수중(落水中)에
 하좌(蝦坐)가 동쪽에 있고 선인(仙人)이 춤을 춘다
 혈전(穴前)에 올라앉아 가기를 잊었더니
 명랑한 저 하늘에 우수(雨水)340가 급급하거늘
 갈 바를 전혀 몰라 걸음을 재촉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니 일간두옥(一間斗屋) 가시 문에
 백발노인(白髮老人)이 분주하거늘 그 노옹을 찾아내어
 비 피할 일을 의논하니 그 노인이 맞아들여
 안방에 앉히고서 석반(夕飯)을 지어주니
 음식이 소담하고 산채(山菜)가 정결하니
 주인성명 물어보니 신노인(愼老人)이 정녕하다
 연장육십(年長六十)에 저 노인이 구무자녀(俱無子女) 해로(偕老)하거늘
 마음이 불쌍하여 용사취회(龍巳聚會) 가르치니
 용지삼월(用之三月) 초발(初發)하여 백자천손(百子千孫) 할 것이니
 나이 많고 병이 있거늘 제양(帝陽)으로 분금(分金)341하니
 삼일내(三日內)에 상처(喪妻)하고 이십팔일(二十八日)에 재취(再聚)하여
 삼월내(三月內)에 입태(入胎)하여 연생삼자(連生三子) 하리로다
 대저라 이 한 법은 구천운로(九天運路)342 십육궁(十六宮)343을
 한 궁으로 뽑아내어 개생휴수(開生休囚)344 얻었으니
 탈조화지묘술(奪造化之妙術)이라 저 마다 알아보리
 거기서 머무를 제 어언간(於焉間)에 오월이라
 본토(本土)로 가려하니 주인노옹(主人老翁)이 만류하거늘
 지극사양(至極辭讓)하고 구림(鳩林)345으로 다시 보니
 구천(九天)346에 가신 부모(父母) 침소봉당(瞻掃奉堂) 뿐이로다
 종일(終日)토록 통곡(痛哭)하고 동리(洞裡)로 들어가니
 마을 모습은 의구(依舊)하나 인심은 크게 변하여
 잠시도 있기 어려워 바로 내려가려 하니
 외척(外戚)에 한 노인이 지극히 청(請)하거늘
 거기 가서 유(留)하면서 보검출연(寶劍出連) 가르치니
 수일(數日)을 지낸 후에 친산수호(親山守護) 부탁하고
 청학동(靑鶴洞)에 들어가서 선생교훈 잊지 않고
 십조통맥(十條通脉)이 내 노래와 석굴(石窟)속에 넣어두고
 동방성쇠(東方盛衰) 헤아려서 석문(石門)에 새겨 놓으니
 일후(日後)에 이 석문(石門)을 성사겸(成思謙)347이 찾으리라
 팔로명산무괘(八路名山無卦)를 그려 내 노래 끝에 붙였으니
 동부모형제(同父母兄弟)라도 그린 곳에 전(傳)하지 말고
 양화(殃禍)는 고사하고 신기루세(神氣漏洗) 되리로다
 우리나라 인민(人民)되어 정성으로 구산(求山)하면

첫째는 위친(爲親)이요 둘째는 제일이라
다른 일 구(求)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라
구산(求山)이라 하는 것은 잘못하면 망가(亡家)하리
세상 사람 눈 있거든 구산(求山)하기 힘을 쓰소
죽은 부모음덕(夫母蔭德)으로 자자손손(子子孫孫) 부귀(富貴)되면
어와 이 아니 좋은 일을 사람마다 힘을 쓰소
우리 동방지리강령(東方地理綱領)은 수화성(水火姓)이 전수(傳受)하리
백두산(白頭山)에 올라가서 돌을 세워 표(表)를 하고
마철령(馬鐵嶺) 넘어서서 오대산(五臺山) 내려오니
백운암(白雲庵)에 모은 정기(精氣) 여천지(與天地)로 해망(偕亡)하리
장도사(張道士)에 일을 보니 괴씸하기 가히 없다
연소(年少)한 저 소년이 남의 손에 속아서
그르친 일 많커니와 이도 또한 운수(運數)로다
저 허물을 갓자 한들 그 사람이 다 죽었으니
어디 가서 말할소냐 다 못 될 일로다
그런저런 지내다가 여초목(與草木)으로 동부(同腐) 하리로다

[각주]

- 1) 전(前)허물 돌아보니 : 과거를 회고해 보니
- 2) 선파(仙婆) : 좋은 경치, 신선의 경지.
- 3) 明堂定穴(명당정혈) : 명당은 좋은 묘자리.정혈은 명당 가운데서도 묘를 써야할 자리.일명 일석지(一席之地)라 함.
- 4) 버린 : 벌려 있는.
- 5) 伏虎形(복호형) : 대략 무관(武官), 부귀겸전(富貴兼全)의 인물이 배출될 지형(地形)
- 6) 면견안(眠犬案) : 묘 자리의 앞 형상(풍수지리용어)
- 7) 화개금성(華蓋金星) : 묘 자리의 뒤 형상.
- 8) 용지팔년(用之八年)에 초발(初發) : 묘를 쓰지 팔 년 만에 처음으로 발복(發福)하여.
- 9) 飛鳳形(비룡형) : 명당의 지형으로 부귀가 난다고 함.
- 10) 오동안(梧桐案) : 오동나무 형의 안산(案山).
- 11) 청룡안(靑龍案) : 좌청룡이 안산이 된 형.
- 12) 횡류(橫流) : 옆으로 흐름.
- 13) 삼우석(三隅石) : 세 모퉁이에 돌이 있음.명당의 증거임.
- 14) 主人峰(주인봉) : 풍수상의 주봉(主峰), 오행(五行)에 따라 각 성씨(姓氏)에 따라 배분되어 있음.
- 15) 宋氏(송씨) : 주인봉(主人峰)이 송씨에게 해당됨(송씨 성이 써야 복을 받음).
- 16) 익간혈(翼間穴) : 있는 혈(穴)인 듯하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음.
- 17) 龍長穴拙(용장혈졸) : 용세는 좋으나 혈(穴)은 너무 작고 좁음.
- 18) 行舟形(행주형) : 배 떠나는 정당(定堂)의 명당.
- 19) 黃龍負舟(황룡부주) : 누런 용이 배를 짊어지고 있는 형.
- 20) 삼로안(三櫓案) : 돛 세 개가 서 있는 듯한 안산(案山).
- 21) 십리허(十里許)에 달리는 사슴 : 십리 남짓에 뛰어가는 사슴의 형(귀인이 배출될 명당).
- 22) 혈식(血食) : 옛날 성군관이나 향교에서 제를 지낼 때 날고기를 제물로 쓰던 풍속이 있었는데 제의 대상은 유현으로서 혈식군자라고 하였다.
- 23) 將軍形(장군형) : 명당의 형상(장군이 앉아 있는 형상).
- 24) 격고안(擊鼓案) : 북을 치는 듯한 형상.
- 25) 반월형(半月形) : 달 반 조각의 형상.
- 26) 속발부귀(速發富貴) : 부귀가 빨리 발복됨.
- 27) 용도(龍頭)밑에 늙은 중 : 노승혈(老僧穴).
- 28) 천마형(天馬形) : 말형상의 명당.
- 29) 백호안대(白虎案垓)가 말 없어라 : 우백호가 길게 뻗쳐 안산(案山)이 된 형상.
- 30) 천인(賤人)의 땅 : 천민이 묘를 써서 잘된 형.
- 31) 금채형(金釵形) : 금비 꽃은 형상.
- 32) 옥소봉(玉梳峯) : 임금의 면류관 같은 안산.
- 33) 혈재굴중(穴在窟中) : 혈이 여러 겹으로 싸여 있음.
- 34) 누운 소 : 와우형(臥牛形).즉 소가 누운 형상.
- 35) 경전안(耕田案) : 소가 밭가는 형의 안산(案山).

- 36) 재혈(栽穴) : 사면이 친구렁이형(形)이라 혈을 측정하기 어려움.
- 37) 약마기적(躍馬奇敵) : 뛰는 말이 적에게 달려드는 형상.
- 38) 옥계대(玉溪台) 갈(渴)한 용(龍) : 옥계연못에 목마른 용.
- 39) 안심산(安心山)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과 소라면 관기리 사이에 있는 산
- 40) 양택(陽宅) : 명당의 좋은 집터.
- 41) 잘못 찾아 살게 되면 : 혈을 정확히 재어 쓰지 못하면.
- 42) 팔대혈(八大穴) : 호남지방의 팔대혈의 하나.
- 43) 옥책안(玉冊案) : 아름답고 수려한 안산(案山).
- 44) 혈재상취음작(穴在上聚陰作) : 혈 위에 모여서 흡족하게 만듦.
- 45) 일대광인(一代狂人) : 한 대(代)만은 반드시 미친 사람이 남.
- 46) 간수(艮水)가 귀을(故乙)하니 : 간수(艮水)는 동북(東北) 사이에 나는 물.'귀을(歸乙)하니'는 '그 방면으로 돌아가니'의 뜻.
- 47) 이석엄수(以石掩水) : 돌 두개로 물을 덮음.
- 48) 주마탈안(走馬脫鞍) : 말이 여울물로 뛰어드는 형상.
- 49) 반룡(盤龍) : 용이 서려 있음.
- 50) 건해맥(乾亥脉) : 서와 북쪽 사이에서 나온 말.
- 51) 명현재사(名賢才士) : 머리 좋고 재주 있는 선비.
- 52) 마제석(馬蹄石) : 말에서 내릴 때 딛고 내리는 돌.
- 53) 무가지보(無價之寶) : 값어치가 한(限)없는 보물.
- 54) 좌득파(坐得破) : 좌(坐)는 좌향(坐向), 득(得)은 물이 내려오는 곳.파(破)는 물이 흘러 나가는 곳.
- 55) 천상둔괘(天上遯卦) : 천산(天山)은 주역의 괘명.
- 56) 수구금성(水口金星) : 물이 내려가는 쪽에 금성 형태로 된 산.
- 57) 해십절(亥十節) : 서북(亥方) 사이로 산의 마디가 열 개인 곳.
- 58) 계오절(癸五節) : 북(癸方)으로 산의 마디가 다섯 개인 곳.
- 59) 신술(辛戌) : 정서방에서 약간 북쪽.
- 60) 과협(過峽) : 산이 잘록하게 들어간 곳.
- 61) 복종금성(伏鐘金星) 세웠으니 : 종을 엮어놓은 곳 같은 형세에 여러 신(神)들이 둘러선 것 같은 명당.
- 62) 임坎(壬坎) :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용.
- 63) 입수(入首) : 못자리 바로 뒤.
- 64) 양래음작(陽來陰作) : 양수로 와서 음수로 자리가 나 있음.
- 65) 간병득(艮丙得) 정수구(丁水口) : 동북(艮方)과 남쪽(丙方)으로부터 내려와 물이 합수(合水)하여 남쪽(丁)으로 빠져 나감.
- 66) 건곤(乾坤) : 방(乾方)은 북과 서 사이.곤방(坤方)은 남서쪽 사이.
- 67) 자오(子午) : 자오방(子午方).서쪽과 남쪽.
- 68) 화뢰서함(火雷噬嗑) : 주역의 괘명.
- 69) 폭주(輻湊) : 앞으로 뛰어오는 모양.
- 70) 사백팔자(四百八字) : 도선국사(道詵國師)께서 석함 중에 408 字의 글자를 묻어 놓은 명당터.

- 71) 적선하인(積善何人) : 적선(積善)한 사람의 집안.
- 72) 그릇 재혈(裁穴)하게 되면 : 혈을 그릇되게 측량하면.
- 73) 흠탄(歎歎)을 불사(不已)하고 : 기뻐 탄식함을 마지아니하고
- 74) 혈재굴중(穴在窟中) : 혈이 움푹한 곳에 있음.
- 75) 매화낙지(梅花落地) 연소형(燕巢形) : 매화가 떨어지는 곳의 제비집 형상.
- 76) 경유좌(庚酉坐)에 을파(乙破)로다 : 좌향(坐向)은 경유방(庚酉方)이고 물 나가는 곳은 을방(乙方)이라.
- 77) 선인무수(仙人舞袖) : 신선이 춤추는 형상의 명당.
- 78) 횡금안(橫琴案) : 거문고가 비껴있는 듯한 형세.
- 79) 비습(卑濕)하니 : 낮고 물기가 많음.
- 80) 삼면수(三面水)가 포조(抱朝)하니 : 삼면으로 둘러 흐르는 물이 없음이
- 81) 해삼절(亥三節) 임입수(壬入水) : 해방(亥方)으로 산이 세 번 솟아 임방(壬方)으로 입수(入首)함.
- 82) 자좌오향(子坐午向) : 방(子方)에서 (오방)午方으로, 즉 북에서 남으로 향해 앉은 자리.
- 83) 산수진괘(山水震卦) : 주역의 괘 이름.
- 84) 축간(丑艮) 박수(剝搜) : 축간방(東과 北 사이)으로 산이 돌아서 간방(艮方)으로 입수(入首)함.
- 85) 정수귀술(丁水故戌)하는구나 간입수(艮入首) : 정방(丁方)으로 내려오는 물이 술방(戌方)으로 흘러감.
- 86) 목산감괘(木山坎卦) : 주역의 괘 이름.목산갑(木山甲)을 풀이하면 뇌산소과괘(雷山小過卦).
- 87) 기고병기(旗鼓兵器)하여 나립(羅立)하여 : 기고병괘(旗鼓兵卦)가 앞으로 나오는 형상.
- 88) 미와처(微窩處) : 평지에서 조금 들어간 곳.
- 89) 오운안(五雲案) : 안대(案臺)가 옥색 채운같이 수려하고 아름다움.
- 90) 대주지물(待主之物) : 적덕가(積德家)의 소유물인 혈(穴).
- 91) 손신(巽辛) : 간병(艮丙)과 손신(巽辛, 巽申)은 길방(吉方)을 뜻함.
- 92) 영호(英豪) : 영웅호걸(英雄豪傑)의 준말.
- 93) 을진쌍행(乙辰双行) : 을(乙)과 진(辰)의 두 괘(卦)가 같이 내려온 산맥(山脈).
- 94) 간좌원(艮坐原)이 당문(當門)되니 : 간좌(艮坐)의 곤향(坤向).물이 墓의 바로 앞으로 흘러나가는 것.
- 95) 대부핍절(代不乏絶) : 대대로 끊어지지 않음.
- 96) 석척혈(石擲穴) : 돌로 된 관곽 같은 형상.
- 97) 신부명양(身富名揚) : 시집오는 며느리들이 이름을 날림.
- 98) 주인 찾아 가르치고 : 적선인(積善人)을 기다려 혈(穴)을 가르쳐 줌.
- 99) 삼회구회(三回九回) : 세 번 네 번을 마디지고 여러 번 굴곡한 형상.
- 100) 현토동(玄土洞)의 사룡혈(死龍穴) : 검은 토끼가 뱀이나 용처럼 움직이는 형상.
- 101) 갈록분야(渴鹿奔野) : 목마른 사슴이 물가를 보고 달리는 형상.
- 102) 명령계사(螟蛉繼祀) : 어리석은 자식이 후대를 잇게 됨.
- 103) 삼룡희수(三龍戲水) : 세 마리 용이 머리를 돌리는 모양.
- 104) 금산항괘(金山恒卦) : 금산형(金山形)의 괘.주역의 택천괘(澤天快卦).
- 105) 혈재전상(穴在田上) : 혈이 산 꼭대기에 있음.

- 106) 용호단단(龍虎但斷) 야중독립(野中狺立) : 좌청룡 우백호가 약간 짧고 입수(入首)가 단룡(單龍)으로 들어와서 희미한 영상.
- 107) 수성행룡(水星行龍) : 산형(山形)은 오행(五行)으로 표시한 것의 하나.
- 108) 상제봉조(上帝奉朝) : 군왕을 받들고 조회(朝會)하는 형의 귀혈(貴穴).
- 109) 부래중화(浮來中華) : 부귀를 줄게 되는 형상.
- 110) 용사중(龍四重) : 산이 첩첩이 둘러 선 모양.
- 111) 이씨천년(李氏千年) : 이태조의 조선건국을 말함.
- 112) 경입절(庚入節) 태십절(兌十節) : 태십절(兌十節)의 태(兌)는 서쪽을 말함.
- 113) 손입수(巽入首) 사좌원(巳坐原) : 손방(巽方.동과 남 사이)으로 입수(入首)하여 사좌해향(巳坐亥向)의 방향을 잡음.
- 114) 간수(艮水)가 귀을(故乙)하니 : 간방(艮方.동북 사이)으로 나오는 물이 미방(未方.남서 사이)으로 나감.
- 115) 도집국권(都集國權) : 큰 권세를 홀로 차지한다는 의미인 듯.
- 116) 추술(推術) : 뒤를 따르니.
- 117) 인황산하(仁皇山下) : 서울의 인왕산(仁王山).
- 118) 아국주장(我國主張) : 우리나라의 임금.즉 이조의 임금.
- 119) 자기목성(紫氣木星) : 임금의 기운.
- 120) 진좌혈(辰坐穴) : 진좌무향(辰坐戌向)의 혈(穴).
- 121) 공조(拱朝) : 그 방향을 보고 절하는 모양.
- 122) 만세향대(萬歲香大) : 만세를 누림.
- 123) 봉악(峯岳)이 은면(隱面)하고 : 봉황새가 줄고 있는 모양.
- 124) 절절(節節)이 대살(帶殺)하니 : 산 굽이굽이 살기를 띄워 있으니.
- 125) 실전(失傳) : 묘를 잃어버림.
- 126) 음양택(陰陽宅)이 구길(俱吉)하다 : 묘터와 집터가 함께 갖추어 있음.
- 127) 축좌(丑坐)하고 : 축좌미향(丑坐未向).
- 128) 간좌(艮坐) : 간좌곤향(艮坐坤向).
- 129) 남고사(南高寺) : 전주에 있는 절 이름.
- 130) 이십팔대(二十八代) : 조선왕조가 5백년 28대를 이어갈 것을 예언한 것.
- 131) 금반형(金盤形) : 금쟁반 형국.
- 132) 인사옥대(印砂玉帶) : 인(印)과 옥대(玉帶)를 띤 삼공육조(三公六曹)가 날 지형(地形).
- 133) 무흠대지(無欠大地) : 묘가 없는 대지(大地).
- 134) 갑묘수(甲卯水)가 곤(坤)에 가니 : 갑묘방(甲卯方)에서 흐르는 물이 곤방(坤方)으로 나감.
- 135) 비아상화(飛鴉相和) : 갈매기가 산아래서 나는 모양.
- 136) 주회십리(周回十里) 역수맥(逆水脈)에 : 십리나 되게 조화부린 산맥이 역수맥(逆水脈.물을 거슬러 올라간 산맥)인 것.
- 137) 좌우선국(左右旋局) 진결(眞結)하여 : 좌우의 산형세가 수려함.
- 138) 역수(逆水)로 결국(結局) : 산이 뒤로 돌아가 자리를 만들.
- 139) 병화불입(兵火不入) : 난리가 미치지 못한 곳.

- 140) 전천(前川)이 회포하며 : 앞의 물이 돌려 씹.
- 141) 백화삼대(白花三代) : 3대에 걸쳐 무과(백패)급제 한다는 뜻.
- 142) 삼태(三台) : ①별이름.큰공자리에 있는 상태(上台)·중태(中台)·하태(下台)를 이룸.②별이름에서 전하여 천자(天子)의 삼공(三公)
- 143) 용요(龍腰)에 대로(大路)나고 : 좌청룡의 중간에 큰길이 나고.
- 144) 호두(虎頭)가 곧추되면 : 우백호의 산머리가 높게 되면.
- 145) 임두수(淋頭水) : 거꾸로 흘러온 물.
- 146) 불원(不遠)한 동령변(東嶺邊) : 멀지 않은 곳의 동쪽 고개.
- 147) 동토성(東土星)에 오공형(蜈蚣形) : 산골짜기 돌무더기 밑은 지렁이 형상의 혈.
- 148) 위지(位至) 삼품(三品) : 지위가 삼품에 이룸.
- 149) 주장복망(走獐伏網) : 거미가 그물을 쳐 놓은 형상.
- 150) 내세(來勢)가 방원(方圓) : 미래(未來)가 아름답고 멀다는 뜻.
- 151) 안삼중(案三重)이 되었으니 : 안대(案臺)가 삼중으로 되어있음.
- 152) 손신(巽辛)이 특립(特立)하여 : 손방(巽方)과 신방(申方)이 우뚝 솟아있음.
- 153) 병오정(丙午丁)과 상대(相對)하니 : 병오정(丙午丁)의 삼방(三方)의 산이 서로 합하는 형세.
- 154) 여천지(與天地)로 해망(偕亡)하리 : 천지와 같이 함께 망함(오래감을 뜻함).
- 155) 자백중(紫白中) : 붉고 흰 보석이 찬란한 가운데
- 156) 혈재상취(穴在上聚) : 혈이 정상에 모여 있음.
- 157) 추려 잡고 : 골라잡고
- 158) 혈후합금(穴後合襟) : 혈 뒤로 기운이 모임.
- 159) 초패(初敗) : 처음에는 해를 봄.
- 160) 혈재구중(穴在鉤中) : 혈이 갈고리 모양의 산 속에 숨었음.
- 161) 권렴사(捲簾砂) : 발을 거두어들이는 같은 산의 형상.
- 162) 박환(剝換)하여 : 한바퀴 돌아서 들어옴.
- 163) 간입수(艮入首) 신술파(辛戌破) : 신술(辛戌) 방향으로 물이 흘러감.
- 164) 음란풍성(淫亂風聲) : 음란한 풍이 친족간에 일어나 동성 간에 상피(相避)붙은 일이 있음.
- 165) 목욕수(沐浴水) 탓이로다 : 목욕(沐浴) 방향에 물이 있음.
- 166) 대간룡(大幹龍) 가는 맥(脉) : 큰 산 줄기가 뻗쳐 나옴.
- 167) 대부핍절(代不乏絕) : 대대로 끊어지지 않음.
- 168) 충천목성(冲天木星) : 산이 하늘을 찌를 듯 빠르게 생긴 형상.
- 169) 지엽(枝葉)도 하도 많다 : 땅기운도 많기도 많구나.
- 170) 선인포전(仙人鋪展) : 선인이 자리를 펴고 있는 형상.
- 171) 토산곤괘(土山坤卦) : 주역의 택수곤괘(澤水困卦).
- 172) 부무적국(富無敵國) :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 형상.
- 173) 건곤(乾坤) : 산과 물을 말함.
- 174) 임강룡(壬坎龍)에 갑묘(甲卯) 회두(回頭) : 임강(壬坎.壬子方.북쪽)에서 나온 용이 갑묘방(甲卯方.정동쪽)으로 산머리를 돌림.
- 175) 자봉포란(雌鳳抱卵) : 붉은 봉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

- 176) 무흠대지(無欠大地) : 풍수로 볼 때 흠이 없는 대지.
- 177) 소축괘(小畜卦) : 주역의 풍수소축괘(風水小畜卦).
- 178) 경태산(庚兌山) 을진수(乙辰水) : 서쪽에서 온 산의 동쪽 맥
- 179) 회룡은산(回龍隱山) : 용이 고개를 돌리어 산 멀리로 돌아가는 형상.
- 180) 금산간괘(金山艮卦) : 금산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산(五山) 가운데 간괘(艮卦).
- 181) 용사취회(龍巳聚會) : 용과 사(巳)가 모여 듦.
- 182) 용호회포(龍虎回抱) : 용과 호랑이가 안고 돌음.
- 183) 낙락삼절(落落三節) : 용이 계속 뻗어 내려오다가 세 번 방향을 바꾸어 구부러짐.
- 184) 목산태괘(木山兌卦) : 목산(木山)의 태괘(兌卦).
- 185) 수요용두(水繞龍案) : 물이 용안(龍案)을 두름.
- 186) 갑묘맥(甲卯脉) 혈성(穴星) : 산이 동쪽으로 내려오고 혈의 좌향(坐向)도 동쪽임.
- 187) 도집국권(都執國權) :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잡음.
- 188) 남가치(南歌峙) : 남쪽산맥의 북고혈(北鼓穴).
- 189) 동정변(東井邊) : 동쪽 산기슭에.
- 190) 무부지부(無富之富) : 당할 수 있는 큰 부자.
- 191) 만년향화(萬年香火) : 제사가 끊이지 않음.
- 192) 호치과협(胡峙過峽) : 산고개가 교대로 움푹 들어간 곳.
- 193) 상아치(象牙峙) : 고개의 아래가
- 194) 산상개국(山上開局) : 산꼭대기에 혈이 있음.
- 195) 장군탈갑망진형(將軍脫甲望陳形) : 장군이 갑옷을 벗는 모양.
- 196) 만험중(萬險中)에 일기맥(一奇脉)은 : 많은 골짜기 가운데 한 개의 맥이.
- 197) 동방갑족(東方甲族) : 동방의 으뜸가는 가문.
- 198) 기맥(氣脉)이 탈족(脫足)하니 : 그 중의 한 맥이 엉뚱한 곳으로 뻗어나감.
- 199) 임입수(壬入首) 자좌원(子坐原) : 북방으로 산이 입수(入首)하여 좌(坐)가 정남향.
- 200) 현무(玄武)가 토설(吐舌)하고 : 북방으로 산기(山氣)가 빠져나감.
- 201) 비습(卑濕) : 추하게 떨어짐.
- 202) 합변국(合變局) : 무덤 안의 양쪽 흙색이 다른 괴이한 혈.
- 203) 가외(可畏)로다 : 두렵구나.
- 204) 감계(坎癸)로 성봉(星峯) : 위대한 성인의 봉우리.
- 205) 재결태극(再結太極) : 모든 결이 태극형상임.
- 206) 그릇 재혈(裁穴)하면 : 혈을 잘못 측정하면.
- 207) 복두모홀(幞頭帽笏) : 산 뒤 좌우.
- 208) 도두하(到頭下)에 영장(永葬)하여 : 불룩하게 튀어나온 위치에 장사를 지냄.
- 209) 수화염정(水火廉貞) : 수기와 화기로 염이 생김.염(廉)은 기운이 모여서 시체를 둘둘 감는 것.
- 210) 함하일린(欲下一鱗) : 산이 뻗어 오다 사람의 목같이 튀어나온 것 같은 곳의 말.
- 211) 만포(滿布) : 축 늘어짐.
- 212) 음사(陰砂) : 남 모르는 사로 사(砂)는 혈장(穴場)을 중심으로 한 주의 이십사방을 둘러싼 대소(大小)의 봉(峰)을 포함해서 암석, 수목, 강해, 호수, 사막, 건물, 평야, 구릉, 도로 등을 총칭한 말.

- 213) 초년패(初年敗) : 장사 지낸 뒤 한번은 패가(敗家)함.
- 214) 어옹인망(漁翁引網) : 어부가 거물을 당김.
- 215) 색음통양(塞陰通陽) : 앞산, 뒷산의 형세가 어울림.
- 216) 좌득파(坐得破) : 좌든 좌향, 득은 물이 흘러드는 곳, 파는 흘러 나가는 곳.
- 217) 내수(來水)가 현류(玄流) : 명당 안에 있는 물이 급히 흘러감.
- 218) 백화남행(白花南行) : 무신이 과거 안 보고 등용되는 관리로 많이 남.
- 219) 문익간혈(問翼間穴) : 숨어 있는 혈.
- 220) 남행시(南行時)살 : 남행으로 하는 벼슬.
- 221) 혈식군자(血食君子) : 대대로 정직한 선비.
- 222) 주인성체(主人星體) : 주인봉의 산 모양을 살펴보니.
- 223) 건해(乾亥)로 전신(轉身) : 서북간으로부터 뺀어 나옴.
- 224) 음래양작(陰來陽作) : 음수로 와서 양수로 좌향함.
- 225) 당국(當局)이 평포(平鋪) : 묘 쓸 자리만은 평평함.
- 226) 외양실 : 외양간.
- 227) 노직(老職) : 재정관.
- 228) 병오정(丙午丁) : 남쪽방향.
- 229) 곤신(坤申) : 서와 남 사이.
- 230) 목어대(木魚黛) : 산의 형상.
- 231) 목마(木馬) : 과거에 합격하는 이.
- 232) 본신(本身)이 하류(下流)하여 : 본래의 산줄기가 흘러내려.
- 233) 목명(木命) : 인생(寅生)이나 묘생(卯生).
- 234) 겸(鉗) : 낫 모양의 산형(山形).
- 235) 근시(近侍) : 임금을 가까이 모심.
- 236) 사정사유(四正四維) : 사정(四正)은 子午卯西方, 사유(四維)는 寅申巳亥方.
- 237) 선출무신(先出武臣)한 발원(發員) : 처음에는 발복함이 없다가.
- 238) 룡방회안(竜方回案) : 좌청룡이 길어서 안산이 됨.
- 239) 쌍귀추성(雙鬼樞星) : 쌍귀는 산세가 귀함.
- 240) 무등지인(無等之人) : 어리석은 사람.
- 241) 가애석 : 嘉涯石.
- 242) 운사(雲絲) : 운사를 휘어잡고.
- 243) 운무의(雲霧衣) 베어 내어 : 구름과 안개를 벗어나서.
- 244) 부업(卍業) : 뒷사람을 모시는 일.
- 245) 목체(木體) : 산세를 오행으로 나타낸 것.
- 246) 병이판(兵吏判) : 병판과 이판.
- 247) 수구장쇄(水口藏鎖) : 물 나가는 입구가 좁음.
- 248) 손사전묘(巽巳轉卯) : 산이 동남방 사이로 뺀어 나감.
- 249) 수회(水回) : 주위.
- 250) 하하농주(河鰕弄珠) 금채괘벽(金釵掛壁) : 바닷게를 잡는 어부가 구슬을 희롱함.

- 251) 해룡(亥龍)이 전태(轉兌) : 해방에서 온 용이 서방으로 뺨어감.
- 252) 미와중(微窩中) : 약간 움푹 패인 곳.
- 253) 목화산(木火山)이 곤괘(坤卦) : 택수인(澤水困).
- 254) 손방(巽方) : 동남간.
- 255) 건해(乾亥) : 서와 북의 간방.
- 256) 해좌(亥坐) 을파(乙破)로다 : 해좌사향에 동방으로 물이 빠짐.
- 257) 자입수(子入首) : 정북에서 입수함.
- 258) 목욕수(沐浴水) : 십이협태(十二脇胎)의 하나.
- 259) 대와간(大窩間) : 크게 움푹 들어간 곳.
- 260) 해수(海水)가 조당처(朝堂處) : 서북간에서 오는 물이 앞으로 흘러 등.
- 261) 회룡고조(回龍顧祖) : 산이 뿔어 내리다가 모체를 다시 돌아보는 형상.
- 262) 손산하(巽山下) 생룡(生龍) 아래 : 동남간 아래의 생룡 끝에.
- 263) 일강파(一江波) : 물이 쿵쿵 빠져 나가는 곳.
- 264) 긴쇄(緊鎖) : 물 나가는 곳이 주밀(周密)함.
- 265) 축하(丑下) : 북쪽의.
- 266) 정남자손(丁南子孫) : 정년(丁年)에 태어나는 자손(子孫).
- 267) 앵무봉충(鸚鵡逢虫) : 앵무새가 봉충(奉忠)함.
- 268) 재작(裁作) : 재혈(裁穴)함.
- 269) 팔자로상(八字路上) : 갈라지는 길.
- 270) 간행삼절(艮行三節) : 건해삼절(乾亥三絕)이 되어야 함.
- 271) 귀미(故未) : 미방(남에서 약간 서쪽)으로 들어감.
- 272) 해도인(海島人) : 성 가운데 사람.
- 273) 목산(木山)에 이괘(離卦) : 풍천소축괘(風天小蓄卦).
- 274) 토산정괘(土山鼎卦) : 화풍정괘(火風鼎卦).
- 275) 조천횡당(朝天橫當) : 위패를 모시는 중신(重臣).
- 276) 수토산(水土山)에 수(隨) : 수천유괘(水天需卦).
- 277) 낙대 날고 : 낙시를 드리우고.
- 278) 화산겸괘(火山謙卦) : 산형은 화산이고 괘는 겸괘.
- 279) 사각(砂角) : 좌우의 보호각.
- 280) 태극(太極) : 형세가 태극형.
- 281) 조당(朝堂) : 앞으로 오르는 물.
- 282) 동궁(同宮) : 같은 자리.
- 283) 천문(天門) : 산의 형세.
- 284) 석토(石土)이 상잡(相雜) : 돌과 흙이 섞였음.
- 285) 내팔거팔(來八去八) 기룡(騎龍) : 는 것도 팔자형으로 가는 것도 팔자형으로 기룡(起龍)함.
- 286) 천인위귀(賤人爲貴) : 천인이 귀하게 됨.
- 287) 낙양(落日) : 중국의 낙양과 같이 좋은 곳.
- 288) 용취팔각(龍聚八角) 방마형(放馬形) : 용이 나가서 얼룩진 말의 형상으로 된 형.

- 289) 가관지물(可觀之物) : 지나치게 보기만 좋고 실속이 없음.
- 290) 파벽(破僻) : 사람 나기가 어려움.
- 291) 합금처(合襟處) : 물이 모이는 곳.
- 292) 화점심향(花蝶尋香) : 꽃 속으로 나비가 날아드는 형상.
- 293) 혁괘(革卦) :택화혁괘(澤火革卦).
- 294) 조당처(朝堂處) : 물이 앞으로 흘러옴.
- 295) 통고(通高) : 모두 수려하고 높음.
- 296) 병정(丙丁)이 중중(重重)하니 : 병정방(丙丁方)에 산이 첩첩함.
- 297) 양평지재(良平之才) : 고조(漢高祖) 시대의 장량(張良)과 진평(陳平)같은 인재.
- 298) 낙시대를 드리우고 : 고기 낚기를 여기 저기서 하고.산의 형상을 은유한 것.
- 299) 대와(大窩) : 크게 움푹 들어간 곳.
- 300) 염소(掩所)에 괴혈(怪穴)보소 : 염소 고개에서 괴혈(羔穴.염소혈)을 봄.
- 301) 원(猿)성이 : 원숭이
- 302) 재작(裁作)하기 어려워라 : 묘 자리를 찾기가 어려움.
- 303) 겸괘(謙卦) : 지산겸(地山謙)괘.
- 304) 북머리가 멀었으니 : 그 머리를 돌렸으니.
- 305) 자학귀소(紫鶴啟巢) : 학이 새끼를 부르는 형상.
- 306) 금산돈괘(金山豚卦) : 금산괘(金山卦)는 천산흘괘(天山迄卦).
- 307) 발우(鉢盂) : 승려들의 밥그릇.
- 308) 대독치(大讀峙) : 큰 고개.
- 309) 역기(逆氣) : 산형(山形)이 거슬러 감.
- 310) 진룡정혈(眞龍正穴) : 진짜 용과 참된 혈.
- 311) 쌍귀추성(雙鬼樞星) : 두 개의 수려하게 솟은 봉.
- 312) 미와(微窩) : 조금 들어간 곳.
- 313) 자기관성안(自己官星案)이 되니 : 자기관성(紫氣官星)이 안(案)이 됨.
- 314) 황룡(黃龍)이 배를 지고 : 황룡부주(黃龍負舟).
- 315) 용두봉(龍頭峯) 수구(水口) 막이는 : 황두봉미(龍頭鳳尾)의 물 나가는 곳.
- 316) 임괘(臨卦) : 지택임괘(地澤臨卦).
- 317) 재정(在丁) : 정방(丁方)(南).
- 318) 결록(訣錄) : 비결.
- 319) 사욕(私慾)을 멀리하면 : 사용운(使用運)을 보게되면 그 묘를 쓰는 운을 봄.
- 320) 만포(滿布) : 암포(岩抱).산이 빙 둘러있는 모양.
- 321) 삼강령(三綱領) : 명명덕(明明德), 재신민(在新民), 지어지선(至於至善).
- 322) 팔조목(八條目) :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 323) 대학평(大鶴坪) : 대학을 배우는 장소.앞의 삼강령과 팔조목과 호응하는 내용.
- 324) 수화산(水火山)에 태괘(太卦) : 지천태괘(地天泰卦).
- 325)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 : 하늘의 삼광(日.月.星辰)과 응함.

- 326) 북신천주(北辰天柱) : 북쪽에 있는 주산(主山).
- 327) 빈우주지무궁(賓宇宙之無窮) : 우주가 무궁함을 깨달음.
- 328) 태귀한문(兌貴捍門) : 수구(水口) 양쪽의 귀사(貴砂.명당 둘레에 있는 모든 물체).
- 329) 사자(四字) : 좌향좌우(坐向左右)의 4가지.
- 330) 구침장구(毬簷葬口) : 산이 둥그렇게 뭉쳐있는 모양.
- 331) 축생발음(丑生發蔭)하기 쉬우리라 : 축좌(丑坐)를 놓기 쉬운 것이다.
- 332) 사금대(四金帶) : 경유대(庚酉臺).
- 333) 충살(沖殺) : 큰돌이 서로 부딪힘.
- 334) 천붕지통(天崩地痛) : 부모를 잃음.
- 335) 천금사(千金砂) : 산이 여러 갈래인 모양.
- 336) 자좌오향(子坐午向) 당문(堂門)이라 : 자좌오향(子坐午向)에 물이 오방(午方)으로 나감.
- 337) 혈재거석(穴在巨石) 석린하(石鱗下)라 : 거석(巨石)이 인형(人形)인 아래.
- 338) 화지산(華脂山) : 화성(火姓)의 산.
- 339) 흥탄(欽歎)을 불사(不已) : 감탄하여 마지않음.
- 340) 우수(雨水) : 소나기.
- 341) 분금(分金) : 좌향(坐向)을 세분한 것.
- 342) 구천운로(九天運路) : 옛 중국의 천문지리학자.
- 343) 십육궁(十六宮) : 별자리.
- 344) 개생휴수(開生休囚) : 관생체수(關生體水).팔문(八門) 가운데 한 문.제갈공명의 팔진도(八陳圖) 중 개문(開門)과 생문(生門)으로 엮어 놓음.
- 345) 구림(鳩林) : 자기 고향.
- 346) 구천(九天) : ①중앙(中央) 및 사방(四方), 사우(四隅)의 하늘을 일컫는 말 ②하늘의 가장 높은 곳. 하늘 위 ③대지(大地)를 중심(中心)으로 한 아홉 하늘.
- 347) 성사겸(成思謙) : 무학대사.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